금주의 법구〈경구〉
너 자신을 등불 삼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 삼고 의지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1월 29일)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새날, 새로운 궤적의 시작

이토록 삶과 죽음을 시시각각 목도하며 살았던 시대가 있었던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쫓으며 살아온 과보일까.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보다도 위태로운 오늘, 그 위태로운 하루하루를 뒤로하고 다시 희망을 품는다. 새해를 맞았기 때문이다. 2022년 임인년, 유무정의 만상이 새로운 궤적을 시작한다. 국보로 거듭난 정암사 수마노탑 위로 어제의 별들은 지나갔다. 별들이 어둠을 지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급한 이 시대를 건너가야 한다. 새로운 궤적을 시작해야 한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은 2020년 6월 25일 보물 제410호에서 국보 제322호로 승격 지정됐다.

사진정보 / Canon EOS 5D Mark Ⅳ, Lens 24mm, F 5.6 S 30초×160cut(1시간 30분 노출 · Photoshop CS6)

정선 정암사=박재완 기자

불교 안팎 선거 잇따라 각계 · 종단 도약 예고

2022년 주목할 불교계 키워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한해 불교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올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6월 전국지방선거에 이어, 장자종단 조계종 총무원장 · 종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변화를 예고한다. 지난해 종교편향과 불교왜곡 사건으로 적잖은 상처를 받았던 불교계가 다시금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도 마련될 예정이다. 각 종단과 불교계 신행단체 등이 전환점을 맞아 지난 역사를 딛고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임인년 한해, 주목할만한 불교계 이슈들을 #선거, #비전, #변화 세 가지 키워드로 추렸다. 〈편집자주〉

선거 2022년은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3월 9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되고, 6월 1일 전국 지방선거를 통해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등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불교계로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신축년 막바지 그간의 발생한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안에 따른 불교계 규탄여론이 결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보존 · 전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눈 밝은 지도자를 가려내는 초석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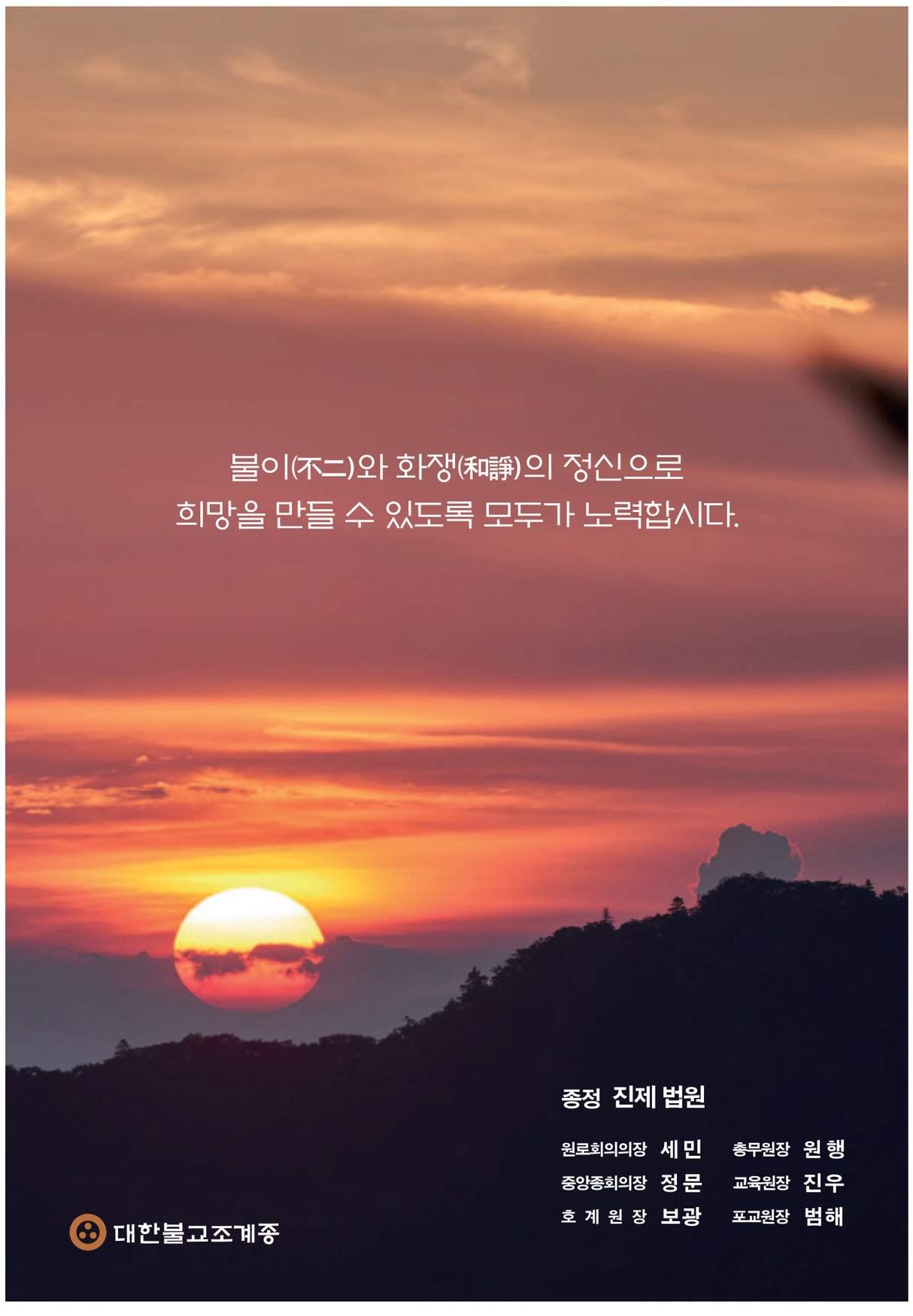
대국민 선거 이후에는 곧이어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의 변화를 이끌 선거 국면이 시작된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선거가 9월 1일 진행되며 10월 13일에는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열린다.

조계종 일부 교구본사의 주지선거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前주지 덕관 스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선거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제11교구본사 불국사(10월 임기만료), 제2교구본사 용주사(8월 임기만료), 제8교구본사 직지사(2023년 1월 임기만료)도 새 주지 선출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오랜 혼란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화종도 종단 정상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올해 제20대 총무원장을 새롭게 선출한다. 새 총무원장 체제로의 안착은 그동안 추락한 법화종 위상을 제고하고 미래발전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를 일구는 토대가 될 것이란 기대다.

비전 임인년은 불교계 각 종단과 신행 · 포교 · 사회단체들이 전환점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조계종은 올해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맞는다. 조계종은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종단 역사와 정체성을 되짚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일구는 토대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올 4월경 예정된 통합종단 출범 60주년 기념행사를 비롯해 학술대회, 기록물 제작 예산 등으로 1억 8000여만 원을 편성했다.

진각종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올해 종조 회당대종사 탄신 120주년을 맞아, 종조 탄생지인 울릉도 금강원의 성역화 등 종조 선양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로 2년간 열리지 못한 회당문화축제를 종조탄생 120주년에 맞춰, 6월 창교절 무렵 울릉도에서 봉행할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3면에 계속〉



2022년 신년특집호 A · B · C 섹션 72면 발행

신년 특집 A8 · 9 · 12 · 13
종교편향 반세기

신년 불교동화 A15

DIGITAL4.0 BUDDHISM B1 · 2 · 3 · 7 · 8 · 9

불교와 호랑이 B27


데스크 초대석 A5
성관 스님
보현선원 회주


특별인터뷰 C3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리더에게 청하다 C1~2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

K-불교 글로벌 포교사들 C4~7

원보 스님

장줄리앙 푸스

한스욕 에플레

마우리찌오 리오또

법적분쟁 지속…대사회 기조 유지 · 확대

불교계, 해 넘는 논란 · 과제

선암사 소송, 올해 판가름
나눔의집 '해임무효소송'이
정상화의 향방 가를 전환점
기후대응 · 차별금지법 촉구
보다 실천적 동력으로 확대


순천 선암사를 두고 이어진 조계종 · 태고종간 분쟁은 해를 넘어 올해까지 지속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 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분쟁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선암사 순천시 전통야생차체험관을 철거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토록 하면서 선암사를 사이에 둔 조계종 · 태고종간의 소유권분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조계종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판결은 국가가 정한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등록한 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한 것"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선암사의 조계종 교구본사로서의 지위 회복에 나섰다. 태고종의 경우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가운데 법적으로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후 법정 소송은 지난해 두 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조정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조정기일이 연기 · 변경되면서 조계종 · 태고종간 선암사 소유권 분쟁은 해 넘는 법정소송으로 올해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나눔의집 정상화 과제

지난해 불교계는 나눔의집 사태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이사진들에게 제기됐던 횡령 · 배임의혹 등은 경찰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지만, 여전히 임시이사회 체제에서 정상화 기로에 서있다.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 대표이사 태공 월주 대종사가 입적하면서 불교계는 적지 않은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다. 나눔의집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일부 내부직원들은 이사진이 혐의를 벗은 후에도, 운영진과 지속적인 대립각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임시이사회 체제에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사스님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소송' 의 결과가 향방을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예측이다.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인권과 거주안정을 위해 불교계 원력이 결집된 나눔의 집이 올해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상화 되길 바라는 불자들의 염원이 높다.

도넘는 가톨릭 성지화 논란

수년째 반복돼 온 가톨릭 성지화 및 성지순례길 논란이 지난해 또다시 불거지면서 불교계 이목을 끌었다.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추진돼 온 성지화 사업들이, 지역불교계의 일부 문제제기에도 흔들림없이 성사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교계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주어사와 천진암 등 과거 사찰이 존재했던 불교유적지에 가톨릭성지화가 진행되면서 역사 덮어씌우기 논란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정부예산안에 해미국제성지 세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 예산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서산시 전역에 분포된 불교유적지와 해미읍성 등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이 '가톨릭 성지화' 에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주어사, 천진암, 해미읍성 등을 중심으로 가톨릭성지화의 종교편향 혹은 역사 덮어씌우기 문제가 불교계 화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화종 정상화 과제

오랜 내홍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법화종이 서서히 정상화 반열에 오르는 모양새다. 지난해 새롭게 추대된 종정 도선 스님과 총무원장 서리 혜문 스님이 자격문제와 관련한 각종 가처분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법적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확보된 만큼, 올해부터는 종무행정 정상화와 종단 체계 회복과 대외 활동 재개 등에 따른 노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종단 대표종찰인 안정사의 탈종공고가 확인되면서 또다른 논란도 예상된다. 다만 해당 공고가 자격없는 자들에 의해, 전통사찰 관련법에 명시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종단차원에서 진화가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법화종은 올 3월께 제20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서리체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정상화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기후위기 대응 구체화

기후위기의 대안이 불교적 가치에 있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불교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한 데 이어,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 차원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한 바 있다. 따라서 올해는 정부의 탄소중립 강화기조에 발맞춘, 보다 불교적이고 실천적인 의제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촉구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불교계의 입법 촉구 활동은 올해도 지속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주축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하는 가운데, 평등세상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저지 불교계 대결집

임인년, 종교편향 근절되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승려대회 1월21일 개최키로



오랜세월 지속적으로 반복돼 온 종교편향 · 불교왜곡 행위를 규탄하고 근절시키기 위한 전국승려대회가 올 1월 21일 개최된다. 뿐만 아니라 전국 불자들이 가세한 범불교도대회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결집을 예고함에 따라, 올한해 종교편향 근절을 위한 불교계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구랍 23일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전국승려대회 및 범불교도대회 추진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스님들은 전국승려대회 및 범불교도대회 개최와 관련한 시행 계획을 논의한 결과,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본말사 스님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들, 중앙종회의원, 전국선원수좌회 수좌 스님과 각급 교육기관 학인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1월 21일 개최키로 했다.

장소는 서울 조계사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가운데 한 곳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범불교 차원의 현안인 만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30개 종단과의 연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구랍 28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종교편향불교왜곡범종단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 안건으로 승려대회 참석의 건을 상정해 통과했다. 따라서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는 조계종 뿐 아니라 종단협 소속 종단과 연대한 범종단차원의 결집대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승려대회 이후에도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재가불자들이 결합한 가운데 대규모 범불교도대회가 봉행된다. 범불교도대회는 2월 26일 혹은 2월 27일, 서울시청 광장 및 광화문 광장을 후보군으로 논의키로 했다.

승려대회까지 각 교구본사 차원의 실천행동 계획도 확정됐다. 이를 통해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태에 대한 불자들의 공의를 모으고 실천적 행보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각 교구본사와 사암연합회, 신행단체들을 중심으로 정부 및 여당의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규탄 입장을 공식화하고 사찰 법회시 구체적인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불자들을 중심으로 해당지역 더불어민주당사 및 주요장소에서 항의집회 및 현수막 · 피켓시위 등을 이어간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공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백안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불교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지희 기자

원행 스님, "당 이름처럼 정의롭게" 당부

구랍 21일 심상정 후보 예방서

심후보, "차별금지법 제정관련
적극 나선 스님들께 감사"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예방을 받고 "정의당이라는 당명처럼 정의롭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구랍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을 찾은 심상정 후보에게 "정의당이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심상정 대선후보의 예방에는 이은주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원행 스님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조하며 "부처님께서는 이미 2600년 전 인도 사성계급이 모두 평등하다고 설하셨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을 잘 살펴 법안이 통과되도록 정의당이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스님들이 오체투지 등 헌신적으로 앞장서줘 큰 힘이 됐다"며 "원장스님께서 종교지도자협의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주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사찰기채 금리인상 불가피…재정부담 우려

조계종 재무부, 지난해 말 안내

원금 조기상환 · 기채유예 권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사찰 기채(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상될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채 보유 사찰 가운데 원금 상환율이 낮거나 신규기채가 예상되는 사찰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조계종 재무부가 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원금 조기상환 및 기채 유예 등을 권고했다.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재무부장 탄하)는 구랍 20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사찰 기채(대출) 금리인상 가능성' 제하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찰 재정 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안내에 따르면 현재 기준금리 인상폭을 감안할 경우 2022년 사찰 기채에 대한 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 사찰의 기채 금리 인상폭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는 "종단 소속 사찰의 기채(대출) 금리도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종단과 농협(종로금융센터)이 상호 협의하여 2012년 5월부터 시행중인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인상을 일부 반영해 2021년 11월 1일 기존 2.90%에서 0.40% 인상돼 신규 기채는 대출금리 3.30%로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현재 은행측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유로 사찰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재무부는 "신규 기채 발생 사찰이나 원금상환이 미비한 사찰의 경우 추가 금리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기채의 원금상환에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불사 등으로 사찰의 재정운용 상 기채 발생이 불가피하더라도 기채 발생을 최대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신규기채 발생 시 은행 대출은 기채 원인 금액(예: 불사비 또는 부동산 매입비)의 80%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이자 연체 시 종단과 약정된 이율과 관계없이 고율의 가산금리가 원금상환 시까지 적용되어 사찰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송지희 기자



임인년 한 해,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사 사부대중 일동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불교단체 · 조직 전환기…각 종단 변화예고

2022년 주목할 불교계 키워드

〈A1면에서 이어짐〉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는 올 6월 한일불교교류 40년에 준하는 '제40차 교류대회'를 김제 금산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류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회' '강제징용희생자 위령재' 등 전쟁의 아픔을 보듬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양국 불교교류 40년을 되짚는 사진전 등으로 대중과 만난다. 이에 앞서 협회는 이사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인준하고, 올 한해 교류대회를 시작으로 양국 우호를 다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함께 일본에 잠들어 있는 강제동원희생자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골반환이 성사될 경우 양국간 정치 · 사회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대중화 · 세계화를 견인해 온 템플스테이도 올해 운영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2월경 2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에는 20주년 성과를 담은 다큐멘터리와 홍보영상 제작, 사진전(11월)은 물론 템플스테이의 발전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국회세미나(11월)에 이어 새롭게 거듭나는 템플스테이 브랜드 선포식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체험 사업의 양적 질적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불교적 미래 가치를 표방한 경영 방침 및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비구니스님들의 정신적 요람,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도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한해 그동안 노후화된 회관 곳곳을 보수하기 위한 불사를 이어왔으며, 공양간 천장 누수공사를 시작으로 지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강의실 등을 새롭게 갖췄다. 이를 토대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올해, 비구니 원로 스님들을 모시고 기념법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법룡사를 비구니 스님들과 불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법포교활동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우리사회 각처에서 노동과 인권, 생명을 위해 활동해 온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변곡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한 열린 토론의 장을 준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밖에도 불교스카우트연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백서를 준비 중이며 전주룸비니불교학생회도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성과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변화 조계종은 종단 최고어른이자 법의 상징인 종정,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원 모두가 새롭게 교체되는 변화를 맞는다. 3월 조계종 성파 스님 추대 법회를 시작으로 10월 조계종 36 · 37대 총무원장 이취임법회가, 11월 9일 제18대 중앙종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정신적 지도자와 행정 · 입법기관의 일대 변화는 종단 안팎의 새 바람을 예고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후 제36대 집행부의 원력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낸다. 광제사 대웅전 건립불사가 4월 종료되며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불사도 6월 회향을 앞두고 있다. 굵직굵직한 불사들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발원하는 불자들의 염원도 환희로 이어질 전망이다.

태고종은 올해 사회복지사업의 본격적인 재개에 돌입한다. 그동안 민간차원으로 운영됐던 사회복지법인 대산복지재단을 다시 종단의 품으로 되돌린 데 따른 변화다. 대산복지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호명,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단 차원의 대사회활동의 핵심적인 토대로 안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올해 종단 종전과 의식집을 새롭게 편찬하고, 태고문화전승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동방불교대학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천태종도 올해 새로운 총무원장이 임명될 예정으로, 변화가 감지된다. 종단 절차에 따라 종정스님이 지명한 후 종회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으로, 올 4월경 선출절차가 마무리된 후 새 총무원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임인년 불교총지종의 변화도 기대된다. 창종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법회를 4월경 봉행하고 백서 발간과 종헌종법 개정, 사원 재정비 등 미래 100년을 기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前통리원장 인선정사에 이어 새롭게 취임한 통리원장 우인 정사 체제에서 총지종 도약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승 위기 '땅설법' 한시름 놨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미래무형유산 사업 연계

전승 위기에 있던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보존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미래무형유산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 사업에 '땅설법'을 선정했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무형유산을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공모전으로, 올해 8~10월 지원 받은 110건의 무형유산 가운데 역사 · 학술 ·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종목 15건을 선정했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은 본전 △석가모니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목련존자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등 5종과 별전 △만석중증도기 △안락국태자경 △태자수대나경 △심청효행록 △삼한세존일대기 △위제희부인만원연기 등 6종이 있다. 본전 · 별전 모두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백중, 수륙재 등서 설행됐으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땅설법 전승자이다. 다여 스님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에게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이 같은 1인 전승 상황은 땅설법 보존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땅설법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공모 선정으로 땅설법의 보존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 대표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 2023년부터는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사업과도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다.

신성민 기자

'佛石' 조성된 유일 불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 '울산 신흥사 아미타여래좌상' 등 7건 지정

'불석(佛石)'이라는 광물로 조성된 유일한 불상인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한 고려 · 조선시대 전적과 불교조각, 괘불도 등 7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구랍 22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는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를 비롯해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등이다.

보물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된 대세지 · 관음보살좌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상 중 본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질은 '불석'으로 해당 광물로 조성된 불상은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유일하다. 조성한 조각승은 17세기 전반 전국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 영색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문화재청은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4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 시기, 영색이라는 수조각승, 아미타불상이라는 존명 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중엽경 불상 조성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산지(山地)와 이운 과정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雜役)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다. 무위사 감역고지에는 세조의 서명인 어압(御押, 임금의 사인)과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가장 명확하게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당나라 승려 법장(643~712)이 저술한 총 3권을 저본으로 하여 1461년(세조 7년)에 간경도감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 중 권하(卷下)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1457년(세조 3)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과 1528년(중종 23년), 1572년(선조 5년)에 중간(重刊)된 목판본 등이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832년(순조 32년)에 수화승 화담신선을 비롯해 총 17명의 화승이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다. 화담신선은 1790년 용주사 불화를 주도했던 상겸, 민관, 연흥 등 서울경기 지역 화원들의 화풍을 계승한 인물이다.

신성민 기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북녘 이야기

민추본, 공존 · 상생 위한 북한 가이드북 제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공존 · 상생 · 합심을 위한 북한 가이드 북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북녘 이야기'(이하 '알쓸북') 소책자를 발간했다.〈사진〉



민추본은 구랍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와 협력 대상으로서의 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북한 바로알기 소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 5장, 79페이지로 구성된 '알쓸북'은 북한 가이드북이라는 제목답게 다양한 북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양한 정보 및 북한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과 사진 등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1장은 '어서와, 북한은 처음이지?'에는 북한의 기본정보와 국가 상징, 주요 기념일, 정치체제,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장은 '지도로 보는 북한'으로 북한의 행정구역과 특구, 철도와 도로 등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3장 '북한 핫 플레이스, 어디까지 가볼까?'는 최근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지역인 삼지연시, 양덕온천, 평양 려명거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북한 수도인 평양의 명소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장 '북녘 사람들의 맛, 멋, 삶'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5장은 북한의 종교와 불교, 북한의 주요사찰을 소개하는 장으로 구성됐다.

'알쓸북'은 민추본 정책기획위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편집기획회의를 거쳐 내용을 구성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오삼언 민추본 회원과 민추본 조미애 행정관이 함께 글을 쓰고 사진을 취합해 완성했다. 감수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서 진행했다. 02)720-0531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2566(2022) 謹賀新年 임인년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사부대중일동

2022 필진 소개

현대불교신문이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필진을 강화했다. 논설위원들을 보강했으며 문화 · 역사 등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신규연재들도 확대했다. 신년 신규 필진들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신임 논설위원들은



주석 스님



윤재웅 교수

주석 스님은 1988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승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스님은 BBS 불교방송에서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大路)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소통했으며 대운사 주지,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문화예술법인 쿠무다는 불교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의 모범을 보여준다. 최근 새롭게 건립한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는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명상센터, 북카페, 방송국, 바다법당 등 말 그대로 모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다.

윤재웅 교수는 미당 서정주 시인의 제자이자 국문학자로 고등학생 시절 '만해 탄생 100주년 제1회 만해백일장' (1979년)에서 대상을 받아 일찍이 문학적 재능을 드러냈다. 동국대 국문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됐다. 동국대 국어교육과 교수이자 다르마칼리지 학장으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동국역경원 출간 〈불교성전〉을 윤문하고, 선시집 〈어쩌라구〉를 펴냈다.

오피니언

유응오 작가의 '문화산책'



2001년 〈불교신문〉과 2007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당선되며 소설가로 데뷔했으며, 〈주간불교신문〉과 〈불교투데이〉 편집장을 역임한 불교 언론인이기도 하다. 〈영화, 불교와 만나다〉를 발간할 정도로 소설, 영화, 드라마 등에 내포된 '불교 코드'를 읽어내는 데 탁월한 안목을 지녔다.

오피니언 칼럼 '문화산책'을 통해 유응오 작가는 문학과 미디어 속 '불교 코드'를 알기 쉽게 독자들에게 전한다.

인현 스님의 '함께 걷는 제주'



제주도는 한국이지만 무언가 이국적이다. 소위 '뭍것'들, 육지인들에게는 생경한 문화가 적지 않다. 그런 제주에서 펼쳐지는 불교문화, 포교 이야기를 인현 스님이 전한다. 인현 스님은 어린 시절 제주 어촌 김녕 백련사에서 출가했다. 합천 해인사의 강원과 남원 실상사 화엄학림에서 경전을 공부했다. 인연이 닿아 해인사, 법주사 승가대학의 강의를 맡았다. 현재 제주 오름의 길목 선래왓 도량에서 정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송마나 작가의 '시절인연'



'시절인연'은 모든 사물의 현상이 시기가 돼야 일어난다는 말을 가리키는 불교용어지만, 현대와서는 기회와 때가 올 때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 달에 한번 송마나 작가가 시절인연에 맞는 잔잔한 단상을 독자에게 전한다.

송마나 작가는 2016년 계간 〈에세이문학〉으로 수필로 등단했고 2017년 〈한국산문〉으로 평론으로 등단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대동창문인회, 송현수필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음명상

문현공 교수의 '죽음학과 불교'



문현공 동국대 응용불교학 전공 조교수는 '죽음'이라는 주제에 천착해왔다. 명상과 종교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그동안 죽음명상과 죽음학 등을 연구했다. 죽음은 삶의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죽음을 주제로 한 불교의 마음공부에 대해 익혀보자. 문현공 교수는 뉴욕주립대 한국학센터 객원연구원과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주요 논문으로 〈불교 죽음 명상의 교육학적 적용〉, 〈죽음 현저성의 교육적 함의〉 등이 있다.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김병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는 간화선을 비롯해 다양한 명상과학 프로그램을 두루 섭렵한 명상전문가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명상의 참 의미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쉽게 설명한다. 명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보자. 마음챙김 명상앱 '하루명상'의 개발자인 그는 현재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로 있으며, 하트스마일 명상연구회 연구위원이기도 하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딜로이트컨설팅, 머서컨설팅, 앤더스컨설팅 등에서 근무했다.

경전교리

지휴 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평범한 한 청년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반야심경〉의 한구절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無眼耳鼻舌身意 無色聲香味觸法)'을 듣고 구도의 길을 나섰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수행이라는 백지 위에, 수 없이 그림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모든 그림이 실재하지 않는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미얀마에서 출가하여 지금은 전남 곡성 사단법인 여시아문 선원에 선원장으로 인연 닿는 이들에게 부처님법을 전하고 있다.

삶과사유

김서정 작가의 '절집나무이야기'



나무를 공부하는 김서정 작가는 '절집나무이야기'를 통해 전국 곳곳 사찰 뜰 안에 있는 나무들을 소개한다. 나무들의 생장에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에서 얻는 삶의 지혜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김서정 작가는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1990년 단편소설 〈열풍〉으로 제3회 전태일문학상을 수상하며 소설가가 되었다. 〈어느 이상주의자의 변명〉 〈나를 표현하는 단숨에 글쓰기〉 〈숲토리텔링 만들기〉 등을 출간했다.

승한 스님의 '불교시 읽기'



승한 스님이 읽어주는 '불교시'이다. 불가적 사색과 사유로 시 한 편을 읽어보는 시간이다. 승한 스님은 중앙대 대학원 철학과 박사과정(동양철학)을 수료했다. 198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와 2007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동시가 당선됐다. 시집으로 〈수렵도〉, 〈퍽 환한 하늘〉, 〈아무도 너의 깊이를 모른다〉, 〈그리운 173〉 등과 산문집으로 〈나를 치유하는 산사기행〉, 〈스님의 자녀수업〉, 〈네 마음을 들어줘〉, 〈좋아 좋아〉 등이 있다.

박주용의 '소금 & 건강'



매일 먹는 소금,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명의 탄생 이래 매일매일 먹어온 소금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들여다본다. 박주용은 ㈜오씨아드 이사로 소금전문가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세계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경동대학교 해양심층수 학과를 졸업했다. 대우인력개발원,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했다. 대우그룹 공로상 등을 수상했으며, 〈에버랜드 서비스리더십〉,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등의 저서가 있다.

선엽 스님의 '자연힐링차'



코로나시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이 염려되는 시대다. 한국의 약차에 대해 알아본다. 선엽 스님은 안양 예절원 다도사범과 명원재단 사범을 수료했다. 삼선승가대를 졸업했으며, 원광사이버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불학승가대학원, 유마사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동방문화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수원봉녕사 율학승가대학 재학 중이다. 티뮤지움 마음정원 대표이며, 약차를 만들고 국내외에서 약차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기획연재

김진무 교수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으로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歸命)하여 중국의 불교를 살아있게 만든 역대 종장(宗匠)들의 행적과 사상을 들여다본다. 김진무 교수는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산법문과 그 선사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중국 남경대학 철학과에서 〈불학과 현학의 관계연구〉(中文)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를 역임했다.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한국 선승들의 삶과 수행의 일화들을 주제별로 묶고 선적인 의미를 들여다본다. 이강옥 교수는 경남 김해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와 영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예일 대학교 비교문학과, 뉴욕주립 스토니브룩 대학교 한국학과의 방문교수로 연구했다. 한국구비문학회, 한국어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두계학술상(2020) 등을 수상했다.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붓다는 평생을 중생교화를 위해 설법했고, 열반 뒤에 그 말씀은 경전으로 정립됐다. 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예술 형식을 통해 표현되는데 불교미술로 출현하는 계기가 됐다. 경전의 이야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풀어낸 도상이 '변상도'다. 김선희 동국대 연구교수는 독자들에서 '변상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다. 김선희 교수는 중국상해국제미술제특별상(2015)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 미술제에서 수상했으며, 올해의 작가 100인전 대상,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부처님 전생의 이야기의 핵심은 끝없는 희생과 보시 그리고 복잡한 인연이다. 석가모니께서는 한 번의 희생으로 싯다르타 태자로 태어나 부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다. 현재 알려진 본생담이 547종이므로 최소 547번의 희생과 보시의 삶을 반복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불교회화를 전공한 조성금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외래교수가 본생도와 연원과 부처님 이야기인줄 모르고 구전돼 온 설화를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전한다.



“새해 역발상을…새로운 삶 방향 바꾸는 계기”

성관 스님 보현선원 회주 ·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로터스월드’이다. 직역하면 ‘연꽃세상’이다. 맑고 깨끗한 정토를 만들어보자는 뜻이다. 그래서 제 3세계에 성관스님은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법인을 설립해 열심히 뛰었다. 그동안 활동을 단어로 정리해보면 의료봉사, 한글학당 운영, 아동센터와 학교, 화장실, 도서관 등 건립. 모두가 명사가 아닌 모두 동사였다. 발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원 실천자였다. 그래서 혼돈에 빠져 있는 작금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필요한 행원의 노하우를 묻고 싶었다. 다시 활기찬 시작을 해야 되는 새해니까 말이다. 구랍 21일 성관 스님이 회주로 있는 수원 보현선원으로 찾아가 지혜를 구했다. 미리 인터뷰 질문지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답변에는 막힘과 거침이 없었다. 평소의 주옥같은 사유의 열매들이 물 흐르듯 쏟아졌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유의 끝에서 나온 정곡이었기에, 연실 고개가 끄덕여졌다. 2시간여에 걸친 인터뷰를 ‘로터스월드’ ‘리더십 & 관계’ ‘불교적 현안’ ‘마음수행과 사유 그리고 발원’ 등의 키워드로 나눠 성관스님께 전해들은 사유와 가르침을 지상에 중계한다.



성관 스님은…동국대를 졸업해 동대학 교육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 문화사회부장 · 문화부장 · 호법부장을 비롯해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수원사 주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제 9회 대원상 포교대상 출가부문에 선정됐다. 이어 2016년 8월에는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에서 평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는 수원 보현선원 회주, 조계종 여래마을 회주, 청수사 회주, 로터스월드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 서서히 소멸해”…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과 무한세계 연결 노력 필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직위로서의 신뢰와 믿음, 전문성, 도덕적이고 윤리적 리더쉽 중요
삶과 조직에 킬링 컨텐츠 만들어 내야 활력 생겨나…미시적 · 거시적 균형감각 있어야 가능

수원=김주일 편집국장

로터스월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로터스월드와 같은 해외구호단체들도 해외에 나가기 힘드니까 위축이 됐을 것 같은데요. 로터스월드는 어떤 상황인가요?

=타격이 있죠. 그런데 이럴때일수록 큰 그림과 작은 그림 즉 미시적인것과 큰 흐름의 방향인 거시적인 것들을 잘 살펴 간절한 마음으로 성찰해야 됩니다. 로터스월드가 후원하는 제 3세계 불교국가들의 어려움을 미시적으로 관찰해 보니 각 사찰들이 탁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현지에 파견된 로터스 월드 활동가들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 미얀마 · 라오스 사찰 긴급지원 캠페인’을 통해 사찰에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죠. 그동안 캠페인을 통해 지원한 사찰은 총 49곳으로 수혜 인원도 총 1만3천여명(캄보디아 5천여명, 미얀마 4천5백여명, 라오스 3천5백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로터스월드의 한국 활동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지에 남아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선문 스님을 비롯해 라오스 1명, 미얀마에도 1명 등 철수하지 않고 남아서 현지인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이렇게 더욱더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치고 이런 진정성들을 알리니 오히려 어려운 이 시국에 후원자들이 더 생겨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기 전과 후의 현지 후원 활동에 변화가 있으신지요?

=그동안은 정해진 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일이 많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고통받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 직접 소통하면서 후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생필품과 식료품을 비롯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만들어 보급하는 등 평시보다 더 보람있고 가치있는 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로터스월드가 펼치는 사업중 올해 더욱 집중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요즘들어 전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한류 문화콘텐츠가 히트치면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위상 자체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위상에 맞게 우리 NGO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를 고민해보니 한글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후원 사업을 하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람들은 일찍부터 우리 한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2년전 종로구청과 협력사업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포이펫 지역에 ‘종로-포이펫 세종학당’을 설립 운영한 이유죠. 특히 세종학당은 한국문화센터와 한글학당을 운영중입니다. 이 학교는 올 7월 50여 명의 첫 수료자 배출했죠.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캄보디아 내 한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낸 결과물입니다. 이를 계기로 라오스 미얀마로도 한글학당의 저변을 확대시켰으면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들 나라 젊은이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와서 문화와 역사를 배운다면 훨씬 더 우리나라를 알리는 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리더십 & 관계

▲올해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3월)와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9월)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는 갖춰야할 덕목이 다를수 있는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리더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말바꾸기나 신의를 저버리는 옳지 못한 행동이 만연하고 있죠. 그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회복을 위해서는 지도자부터 몸소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적어도 어떤 조직을 맡고 리더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세가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직위로서 갖는 리더십인데 이는 내가 맡은 역할이나 자리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더의 전문성 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해와 업무 수행 능력은 바로 전문성에서 나오지요. 세 번째 리더십은 도덕적, 윤리적 리더십입니다. 이 셋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조직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세 덕목은 정치지도자는 물론 종교지도자들에게도 해당될 공통의 사항들입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은 이 같은 리더십의 덕목을 쌓아 적재적소에 발휘해야 성공적인 조직을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양한 관계속에서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관계를 잘해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우리가 관계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는 갑자기 생기는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불교의 믿음은 종교가 갖는 유일신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서로 이야기를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해와 믿음이 쌓여가면서 신뢰 관계가 구축되는 것이죠.

보고 이해하고 분석하면서 타인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일 관계속에서 상처받았다면 전생부터 이생에 이르는 업연의 행위라 생각하세요. 피해갈 수 없다면 이것이 단지 지금 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나와 남이 살아온 환경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 생각하세요.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닌 만큼 잘 참고 이겨 내다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참지 못하면 고통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길이 어딘지 큰 틀서 생각해야지, 눈앞의 이해관계만 생각한다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적인 차원서 나쁜 관계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적 고비를 넘을 때 더 튼튼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가 주는 묘미입니다.

불교적 현안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와 탈종교화 추세에 접어든 한국 불교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요.

=이제 종교 자체가 중요시되는 시대는 분명히 지났습니다. 각 종교가 지닌 가치가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정신 속에서 어떻게 녹아들지가 더 중요해졌죠. 이 때문에 앞으로는 종교로서 불교를 강조하기보다는 불교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작용할 것인지 연구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불교가 각계각층에 녹아들어 있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국민들의 삶 자체가 불교와 연결돼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앞으로 한국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사회에 참여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탈종교화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양의 패러다임에 젖어 있어서 나온 말입니다. 산업사회로 다양한 정보가 공유화되면서 종교의 모든 행위들이 명백히 드러나게 돼,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하게 된 겁니다.

4차 산업시대에 서양 종교는 탈종교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불교는 일방적인 소통 관계가 아니라 보고 이해하고 깨닫는 특성상 이 시대에 더욱 절실하고 필요한 의지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장점을 살릴수 있다면 탈종교와 우리 불교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는 항상 국민들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는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적용되는 진리죠. 불교 인구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앞으로 불교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수행과 사유 그리고 발원

▲평소 신도분들에게 어떤 마음 공부와 수행 기도를 하라고 강조하시는지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무한한 세계와 연결돼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그 연결이 잘못돼 끊어지면 끝나 버립니다. 반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행위들이 현실과 지속가능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마음을 닫지 말고 그 무한한 세계와 발원들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잊혀지지만 그런 노력을 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발원을 자꾸 하다보면 점점 화두처럼 잡념이 사라지고 몸과 말과 행동이 세상과 하나됨을 느낍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계속 마음의 문을 닫다보면 자기 세계에만 갇혀 매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는 신도들에게 보현행원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의 머리는 문수의 지혜이고 가슴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이고, 내 손과 발은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실천하는 보현이라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로터스월드도 만들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선원의 이름도 보현선원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평소 보현보살 10대원을 수행 실천하도록 강조합니다. 보현행원은 본원력으로 작용해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몸소 실천한 열 가지 행원을 닦으면 그들을 도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보현은 생명에 눈뜬 우리 자신이며, 보살의 삶은 우리 생명의 자각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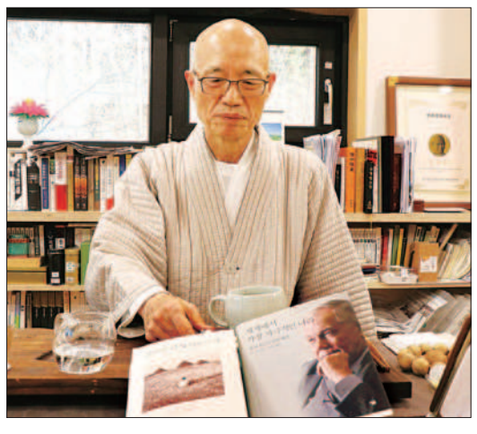
▲요즘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고민과 사유의 소재는 무엇인지요?

=모든 살아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실패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은 고(苦)라고 하셨는데, 이말은 우주의 법칙성을 모르는 무명인 상태를 뜻합니다. 모른다는 것 자체가 괴로움인데, 그걸 모르는 인간은 괴로움에 방황하다가 결국 서서히 스러지고 소멸해 가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지요. 이런 대우주의 진리를 깨닫다 보면 인간의 교만이 멈춰집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잘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속이는 행위니까요. 다만 사는 동안 그 실패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세상과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잘 공유하면서 마지막의 인생 날개를 접을지가 화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삶과 조직에 킬링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 역시 사물과 상황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섬세한 감성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 삶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서 무엇인가 매료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을까를 연구해 보세요.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국민들에게 해줄 말이 있으시다면요.

=새해에는 역발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못살겠다, 힘들다’ 부정적인 것에 편승해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증폭되는데, 이럴때일수록 발상을 바꿔서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마스크를 매일 착용함으로써 각종 세균으로부터 노출됐던 건강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청결한 습관도 일상서 강조하게 됐는데, 이렇게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삶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줬다고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랫동안 살아온 업과 습이 있으니까 당장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맞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바로 지금 이순간이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을 새해부터 갖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요즘 책꽂이에는 〈삶으로…〉〈세계에서…〉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와 짐 로저스의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 두 권을 읽고 있습니다.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새로운 영적 교사 에크하르트 톨레의 최신작이며 대표작 중 하나인데, 에고와 생각에 파묻혀 삶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다시, ‘지금 이 순간의 삶’으로 데려 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자신의 행복에 스스로 책임을 지라’ 고 이 책은 말합니다. 자신의 의식 상태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삶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죠. 평화는 소음도 없고, 문제도 어려운 일도 없는 장소에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화는 그런 것들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의식 상태가 당신의 삶과 행성의 미래를 결정하듯이 삶 전체의 여행은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지배한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이 추측으로 갖는 자신의 자의식, 에고, 생각 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고와의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잘 알려진 짐 로저스의 신작인데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돈’의 미래 지도가 어떻게 펼쳐지고 각국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 책입니다. 특히 역사 흐름에 입각해 앞날을 읽는 것이 ‘돈의 흐름’을 내다보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려줍니다. 급변하는 경제 변화서 어떤 분야가 뜨고 투자에 유망한지를 설명하고, 반세기 가까이 성공과 실패를 통해 터득한 본인의 투자원칙과 삶의 지혜를 세세하게 밝혀줍니다. 이 책은 나 자신의 앞날뿐 아니라 국가 비전과 관련해 기업과 정부 그리고 개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고의 전환과 성찰을 전해줍니다.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사천 신해사

회주 무 공

사부대중일동

신해사 말사

진주금천암 주지 도 연

남해반야용선 주지 동 운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2821-46번길
전화 055)855-1772 팩스 055)855-0247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사면불건립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남북간 자유왕래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주지 **원택스님**
총무 **일학스님**

겁외사 신도회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불도량 **기청사**

주지 **묘혜공**

법화원도회
법화경 독송회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77
전화 055)383-1256, 129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지원장 **혜 근**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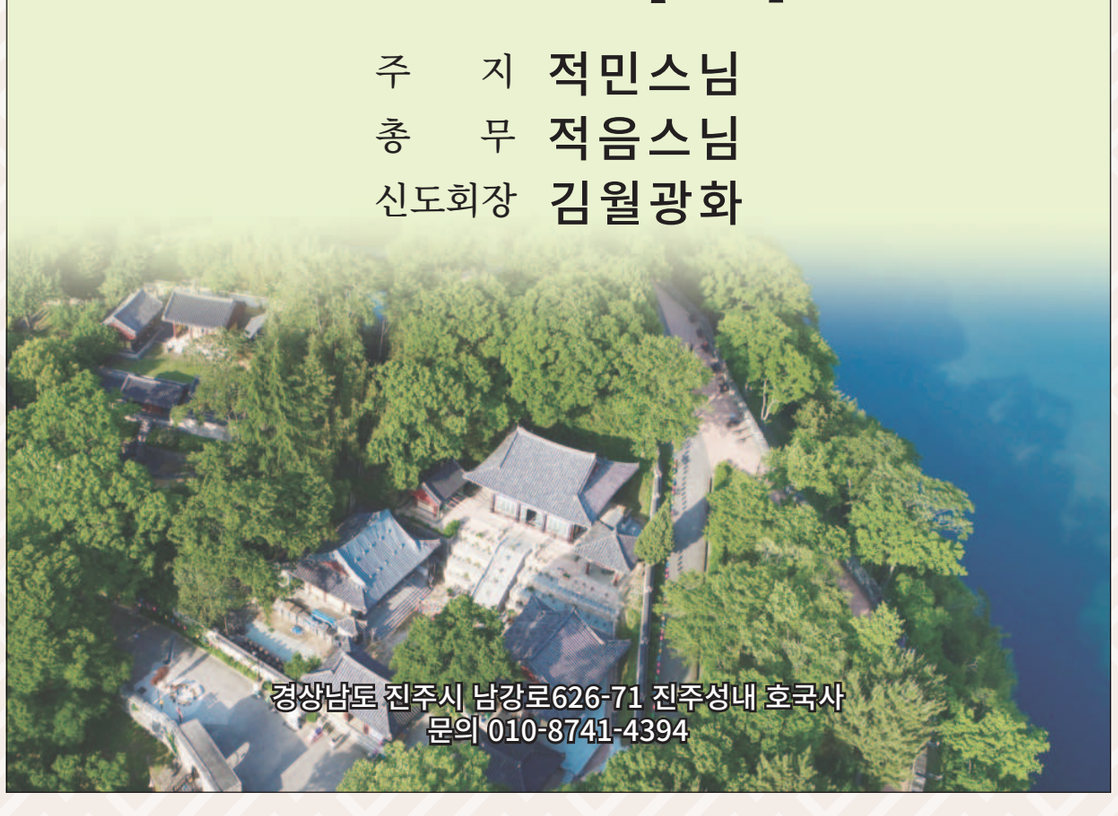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금강경 기도 정진 도량"

진주 호국사

주 지 **적민스님**
총 무 **적음스님**
신도회장 **김월광화**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626-71 진주성내 호국사
문의 010-8741-4394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172
전화 055)262-6663

창원시 무료급식(점심) 단체 지정사찰

사단법인 **樹山慈悲禪院**



이사장 **法相**

하나는 여럿을 위하여!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의료생협 자비요양병원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6
전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스 055)265-0051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중풍,치매,노인성질환)

사단법인 자비마을
- 보건복지부 인가시설 -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스 055)237-4563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교육의 초석, 민족정신도량 개원109주년

주지 **삼산 도문**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46
전화 055)246-8393
영축불교대학 055)242-8393 / 대자유치원 055)245-0108

대한불교조계종

칠불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경남 무형문화재 제45호

밀양 작약산 예수재 보존회

佛教儀式 범음범패 學人1기생 모집

영남 범음범패의 전통을 이어온 작약산 예수재 의식 사십구재 의식 교육생을 모집하오니 사부대중스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의식전문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방법, 범음범패, 바라무, 작법무, 사다라니무
: 우수 전수생은 전수장학생 선발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30분

개강일시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개강장소 경남 밀양시 초동면 오방길 31-56 작약산 광제사

문의전화 055-391-4403 / 010-3833-4404

芍藥山 預修齊 保存會

누적된 편향에 공분…14년만의 불교결집 '주목'

종교편향 반세기
1. 불교계 공분, 원인과 현황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교편향의 역사는 반세기가 넘는다. 1945년 이승만 정권이 기독교인사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기독교국가의 건설을 주장했던 당시부터, 종교편향 · 종교차별로 인한 불교계의 직간접적인 피해의 유구한 역사가 시작됐다. 긴 역사만큼 그 형태는 조금씩 변화해 왔다. 공공영역에서의 종교차별 · 종교편향 행위가 의식 없이 횡행하던 시기를 지나, 그에 대한 기준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이후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장의 성시화 발언과 직간접적 사업지원으로 변모해 왔다.

장로대통령 이명박 정권 당시, 대통령의 조찬기도회 무릎기도 사건과 국토해양부의 교통정보시스템의 사찰정보 누락 등 수없이 이어진 종교편향 사건으로 인한 상처는 8.27범불교도대회로 표출됐고, 이후에는 법적 기준을 넘나드는 가운데 수면 아래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됐다.

그리고 2022년, 불교계는 다시 종교편향 저지를 위한 결집을 예고하고 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불교계가 여전히 종교편향과 싸우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톺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종교편향의 기나긴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미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불교계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임인년 새해부터 종교편향 · 불교왜곡을 저지 ·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이 거세다. 사진은 정청래 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린 조계사.

단일 사안에 대한 반발 넘어선 지속 · 반복된 편향에 강경여론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 예고해 2월 범불교도대회 봉행도 추진

새해를 맞이하는 불교계 정서가 심상치 않다. 정부 · 지자체 주도의 종교편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문화재관람료 폄훼발언으로 불거진 불교왜곡에 대한 불편함이 쉬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해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를 시작으로 2월 범불교도대회까지 예고하며 대대적인 결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여러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안들을 끝까지 규탄하고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들이다.

결정적인 계기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올해 정부예산안에서 전통문화 보존 · 전승을 위한 추가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정부의 전통문화 홀대 여론까지 더해졌고, 수년전부터 논란이 됐던 주어사 · 천진암의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 문제, 국공립합창단의 종교편향성 문제도 재조명됐다.

그러나 이 역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많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오랜세월 수없이 반복돼 온 종교편향, 불교홀대 사건들로 누적된 불교계의 공분이 폭발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지난 한해 반복된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건을 계기로 불교계의 분노는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했다. 각 종단과 불교신행단체와 시민단체에서 규탄 성명이 잇따라 발표된 것은 물론, 각기 조직을 꾸리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범불교계 결집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계종이 종교편향 · 불교왜곡범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구랍 8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범종단 차원의 종교편향 저지를 위한 '범종단종교편향대책위원회' 결성을 결의한데 이어 구랍 16일 조계종 중앙종회까지 '종교편향 · 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중앙종회는 일련의 공공기관의 종교편향 행보들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신앙의 과도한 표출에 기인하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위 구성의 건을 대표발의한 선광 스님과 스님들은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과 교황 알현을 비롯한 친가톨릭 성향과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하 발언, 문체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등 정부의 종교편향 · 불교왜곡이 빈번히 발생돼 대응이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안에 대응하는 불교계 반응이 기존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는 인식이 나오는 것은 이같은 현상이 특정종교, 개별단체를 넘어선 범불교 차원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교계는 종교편향 사안이 발생하면 성명서 발표와 사과 촉구 등의 단발성의 의사표명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불교계의 문제제기에 사안이 개선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최측의 사과 정도로 무마되거나 흐지부지 여론에서 잊혀 지곤 했다. 대표적으로 정부 예산이 투입된 가톨릭성지화 사업으로 논란이 됐던 주어사와 천진암 문제는 이미 수년전 지역 불교계의 문제제기에 직면한 바 있지만 결국 강행됐고, 국공립합창단의 기독교 편향성 역시 문제제기에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에 반해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교계 강경행보에는 이번에야말로 바로잡겠다는 강경한 의지가 확연하다. 이례적으로 정부를 향한 법적조치까지

MB 무릎기도 · 성시화발언으로 촉발된 '8.27 범불교대회' 이후 전국규모로 연대 · 결집은 처음
"종교 편향 뿌리 뽑아야" 여론

불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역시 첫 시발점인 10월 5일 국정감사 시점부터 해를 넘어 지속되고 있다. 조계종의 요구사항도 자진사퇴 혹은 당 차원의 출당조치로 강경하다. 이는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이 전통문화 몰이해에서 비롯됐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명확한 입장에 따른 것이다. 전국 사찰에 정청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규탄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거듭된 사과에도 당사자 출당을 요구하는 강도 높은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는 시각도 있지만, "더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응집한 결과라는 게 불교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화재관람료 문제는 오랜세월 불교계를 괴롭혀 온 현안이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합법적인 징수임은 차지하고라도, 그간 국가정책의 일방적 변화로 전통사찰이 국립공원에 강제편입된 상처와 더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을 고스란히 불교계가 떠안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사실을 왜곡한 발언을 쏟아내 국민들에게 편견과 오해를 전했고, 사과는커녕 며칠뒤 국정감사에서 재차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사업' 역시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캐럴을 활용해 국민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이를 해당 종교에 맡기지 않고 국가기관이 직접 홍보에 나서는 등 도넘은 행보로 "종교편향 행정"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이와 관련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법원에 캠페인 중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법적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문제를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 측이 예산 지급 외 직접행보를 중단키로 하고 재발방지 입장을 공표함에 따라, 가처분은 소를 통해 보호가 시급한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불교계의 이례적인 행보의 이유는 그동안 조계종 총무원 등이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30일 '캐럴 캠페인'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청와대와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종교편향 행위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명시했다. 조계종은 해당 입장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추기경 예방을 비롯해 로마 교황청 방문과 교황 '알현'을 비롯, 국공립합창단 종교편향, 불교유적지를 포함한 전국 가톨릭순례길 조성사업,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님비하 동영상 유포, 정청래 의원의 불교왜곡 발언 등을 포괄적으로 지적했다.

캐럴 캠페인 자체를 넘어 "공공 영역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종교편향 · 종교차별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명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한 셈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1월 21일 전국승려대회를 결의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인사말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공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불교계를 백안시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상식선에서 용인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종단이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2000여년 동안 전통문화를 수호하며 자비정신으로 어려운 곳에 손을 내밀었던 불교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도 넘은 종교편향으로 촉발됐던 '8.27범불교도대회' 이후 십수년이 지나 현재, 다시금 불교계 여론이 총결집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향후 어떤 변화가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지원 기도회·성시화·교황 '알현'까지

종교편향 반세기

2. 반복되는 종교편향史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미군정 – 이승만 정부(1945~1960)



한국사회에서 종교 차별은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1945~1948)부터 시작됐다. 기독교 국가를 지향했던 미군정은 노골적으로 기독교계 우대 정책을 폈다. 일본이 남기고 간 종교적산(敵産) 대부분을 당시 전체 인구의 0.5% 밖에 되지 않던 개신교에 대부분 불하했고 그 자리에 교회와 학교 등 수백 개의 기독교 시설이 들어섰다.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특혜도 제공했다. 1975년에야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으니 30년의 시간격차가 있었던 것이다. 또 공영방송인 서울방송을 통해 일요일마다 선교방송을 내보내는 등 기독교 우대정책을 펼쳤다.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국가를 방불케 할 만큼 친기독교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헌법에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한 채 국기배례를 주목례로 바꾸고 제헌의회의 시작과 초대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기도로 시작하는 등 국가의전을 기독교식으로 치르는 관례를 만들었다.

원조 물자 배분 과정에서 기독교계에 특혜를 줘 교육, 복지 분야에서 기독교계가 단시간에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승만 정권에서 19개 부처 장을 역임한 153명 중 개신교 신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7%에 달했다. 각종 특혜와 지원으로 기독교계는 빠른 시일 내에 물적·인적 자산을 광범위하게 축적했다.

▌박정희 정부(1961~1979)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막을 내렸지만 당시 만들어진 기독교 기반은 박정희 정권 때 폭발적인 교세성장으로 이어졌다. 거대집단이 된 개신교는 정치적 활용가치가 큰 세력이 됐다.

박정희 정부 기간 만들어진 조찬기도회를 통해 개신교 지도자들은 고위공직자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이 같은 교류를 통해 개신교계는 어려 측면에서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정부지원으로 국가조찬기도회 같은 초대형 전도집회가 여러 차례 개최됐다.

반면 불교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악법들을 활용해 교묘하게 통제했다.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원칙을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불교재산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을 제정해 불교재산 관리주체가 불교계가 아니라 정부라고 명시했다. 1968년 사찰을 관광지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문화재 예산은 사찰에 배정하지 않아 불교문화재는 황폐함이 더해갔다.

▌전두환 노태우 정부(1980~1992)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박정희 정부의 기독교 우대와 불교 탄압은 꾸준히 이어지며 정권차원의 길들이기가 시도됐다. 1980년 6월, 신군부는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10·27법난의 계기가 됐다. 2007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의해 10·27법난은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신군부세력이 요구한 전두환 지지표명과 문공부 자율정화지침을 거부한데서 비롯됐음이 밝혀졌다.

불교재산관리법 대신 입법된 전통사찰보존법 역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제도로 활용됐다. 개신교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더불어 교회의 대형화가 실현되면서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강화됐다. 이 시기부터 개신교인들에 의한 훼불 행위가 늘어나게 된다. 불교계는 각종 훼불로 고통받았지만 경찰은 대부분 제대로된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1993~1997)



서울 강남 충현교회 장로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집권하면 청와대에 찬송가가 울려 퍼지게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취임 이후 거침없는 기독교 색채를 드러냈다. 스스로 '문민정부'라 내세우며 출범한 김영삼 정권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지나친 종교차별이 계속될 것 같다'는 우려를 낳게 하였다. 장관급 인사 중 기독교인은 7명이었던 데 반하여, 불교인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정권 초기엔 매주 감장환 목사나 조용기 목사를 불러 청와대 예배를 주관하게 했다. 2년제 무허가 신학대학 대부분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한 것도 이때였다.

김영삼 정권은 서울 조계사에 두 차례나 공권력을 투입해 물의를 빚었다. 1994년과 1995년에 조계사에 경찰력을 투입해 전국기관차협의회와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강제연행한 사건은 갈등을 이어가며 불편했던 김영삼 정권과 불교 사이의 골을 더 깊게 했다. 경찰력 투입 당일부터 정권 규탄 시위가 펼쳐졌고, 얼마후 조계사에서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국법회가 개최되며 불자들의 공분을 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1998~2007)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중요한 사건은 성시화운동 본격화다. 성시화운동은 2004년 정장식 전 포항시장이 시 예산의 1%를 성시화운동에 사용하겠다고 공헌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지역 기관장과 유지, 목사들의 인적 네트워크인 홀리클럽도 이 시기 전국적으로 생겨났다. 전국 각자의 공공기관에서 행해지는 정교위배적 사건들을 보면 이미 교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결합돼 지자체와 교회의 결합이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사학을 사유하고 있는 대형교회와 교단들의 요구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됐으며 국립학교 내 교회시설이 설치되고 공개적으로 사용되면서 국립교육기관이 특정 종교를 지원한 것에 대해 정교분리 위배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이명박 정부(2008~2012)

이명박 정부 들어 정교분리 위배 행위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보수 개신교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기독교국가화'를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개신교 인맥은 정치권력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됐고 정치인들은 교회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것이 2011년 '이슬람채권법'을 추진하다 개신교 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직후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 일명 '무릎기도'인 통성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 물의를 빚었다.

전국 지자체가 앞다퉈 기독교유적지를 조성했다. 정부가 만든 교통정보시스템과 교육지리정보서비스 등에 사찰이 빠져 불자들이 반발하면서 2008년에는 범불교도대회가 열리는 등 불교계의 항의가 지속됐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울산 통도사 역 명칭이 삭제, 팔공산역사문화공원이 백지화, 템플스테이 예산삭감 등 보수 개신교가 불교계를 향해 직접 공격하는 양상은 매우 심화됐다. 막무가내식 택지개발로 인한 수행환경 훼손도 극에 달했다. 신도시 개발과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사찰과 사전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었다.

▌박근혜 정부(2013~2017)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극심한 개신교 편중 인사와 집회 참여 등으로 종교적 불평등과 갈등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취임 당시 종교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3년 2월 대통령 취임 후 발표한 내각 인사를 보면 개신교 측이 절반이나 됐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불교와 개신교 측의 입장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취임한 해 8월 국정원 대선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교계는 이를 규탄하는 시국회의를 열었지만 개신교 측은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 2014년 6월에는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도를 넘는 개신교 찬양발언으로 사회문제가 일었다. 불교계는 그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개신교 측은 그를 옹호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극우반공 기독교 단체들이 주류가 돼 박근혜 구속 반대 등을 격렬하게 외친 것은 박근혜 정부가 기독교 권력 기반 내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2017~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국민의 기대를 받으며 출범한 문재인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개인 신앙인 가톨릭만 받드는 정책으로 시종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7년 5월 초 취임하고 내각 구성도 안 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는 가톨릭 신부와 수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기도회를 개최했다. 정권 초기 미국·중국·러시아·유럽연합 및 동남아 여러 국가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때에 가톨릭 주교를 로마교왕청에 특사로 보내는 유례없는 일까지 거리낌 없이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하면서 미사 참석 장면을 공중파로 생중계하고 교왕과의 만남을 '알현(謁見)'이라고 공식 발표하는 등 개인 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해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화합을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정부부처가 예산을 지원하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을 펼쳐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발언에 이은 것이라 불교계의 불편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종교차별 주요 사례 (1945~2021년)

◆ 미군정–이승만 정부(1945~1960)	
정교분리 위배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 원조물자 개신교 우선 배정, 신학교의 대학원 인가, 공영방송서 선교방송 실시, 기독교방송국 설립, 극동방송국 설립,
	제1공화국 국가의전을 기독교 식으로 진행, 교회에서 해사대 군사훈련, 육군참모총장 '군대의 기독교화' 추진 약속, 불교계 사찰령 폐지 건의 묵살, 이승만 불교내분 부추기는 정화유시 발표, 기독교계 일요일 선거 반대로 선거일 변경, 국기배례를 주목례로 변경
◆ 박정희 정부(1961~1979)	
정교분리 위배	'국회조찬기도회' 개최, 3군 참모총장 모두 개신교인 충원, 전군신자화운동, '부대합동세례식' 거행, 전국교도소신자화운동, 전경신자화운동,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재산등록반대사찰 탄압, 공원법 제정 국립공원 지정, 사찰문화재종합계획 발표해 사찰 관광지화, 불교재산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찰 감독위한 '사찰관리행정지침' 사찰에 전달, 문공부 사찰정화 확인반 설치
◆ 전두환–노태우 정부(1980~1992)	
정교분리 위배	전두환 장군 위한 조찬기도회, '80세계복음화 대성회' 정부지원,부처님 오신날 MBC조용기 목사 선교방송
	전두환 정부 김장환 목사에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극동방송 지방방송국 설립 특혜,
	신군부 '불교계 정화 수사 계획 수립', 10·27법난, '전통사찰보존법' 대체 입법, 원각사 대웅전에 최루탄 발사 경찰 난입, 봉축행사에 백골단 폭력, 제등행렬에 최루탄 투척
◆ 김영삼 정부(1993~1997)	
정교분리 위배	김영삼 정부 새 내각 기독교 편향인사, 대장 10명 중 9명이 크리스찬, 예비군소집통지서에 "예수 믿으라" 선교문구, 청와대 불상 철거 논란
	교육부 부활절과 겹쳐 검정고시 날짜 변경, 총무처장관 국가공무원 시험 평일 실시 밝혀,
	육군17사단 불상 태워 유기(1993), 국군 특수전학교 불교탄압, 경남지사 관사에 있던 불상 폐기, 김해공군기지 법당과 석등 손상
◆ 김대중–노무현 정부(1998~2007)	
정교분리 위배	정장식 포항시장 시 예산 1% 성시화운동 사용 발언, 이명박 서울시장 '수도 서울 봉헌' 발언 등 공직자들의 잇딴 성시화운동 참여
	한국관광공사 후원 '한국교회순교현장순례' 개발, 제주성지순례 프로그램 개발, 순천시의회 기독교 특혜 조례제정', 한국기독당'창당, 개신교계 압박으로 사학법 재개정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를 예수의 부대로", 육군 제55사단 편지봉투에 특정교회표시, 평택경찰서 유치장내 강제예배, 서울지하철 노선도에 특정종교 교리표시
종교자유 침해	㈜쌍방울 종교강요 행위, 강남대 이찬수 교수 사찰서 절했다는 이유로 해임, 남양주시 유선방송서 기독교 찬양 녹화물 방영
종교차별–훼불·폄훼	부산 금선사에 검찰수사관 난입, 조계사에 공권력 투입, 한국청소년서울연맹 '청소년 역사문화현장 순례'서 사찰 제외, 옹진군 백령면 '심청각 연등축제' 연등강제 철거, 오산시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 불허
◆ 이명박 정부(2008~2012)	
정교분리 위배	이명박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기독경 묘사 문양으로 교체, 청와대 경호처 차장 "모든 정부부처 복음화가 나의꿈"
	개신교 국회의원 '일요일 국가시험 금지 추진' 법 개정 추진, 황우여 의원 공식석상서 "모든 대법관 개신교인이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차량 과잉 검문
	서울시청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와 성경문구 표기, 사랑의 교회 편법공사 위해 서울시가 도로위치 변경
	개신교계 반대로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중단, 한기총 개신교 은행설립 추진, 소망교도소 개원, 이명박 대통령 '이슬람채권법' 부산 후 조찬기도회서 무릎기도
종교차별–훼불·폄훼	국토해양부 '경관법' '경관계획수립지침' 대상에 전통사찰 누락, 문화재청 미륵사탑 졸속 발굴, 왕흥사지 4대강 공사로 훼손 위기, 낙단보 마애불 고의 훼손 의혹
	청와대 지관 스님에 결례, 개신교 압박에 역이름에서 통도사 삭제, 기독교계 반대로 팔공산역사문화공원 백지화, 기독교계 템플스테이 예산저지 운동
	절에서 전도캠프한 개신교, 봉은사 땅밟기 동영상 유포, '지상보살=사탄' 동영상 제작 유포
◆ 박근혜 정부(2013~2017)	
정교분리 위배	전주시 천주교와 개신교 중심의 '6대 종교관광 활성화 사업', 전주시 '승암산'을 치명자산(천주교 순교자가 묻힌 산)으로 명칭 변경
종교차별–훼불·폄훼	인천공항 전통 연등 불허하고 크리스마스트리는 허용, 한국연구재단 종교연구 분야서 불교 배제
◆ 문재인 정부(2017~2020)	
정교분리 위배	대통령 취임 직후 청와대서 축복미사, 대통령 취임 특사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교황청에 파견, 해외순방 때마다 성당 방문
	전주시 특정종교 성시화 사업 재강행, 2018 평창 동계올림픽 '3월의 크리스마스 페스티벌'(2018), 문체부 '캐럴 활성화 캠페인'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가톨릭 특혜,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행사 명동성당에서 개최
종교차별–훼불·폄훼	황교안 대표 부처님오신날 사찰 가서 합장 거부, 전통문화 보전 전승위한 추가 예산 일부 삭감,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폄훼 발언, 주어사·천진암 가톨릭 역사 덮어씌우기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발간 '2020종교차별 사례 종합보고서–대한민국 종교차별 사례집' 참조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방 장 중봉 성파 대종사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보살선원장 천 진 포교국장 인 경
유 나 항 조 총무국장 현 덕 호법국장 천 주
강 주 인 해 기획국장 광 우 박물관장 송 천
노 전 지 범 교무국장 청 우 원 주 범 용
율원장 덕 문 재무국장 현 담 농 감 서 일
염불원장 영 산 사회국장 석 운

영축총림 통도사 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2022 謹賀新年 임인년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지 지은 산옹

신도회일동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본사

법보종찰 해인총림 해 인 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연암 현응 대화상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거제 신 광 사

주지 선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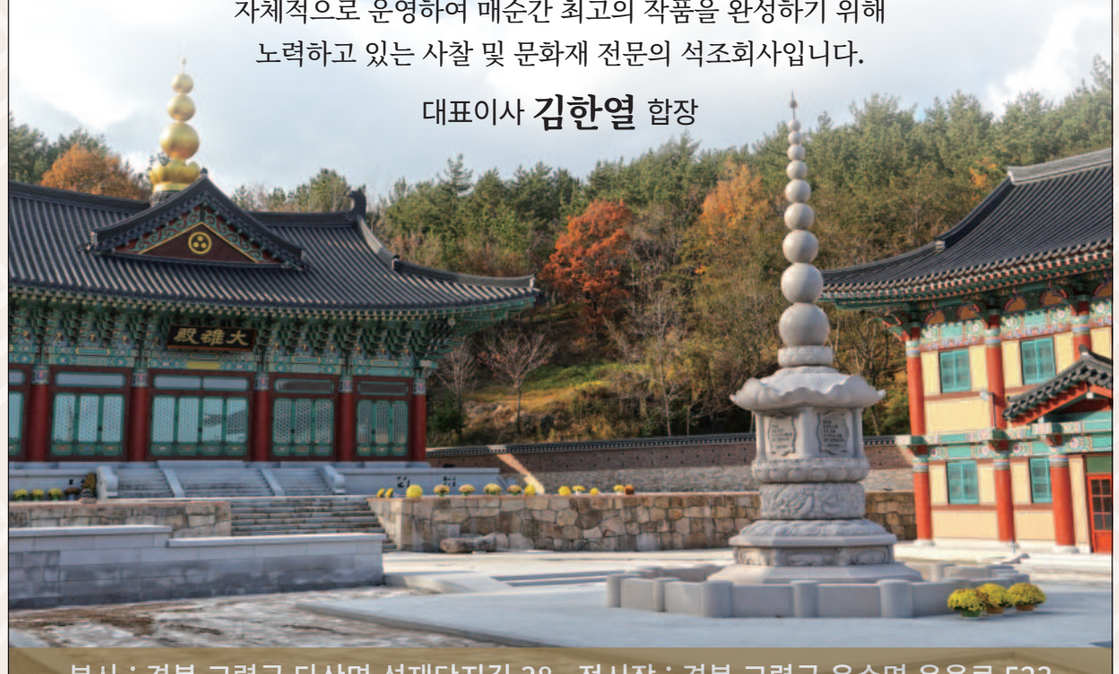
신도회일동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 타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사단법인 국제불교 승가회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 **보승 덕산**

총무원장 **도현**

원로원장	**원 성**	중앙종회의장	**서 암**	교육원장	**도 엽**
감사원장	**원 종**	원로부원장	**지 현**	국제포교원장	**정 암**
사정원장	**보 운**	호계원장	**선 혜**	비구니부회장	**화 심**
법사회장	**금강심**	법사부회장	**세 연**		

전국교구

경기교구 **일연** 합장 제주교구 **은공** 합장 충남교구 **삼현** 합장 충북교구 **무광** 합장
전북교구 **법향** 합장 전남교구 **혜안** 합장 경북교구 **서암** 합장 경남교구 **석윤** 합장
부산교구 **지현** 합장

사업부 소속

부장 **손연호** (도림 처사) (불단 닫집 법상 제작.등) 부장 **노정환** (일연 처사) (불상 단청 탱화 제작.등)

총본산-회룡사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가천안길 44-66
010-4001-8476

총무원-용주사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 634-19
055-391-0413

종도 모집 및 분한신고 받습니다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감 사 **대성 혜원**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원로위원 **법계석산 석법신 석진석 석무각 석종천 석법우 석보해**
자문위원 **석종천 석법신 석무각 석지우 석진석 석일불**
호법원장 **석상원** 감찰원장 **석지상** 교육원장 **석지선**
문화원장 **석승태** 포교원장 **석무덕** 호계원장 **석성산**
총무부원장 **석덕운** 사정원장 **석법성**
서울종무원장 **석성산** 경기종무원장 **석지연** 경북종무원장 **석보해**
대구종무원장 **석일불** 통영종무원장 **석덕운** 밀양종무원장 **석법성**
창녕종무원장 **석지우** 창원종무원장 **석승태** 김해종무원장 **석은호**
울산종무원장 **석연화** 김천종무원장 **석자운** 진주종무원장 **석상원**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천북로208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 로 원 장 **법두 수암**
총 무 원 장 **법응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사)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총무원장 **법보 일봉**
종회의장 **탄 영**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포교원장 **법전 법현** 고시원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감 우** 경기종무원장 **혜 암**
충청종무원장 **진 산** 전라종무원장 **덕 운** 군산종무원장 **덕 일**
경북종무원장 **탄 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 성**

총무부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호법부장 **진 각** 포교부장 **진 산**
재무부장 **지 안** 연화부장 **정 해** 문화부장 **공 덕** 교무부장 **진 문**
포교부장 **태 천**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종 정 **보명당 석원정** (사서실장 석현경)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법성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화성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전남 종무원장 석현경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김정석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주민등본1통, 증명사진3매,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전화 052)247·4848

◈ 불.법.승 ◈

(宗) 대한불교 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성. 법공. 용인. 보각. 해곤. 평산. 도오. 지일. 해봉**
외 각원장(15인)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목련해**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송. 지원. 청광. 정륵**
(전국 16개 교구)

■ 삼보조계종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499번길 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교육·제도화로 사회적 종교감수성 확대 필요

종교편향 반세기

3. 대안과 과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08년 봉행된 범불교대회는 정부의 종교편향·차별을 규탄하기 위해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규모로 치러졌다.



서울시청앞 광장을 가득메운 사부대중.



범불교도대회는 종교편향의 파도를 막아낸 방파제였다.

한국사회는 명실공이 다종교국가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으며, 종교 활동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 편찬한 종무행정백서에 따르면 한국에는 50여개 종교, 500여 교파가 존재하고 있다. 탈종교현상에도 여전히 사회, 문화, 정치 등 한국사회 전반에서 종교의 영향력은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기에, 종교 갈등은 곧 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미 헌법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가 그것이다.

그럼에도 종교편향·종교차별은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고 불교계는 상처는 여전히 누적되고 있다.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각 정권에서 발생한 각종 종교편향·종교차별의 피해자는 대부분 불교였다.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후 7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교계 화두는 종교편향이다. 불교계가 그동안 종교갈등을 포용하고 감싸 안아 온 대표적인 종교로 인식돼 온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지속적인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봉행된 '8.27범불교도대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되는 등 유의미한 변화는 있었다.

2009년까지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을 위한 법개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 법안 전반에 종교차별 금지조항도 추가됐다. 심지어 국가공무원법 제59조 2항(종교중립의 의무)가 신설되면서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소속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는 규정까지 명시됐다.

정부는 2009년 5월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업무편람' 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포했으며,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까지 제작했다. 다만 정부의 공직자종교차별인식교육이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일회성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기에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종교차별 사례는 2009년 77건으로 시작돼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고 이를 통해 공무원 개개인의 종교차별 행위를 스스로 점검하는 예방·교육효과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과 변화에도 공공영역에서의 종교편향, 공직자의 종교차별 행위는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우리사회 곳곳에서 보일 듯 보이지 않게 드러나면서 불교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이유는 뭘까.

한국은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
배타적 신앙·종교인식 있다면
종교 갈등은 당연한 현상일 뿐
근본적인 대안 없으면 반복 돼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안국진 간사는 '한국내 종교갈등 및 종교파별 상황 극복을 위한 제언' 에서 "일반적으로 종교간 갈등이 종교간 교리나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종교갈등은 종교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 대한 상반된 이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특히 "해당 논란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관여 및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의 문제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불거진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으로 인한 논란과도 일치한다. 종교음악인 캐럴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교계 반발에 직면한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연말연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문화적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캐럴을 문화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문체부의 시각이 드러난다.

문체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즉각적인 진화에 나섰지만, 그럼에도 불교계 여론은 쉽사리 돌아서지 않았다. 그간 지속된 크고 작은 종교편향·종교차별에 대한 기억에 더해, "불교계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까지 이미 확산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불교계 인사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내외 공식행보에서 가톨릭 신앙이 과도하게 표출되는데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스님들이 많았다"며 "여기에 주어사와 천진암 사례 등 지자체가 지원한 가톨릭 성지화 사업이 불교역사와 유적을 덮어씌우는 과도한 형태로 현실화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불편함도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랜세월 전통문화를 보존전승해 온 불교계 노력에 대한 합당한 댓가는 치르지 않고 각종 규제들로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는 불편한 인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찰 재정난이 본격화되면서 수면 위로 표출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그동안 불교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가까이 정부의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사찰의 희생을 감내한 모범적인 행보를 이어왔지만, 방역지침에 대한 반발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기독교계와 '종교계' 로 묶여 동급의 취급을 받은데 대한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폄훼발언에 이어,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조계종이 요청한 전통사찰 및 문화재 보유사찰의 유지전승을 위한 추가예산이 사실상 묵살되면서 '다른 종교계가 실속을 챙길 때 불교계는 희생만 하고 있다' 는 여론이 팽배했다.

다름·차별 인정하는 종교 감수성
불교의 일방적 노력만으로는 안돼
제도화·사회적 공감대 조성해야
결집계기로 대대적변화 이끌어야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종헌특위 위원장 선광스님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은 그동안 불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문화재관람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데다가 그 스스로 기독교 신자라는 점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단순한 실수나 왜곡으로 보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이 헌법에서 규정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종교중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종교편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금옥 순천대 前법학과 교수도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 에서 "인권감수성의 부족 등으로 종교차별이 권리침해라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며 "공무원의 종교적 편향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공직자 직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반시 관련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편향·종교차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대사회·대국민 차원의 종교인권 감수성의 확대에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국가정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공직자의 역할 및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직자에게 일반 국민보다 고양된 종교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종교편향, 종교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역시 상호 종교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는 교리적으로 다름과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표현되는 종교감수성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신흥종교의 경우 초월신에 대한 신앙의 과정에서 절대적인 믿음이 배타적인 성향으로 이어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이 특정종교일 때 종교편향이나 훼불사건이 상당이 증가해 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공역역에서 활동하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종교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교육시스템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헌법정신 수호가 진정한 종교화해 이끌 것”

종교편향 반세기

4. 각계 제언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종교편향 · 불교왜곡 대응 종헌특위 위원장 선광 스님

오랜세월 반복된 차별 · 비하 사회화합 해치는 수준 달해 자비 · 포용 더이상 해답아냐 승려대회는 근절 위한 결집 “불자들 참여 · 협력” 당부도

“국민이라는 명칭 뒤에 숨어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종교차별 · 종교편향을 조장하고 불교를 폄훼 · 비하해 온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종교자유와 종교로 인한 차별금지의 정신이 명확하게 지켜질 때 우리사회에 진정한 종교화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이자 조계종 범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선광 스님은 “부처님 자비사상을 따르는 불제자라고 해서 포용하고 용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스님은 우리나라 종교차별은 짧게는 이승만 정권이 출범한 75년전부터, 길게는 억불의 시기였던 조선시대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 기나긴 역사 속에서 불교계는 포용과 자비, 인내와 희생으로 이를 감내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선광 스님은 “오랜세월 편향되고 편파적인 정책과 불교 · 스님들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문화 속에서 불교계는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도 몇 마디 말로써 지적하고 사과를 하면 관대하게 넘어갔다”며 “그랬기에 오히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종교편향과 종교차별, 불교왜곡과 폄훼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으로 봤다. 스님은 “그동안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 대부분은 불교에 대한 정서가 좋지 않거나 다른 종교인을 중심으로 모인 경우였다”며 “사실을 왜곡한 채 사찰이 ‘통행세’를 받는다고 매도한 정 의원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우리 스님들은 단순한 폄하가 아니라 굉장히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발언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스님은 “정치인이 국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반영한 목소리를 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는 불교계가 정청래 의원의 문화재관람료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자, 재차 국정감사에 나와 “댓글을 보니 국민들은 내 말이 맞다고 한다”며 국민정서를 운운해 불교계를 재차 분노케 한 것을 꼬집은 셈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 역시 “국민들을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됐던 편향정책 중 하나였다.

선광 스님은 “우리 불교계는 이런 식으로 국민의 뒤에 숨어 편향적 정책을 하고 불교를 비하했던 사안들을 무수히 많이 접해 왔다”며 “올해 추진 중인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는 불교계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잔존해 온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의식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공교롭게도 올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불교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불교계가 지금 나선 것은 이미 오랜세월 응축됐던 불편함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신념이나 방향성과 관계없이 더 이상 이런 문화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모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불자들에게도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스님은 “헌법정신이 지켜지고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 다른종교인을 향한 배려가 있을 때 진정한 종교화합과 종교화해가 가능하다”며 “불교의 정법이 미래까지 면면히 이어질 수 있도록 불자들도 원력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결집, 종교감수성 제고 법석돼야”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는 오랜세월 쌓여온 종교편향 · 차별 행보에 대한 불교계의 자연스러운 저항운동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불교계 결집이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번 불교계 결집과 관련해 “종교감수성 제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지점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고 이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캠페인’ 등 구체적인 사례로 표출됐다면,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가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유승무 교수는 불교계가 반드시 요구해야 할 방안으로 종교감수성 교육 및 제도화 방안을 짚었다. 유 교수는 “종교감수성은 종교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감수성”이라며 “이는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 배제되는 영역이 발생하고 또한 속하게 되는 영역이 있기에, 선택과 배제가 공존함을 아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종교감수성은 불교적 가르침 속에 이미 포함돼 있다. 때문에 불자들의 경우 연기적인 사고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관용과 포용의 자세로 다른 종교를 대해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다른 종교, 특히 근대화시기 한국 사회에 유입돼 급속히 성장한 신흥종교다. 신흥종교들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인 초월적인 절대신,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불교적 가르침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배타적인 교리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유 교수는 “종교의 근간에 종교감수성이 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는 점에서, 종교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를 훈련하고 교육하면서 종교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과 국가공무원 등 공적영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 지성인의 자질이다. 유 교수는 “이번 캐럴캠페인 논란이 불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다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종교화합과 종교평화를 공적 업무로 위임받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처였다는 점 때문”이라며 “불교는 그동안 이런 문제에 많이 둔감했고 무관심한 경향이 있었고 당한 후에 사후약방문처럼 뒤늦게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한 불교계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모이는 시점이 왔으니 더 이상은 그렇게 대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가 단일 사안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우리사회,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종교감수성을 제고하고 제도화는 물론, 교육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 교수는 “가능하다면 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적직무와 업무에서의 차별적 언행이 어떤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종교편향 · 차별 행위가 근절될 시 사회통합과 갈등해소라는 실체적 이익이 실현될 것임을 알려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불교지도부가 어떤 요구와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이웃종교 대한 이해부터 선행돼야”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종교 평화와 화합은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종교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웃종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은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종교편향 역사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병두 원장은 우리나라 종교 편향 정책과 차별의 역사는 1945년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한국과 같은 다종교 사회에서 정부나 대통령은 겉은 모든 종교와 우호 관계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그동안 발생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통령 개인의 종교에 따라 편향이나 훼불이 직간접적인 형태로 지속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별을 당한 종교계는 정부에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압력을 넣기도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공공영역에서 지도자그룹의 종교에 따라 일어나는 종교편향 · 차별 현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띤다는 것이다. 장로대통령으로



대변되는 김영삼 · 노태우 · 이명박 정부 당시 전국 사찰에서 훼불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전국 지자체마다 지자체장의 성시화 발언이 논란을 빚었고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자체장을 초청한 가운데 특정종교 기도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이병두 원장은 “종교편향 · 종교차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압력을 넣어 불편한 정서를 표출하기 이전에 이웃종교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리와 신앙의 형태, 종교단체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병두 원장은 “그동안 불교계가 종교 편향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것을 포용하고 이해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는 무관심이나 방관일수도 있고 또 몰랐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병두 원장은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불교계의 경우 이 같은 게 전무한 상황”이라고 재차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진정한 종교화합도 서로 알고 이해해야 가능한 것처럼, 우리사회의 종교편향 · 종교차별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이어지는 종교갈등 역시 그 종교의 특징을 알아야 해결이 가능하다”며 “이웃종교에 대한 교리와 역사 공부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가톨릭의 경우 신부가 불교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대에서 불교학 강의를 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원장은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종교화합도 먼 나라 이야기”라며 “지속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종교편향 · 차별행위들에 대해 우리 불교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종교로 인한 싸움은 끝이 없고 서로에게 상처만을 남긴다”며 “종교평화라는 말 자체가 거론되지 않는 사회가 오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삼각선원 조실 설악 무산 사부대중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불자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흥천사 전경


복합문화공간 흥천사 전법회관

주소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전화 02)929-6611~2 팩스 02)921-1626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코로나19의 종식과 건강한 세상을 발원하며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지 **진 상**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g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sa.templestay.com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서성 초격 부주지 오봉 도일

문화원장 성일 종책실장 덕암 총무국장 보관
기획국장 도일 교무국장 법등 재무국장 성의
사회국장 지공 호법국장 혜복 문화복지국장 법륜
포교국장 보타 연수국장 탄현 재무과장 자원
교구신도회장 벽송 김남명 봉선사신도회장 이도피안

사부대중 일동

봉선사 도량에 미륵부처님을 모십니다

미래세대에 오셔서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미륵부처님! 인자한 모습으로 수많은 중생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동참문의 031-527-1951

부설운영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연꽃유치원/남양주시 노인복지관·북부장애인복지관·일시청소년쉼터·경기 남양주 아동전문보호기관/구리시 장자어린이집·인창경로식당·실버인력뱅크·학대피해아동쉼터 희망둥지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 · 조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 사 불심 도문
이 사 봉안 효경
이 사 서해 흥교
이 사 선효 성학
이 사 장산 도업
이 사 월천 혜총
이 사 서주 태원
이 사 금아 혜국
이 사 장산 성춘
이 사 무심 보광
이 사 벽암 지홍
감 사 월암 덕상
감 사 대해 일광
용성문도회 회장 경선
대각회분원 회장 지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무심 보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765-2701 / 팩스 02)741-1385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화계사**

王寅年 밝아오는 새해에도 각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화계사 사부대중은 서원합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관음보살님, 엄마 꼭 만나게 해주세요”

위승환 작가의
개구쟁이 동자 솔명이



새해 첫날이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소리에 솔명이는 눈을 비볐다. 멍한 얼굴로 입에 선하품을 물었다. 눈을 반쯤 감은 채 개량한복을 주섬주섬 입었다. 털모자를 들고 일어서다가 방문 옆에 걸린 새 달력을 바라보았다. 달력 첫 장에는 검은 호랑이가 그려져 있었다. 올해가 검은 호랑이해였다. 별들이 반짝일 때마다 추운 공기를 마구 뿌려댔다. 솔명이가 절에서 제일 싫은 것은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었다. 얼굴에 찬물을 바르듯 고양이 세수를 했다. 얼굴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머리카락이 없는 민머리가 추웠다. 서둘러 털모자를 눌러쓰며 으스스 몸을 떨었다.

솔명이는 예불을 올리려고 스님 곁에 앉았다. 좌복에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졸음이 밀려왔다. 스님이 치는 목탁소리와 기도소리가 멀어졌다.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스님이 누비두루마기를 벗어 솔명이를 덮어 주었다.

“솔명아, 솔명아. 일어나. 공양하러 가야지.”

스님이 깨우는 소리에 솔명이는 부스스 눈을 뜨고 자리에 앉았다.

“검은 호랑이를 타고 눈 쌓인 들판을 내달리는 참이었어요.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었는데.”

“녀석, 참.”

솔명이가 목덜미를 쓸며 아쉬운 듯 입맛을 쩝쩝 다셨다. 새해 달력에 그려진 검은 호랑이와 꿈속에서 등에 탔던 검은 호랑이는 왠지 똑같았다.

아침 공양을 마친 절은 고요 속에 파묻혔다. 정적을 깨고 스님이 경을 외는 소리가 법당 마당에 울려 퍼졌다. 목탁소리도 함께 어우러졌다. 혼자 남은 솔명이는 슬그머니 범종각으로 내려갔다. 종치는 당목 묶어둔 줄을 풀었다. 당목 매단 줄을 두 팔로 잡더니 까치발로 서서 당목 위에 엉덩이를 밀어 올렸다. 흔들흔들 당목 그네를 타기 시작했다.

“꾸우우웅.”

며칠 전에도 당목을 타다가 실수로 종을 쳐버렸다. 그때 솔명이는 종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종에 부딪친 당목의 반동 때문이었다. 정신이 아뜩했지만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다.

“당목은 그네가 아니거든.”

스님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솔명이는 계속 당목을 타고 싶었다. 당목을 타는 것도 재미났지만 당목을 타면 엄마를 생각하기 좋았다. 스님은 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체 하는 것 같았다.

솔명이는 당목 타기가 지루해 공양간으로 올라갔다. 누렁이가 양지바른 데서 네 발을 펴고 잠들어 있었다. 솔명이 발자국 소리가 누렁이를 깨웠다. 누렁이는 누운 채 고개를 들어 돌아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솔명이는 언제나 장난을 잘 받아주는 누렁이가 좋았다.

“누렁이 넌 엄마가 보고 싶지 않아?”

누렁이가 대답 대신 솔명이 손을 핥다가 살짝 살짝 깨물었다. 솔명이는 목에 걸고 있던 염주를 벗었다. 염주를 두 겹으로 말아 누렁이 목에 걸어주었다.

“너도 절에 사니까 부처님 제자잖아.”

누렁이가 알아들었는지 귀를 뒤로 제쳤다.

“너는 누렁이니까 법명이 누명이야. 솔명이 동생 누명이. 알겠어?”

누렁이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다.

“솔명아, 포행가자.”

스님이 솔명이를 찾았다. 솔명이는 스님을 따라 포행 가는 것이 재미났다. 솔명이는 장난을 좋아했다. 스님을 지나쳐 달려가는 것 같았는데, 금세 산모퉁이로 자취를 감추었다가 뒤에서 나타났다.

“어이쿠!”

스님 발이 풀에 걸려 기우뚱 했다. 솔명이가 그새 산모퉁이를 돌아서 자드락길 양편의 풀을 묶어놓았다. 어쩔 때는 뒤에서 갑자기 떼밀어 스님이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스님은 솔명이의 장난에 빙긋이 웃기만 했다.

해가 서산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따뜻한 빛을 넉넉하게 뿌려대던 해였다. 산 그림자가 법당 앞 계단을 바쁘게 오르고 있었다. 찬바람에 마른 나뭇잎 하나가 정갈하게 비질이 된 법당 마당을 맴돌았다.

솔명이는 아까부터 볕이 잘 드는 법당 옆 토방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다. 땅바닥에 조약돌로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발로 지우기를 반복했다. 솔명이의 생각은 민들레홀씨가 되어 엄마에게 날아가고 있었다. 저녁공양을 알리는 목탁소리가 울릴 무렵엔 엄마가 더욱 그리웠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솔명이는 엄마 생각으로 밤에 잠들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몸을 뒤척이며 푸른빛이 배인 방문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나뭇가지가 방문에 그림자로 어른거렸다. 솔명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베갯잇을 축축하게 적시기 일쑤였다.

‘엄마.’

솔명이는 어젯밤에도 엄마가 보고 싶어 방을 나와 툇마루에 앉았다. 언제 떠올랐는지 둥근달이 동쪽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바람에 마른 나뭇가지들이 몸을 흔들었다. 대나무들도 덩달아 서걱거렸다. 솔부엉이가 울었다. 어스름이 내리면서부터 울던 솔부엉이였다.

“솔부엉이도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솔명이는 오싹한 추위에 진저리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다. 솔부엉이 울음소리를 듣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방학이 끝나고 오랜만에 학교에 갔다. 코로나19 때문에 줌 수업과 2부제 수업, 가정학습이 반복되어 적응이 쉽지 않았다. 솔명이는 학교에 가지 않는 줌 수업이 좋았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놀려대는 것이 싫어서였다.

‘까까중, 모과중.’

솔명이는 별명도 여러 개였다. 별명을 부르며 놀려대는 것은 딱 질색이었다. 특히 뒷자리에 앉은 석기가 얄미웠다. 연필로 등을 콕콕 찌르면서 까까중이라고 불렀다. 마음 같아서는 아프게 한 대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스님 얼굴이 떠올랐다. 솔명이가 스님에게 석기 이야기를 했을 때였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 안 돼. 넌 어리석음을 끊고 지혜롭게 살겠다고 머리카락을 자른 부처님 제자야.”

첫 시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다. 석기가 또 솔명이를 건드렸다.

“야, 모과중.”

솔명이가 대꾸를 안 하자 이번에는 대놓고 놀려댔다.

“중, 중, 까까중…….”

“석기 너어, 이리와!”

솔명이가 참다못해 일어서며 외쳤다.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박을 기세였다. 석기가 깜짝 놀라 달아나자 솔명이가 뒤를 바짝 쫓아갔다. 석기는 솔명이에게 약을 올리듯 놀리면서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아악!”

솔명이가 비명을 질렀다. 발목을 잡고 계단 아래에 나뒹굴었다. 솔명이는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갔다. 스님도 전화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다. 검사 끝에 발목을 가볍게 삔 상태여서 간단한 처치만 받고 바로 퇴원을 했다. 차에서 내린 스님이 솔명이를 업고 자드락길을 올랐다.

“솔명아, 많이 아프지?”

“아뇨, 참을 만해요.”

솔명이는 오랜만에 업혀보는 스님의 등이 넓어 편안했다.

“솔명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다른 사람을 쉽게 이기려 들면 오히려 네가 지게 되는 거야.”

솔명이는 스님 말씀이 어려워 아무런 대답을 못했다. 잠자코 스님 목을 껴안았다.

“스님, 무거워요?”

“괜찮다.”

솔명이가 옷소매로 스님 이마에 송알송알 맺힌 땀을 쓸었다. 그리고는 스님 등에 살며시 얼굴을 기댔다.

스님은 절에 돌아와 솔명이를 방에 내려놓기 바쁘게 군불을 지폈다. 솔명이는 방에 있기가 답답했다. 다리를 절며 밖으로 나왔다. 군불을 지피는 스님 곁에 앉았다. 아궁이 앞에 앉아있으면 얼굴에 와 닿는 따뜻한 불살이 좋았다. 그보다는 어쩌다 스님이 구워주는 고구마나 밤을 기다렸다. 군불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탔다. 솔명이는 너울거리는 불꽃이 엄마가 좋아하는 홍시빛깔이라고 생각했다. 불꽃 위로 엄마 얼굴이 보였다. 갑자기 연기가 솟으며 엄마 얼굴이 지워졌다. 스님이 아궁이에 솔가지를 더 넣은 바람에 엄마를 볼 수 없어 눈물이 났다.

“솔명아, 연기가 맵지?”

“스님, 보일러를 사면 편하잖아요. 힘들게 나무할 필요도 없고.”

“군불을 땔 때 나쁜 생각도 함께 태우는 공부를 하는 거야.”

“스님은 세탁기도 없이 맨손으로 빨래를 하잖아요.”

“옷을 빠는 것도 수행이지. 마음에 낀 때를 함께 씻는 거야.”

스님은 언제나 알쏭달쏭한 대답을 했다. 솔명이는 그런 스님이 좋았다. 스님이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늘부터 날마다 관음전에 나가 기도하도록 해. 관음보살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어머니이니까.”

“제 엄마도 되나요?”

“그럼, 솔명이 네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기도만하면 되지, 힘들게 절은 왜 해요?”

“절은 고개를 숙이는 일이니까 부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란다.”

솔명이는 스님 말씀을 떠올리며 좌복 위에 엎드렸다.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솔명이가 백팔 염주를 꼽아가며 절을 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다. 솔명이의 땀방울이 좌복 위에 떨어졌다.

“아, 새처럼 날 것 같아.”

절을 마치고 관음전을 나서는 솔명이는 상쾌했다.

“관음보살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엄마를 꼭 만나게 해주실 거야.”

개울물 소리가 가늘게 들렸다. 긴 겨울잠에 들었던 개울물이 깨어나면서 관음전 앞 물푸레나무에도 봄물이 연하게 오르고 있었다. 딱새 두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노래했다. 딱새가 이리저리 가지를 옮길 때마다 잔가지들이 꼼지락거렸다.

솔명이는 얼굴에 와 닿는 바람이 보드랍게 느껴졌다. 봄이 산등성이를 넘어 살금살금 오고 있었다. 〈끝〉



위승환 작가는 계간 〈인간과 문학〉 제8회 신인작품상을 수상했으며, 동화 〈곰돌이는 외롭지 않아〉 등 다수의 작품이 있다. 태백산맥문학관 명예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주 · 전남 아동문학인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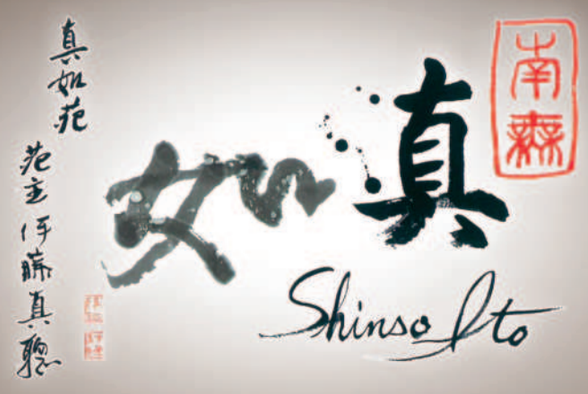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용상(湧祥)의 송(誦)’

“현(顯)에서 밀(密)로 들어가
올바르게 수행하여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올바르게 길을 관철하라”

- 영조 쇼쥬신인(攝受心院) -

(현(顯)이란 경(經)과 의례이며, 밀(密)은 그 말이나 형태를 초월한 진리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자리(自利)에서 이타(利他)로, 만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비추는 보살도를 관철해갑시다.)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나를 이끌어
번민의 구름을 없애주시네
믿는 마음에 보여주시는
깊은 자비에 감사하자
기도하라, 기도하라
깊은 자비에 南無眞如

- 원주(苑主) 희망의 노래 -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0개국 42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유가중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공월주 총 무 화평 사 회 우림
회 주 금산도영 기 획 광진 포 교 제환
주 지 월강일원 교 무 석초 호 법 덕림
부주지 시산원혜 재 무 여찬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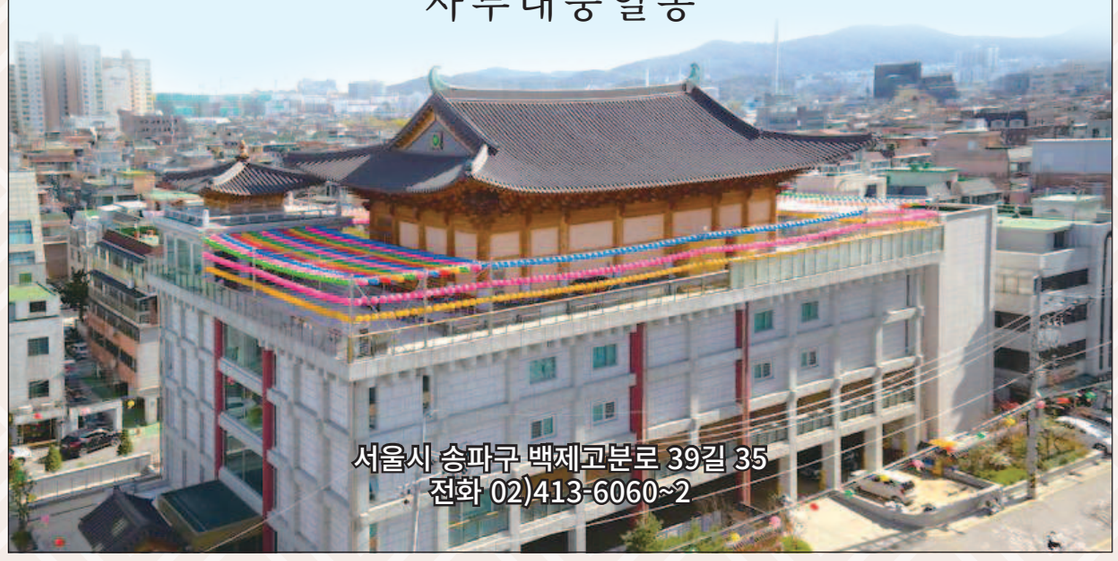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코로나 종식을 발원하며 임인년 새해 희망을 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불광법회

회주 지 정
주지 진 효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전화 02)413-6060~2



한국불교의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

안심정사 서울본부

회 주 석법안(철학박사)

육부대중일동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6길 18 전화 02)577-4557

謹賀新年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도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학도암

주지 묘 장

사부대중일동

㈜천호월서희망재단

코로나19 함께 잘 이겨냅시다

이사장 월서 큰스님 합장

https://cwhope.tistory.com/1 [천호월서희망재단]
서울 마포구 효창목길 27, ㉾04185 전화 02)713-4100 팩스 02)701-1705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시작되는 곳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PARK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195번길 180 051-404-920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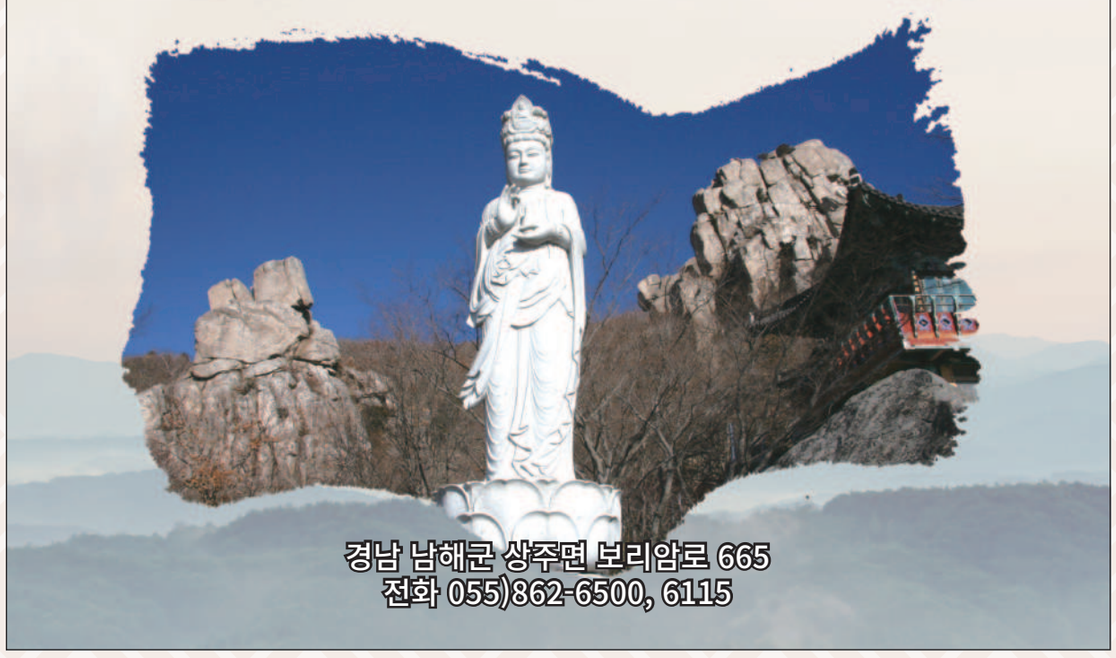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9599-209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리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전화 055)862-6500, 6115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재)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은
호스피스병동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정토마을자재요양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에 따라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39 (석남사 부근)
요양병동 입원상담 대표번호 052)255-8400
호스피스병동 24시간 상담 052)255-8457

대한불교조계종

남장사

대종사 정강성웅
주 지 종호

사부대중일동



•영산회 괘불도 보물 제2007호
지정 : 야외 불교행사인 영산재에 사용된 불화
•범패 최초 전래지
•상주시 종합 사회복지관 부설 보광 어린이집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1길 259-22 전화 054)534-6331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2022 謹賀新年 임인년



해수관음 기도도량
부산 해동 용궁사

사부대중 합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86(기장읍, 해동용궁사) 전화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지 **무 관**

신도단체 **지장회, 보현회, 불광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3

대한불교조계종

쇠미산 금용암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성지곡로111(거제동) 전화 : 051)501-6300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 재 생 신도회장
이 영 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

[전국 최초 최고 불자명품 교육기관]

무명에서 빛을 찾아 함께 갑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개교 40주년

승려연수 인증교육 (줌 화상교육)

과 정 명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

(사)한국불교현조계종

종 정 **무비 도현**

원로위원 **송산 만송 행일 해일 운산 득인 정암 성문**
총무원장 **석암 동준**
종회의장 **혜암 도일**
호법원장 **법우 동학**
교육원장 **혜산 녹원**
총무부장 **만산 송우**
교무부장 **법산 송하**
호법부장 **청암 진공**
재무부장 **연화**

※ 입종을 환영합니다. ● **구비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입종후 승려증,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발급

총무원 경남 함안군 칠원읍 석전3길 238 용정사 전화 055) 587-4945

여래장사상의 전거 일승사상의 모태

〈典據〉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① 왕비의 발원이 담긴 경전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코오살라국에 바사닉(Prasenajit)왕이 있었다. 이 왕은 석가모니부처님과 인연이 깊었던 왕이다. 부처님과 나이가 동갑이었다 하며 또 부처님이 성도하던 해에 이 왕은 왕위에 즉위했다는 설이 있다. 〈능엄경〉에는 부처님과 불생불멸하는 여래장묘진여성에 대하여 부처님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왕의 태자 기타와 신하 수달타가 기원정사를 지어 부처님께 바쳤다.

이 왕에게 스리말라(Srimala)라는 공주가 있었다. 공주의 이름 스리말라를 한역에서는 승만(勝鬘)으로 번역했다. 매우 영민한 여성으로 과년하여 아유사국의 우칭왕(友稱王)에게 시집을 가 왕비가 된다. 〈승만경〉에는 승만 부인이 불교에 귀의하게 된 연유를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아유사국의 왕에게 시집을 가 왕비가 된 딸 승만 부인에게 친정 부모인 바사닉왕과 말리 부인이 편지를 써 찬다라라는 궁녀에게 주면서 승만에게 전하고 오라는 명을 내린다. 이 편지에 바사닉왕과 말리 부인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딸 승만에게도 부처님께 귀의하기를 권했던 것이다. 편지를 받은 승만 부인은 환희심을 내어 곧 부처님을 찬탄하고 참된 신심을 발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이를 증명하고 인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따라서 이 경전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승만 부인이며 다른 보살이나 제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유통분 마지막 장인 승만장에 아란의 이름이 나오고 부처님이 제석천에게 경을 잘 받아 지니라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 일설에는 승만부인이 바사닉왕의 왕비였다는 설도 있다. 율장인 〈오분율(五分律)〉이나 용수의 〈지도론〉 등에는 바사닉 왕의 비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승만경〉의 경문 안에서는 공주로 등장한다.

이 경의 원 이름은 〈승만사자후일승대방편방광경(勝鬘獅子吼一乘大方便方廣經)〉으로 승만 부인이 일승의 대방편을 널리 펴기 위하여 사자후한 것을 담은 경이라는 뜻이다.

이 경은 〈유마경〉과 함께 재가 불자에 의해 설해진 경으로 대승의 이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경이다 B.C 3~4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처음 한역된 것은 북양의 담무참에 의해서 였으나 436년에 구나발타라가 번역한 것이 널리 유통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때 수나라에 갔다 돌아온 안홍(安弘) 법사에 의해 전래되어 연구된 경으로 원효 스님도 이 경을 매우 중시하여 자신의 저술에 이 경을 자주 인용하였다. 부모 권유로 발심해 부처님께 귀의하여 불법신행의 자기 원력을 말한 내용인 이 경이 높게 평가되는 것은 인도 부파불교시대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교리의 난맥상을 탈피해 실제적인 인간의 현실생활에 대승의 정신을 회향시킨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이 여래장사상의 전거(典據)가 되는 대표적인 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울러 일승사상의 모태가 되는 경이기도 하다. 〈고려대장경〉에 수록된 경본은 전문을 15장으로 나누고 있다. 제1 '여래진실공덕장' 에는 부모가 보낸 편지를 받아 읽은 승만이 부처님을 찬탄한다. 이때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 승만의 앞에 무비신(無比身)을 나타내어 승만의 귀의를 받으며 장차 부처가 되리라는 수기(授記)를 준다. 〈승만경〉의 중요한 내용은 두 번째 장인 '십대수장' 에 설해져 있는 승만 부인이 세운 열 가지 서원이다.

이 경은 대승을 극구 찬탄하는 대승찬탄경이다. 이 경의 근본 주제라 할 수 있는 일승사상과 여래장사상은 바로 대승의 올바른 진리를 뜻하는 말이다. 대승이 곧 불승이며, 야뇩지라는 큰 못에서 여덟 개의 강이 흘러나오고 대지에 의하여 일체의 씨앗이 자라나듯 대승에 의해서 세간 출세간의 모든 법이 나온다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법화경〉의 대의인 회삼승 귀일승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 이 경에서 승만 부인이 세운 서원 가운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법을 수호하겠다는 장렬한 의지를 드러낸 서원이다. 올바른 진리 곧 정법을 수호하고 나쁜 법에 빠진 사람들을 조복 받도록 하겠다는 마지막 다짐이 감동을 주는 대목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생구제 대승보살도 실천하는 수행자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㉔ 관음신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어떠한 신통력과 위신력을 갖추고 있을까요? '관세음' 이란 명호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세음보살의 신통력과 위신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관세음(觀世音)' 이란 명호는 본래 인도 산스크리트어인 'Avalokiteśvara' 를 한역(漢譯)한 것입니다. 이 'Avalokiteśvara' 의 의미는 '세속을 관찰하는 자재신(自在神)' 또는 '널리 관하는 자재신' 또는 '세간의 음성을 듣는 자'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Avalokiteśvara' 를 중국 서진(西晉) 시대 이전에는 '광세음보살' 이라 한역하였고, 구마라즙은 '관세음보살' 이라 번역하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 이라 번역하였습니다. 또 'Avalokiteśvara' 를 관세자재(觀世自在), 관세음자재(觀世音自在), 관음(觀音)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불자 여러분! 관세음보살의 명호 속에는 힌두교 자재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관세음' 이란 명호에는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만(Brahman)' 의 인격적인 신인 자재신(自在神)의 권능(權能)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음의 인도 범어인 'Avalokiteśvara' 는 '아바로키타(Avalokite)' 와 '이슈와라(Īśvara)' 가 합성된 말인데 이 중 '이슈와라(Īśvara)' 는 '자재신' 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재신(Īśvara)' 은 인도 힌두교의 창조신인 '브라흐만(Brahman)' 의 지위와 상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라흐만 사상에 있어서 우주의 원리였던 브라흐만(梵,Brahman)을 우파니샤드 시대에 와서는 인격적인 신의 모습으로 표상되면서 자재천(Īśvara)의 신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자재천(Īśvara)은 시바(Śiva)신, 비슈뉴(Viṣṇu)신과 함께 힌두교의 삼신(三神)으로 신앙되고 있는 힌두교 최고의 신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음' 의 명호 속에는 인도 범어인 'Avalokiteśvara' 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힌두교 최고의 신인 '자재천(Īśvara)신' , '시바신(Śiva)' 과 '비슈뉴신(Viṣṇu)' 의 신통력과 위신력 등을 감안하여 '관세음' 이라고 한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비슈뉴신이 갖고 있는 변화응신의 화신사상(化身思想)은 관세음보살의 응현적(應現的) 요소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같이 힌두교의 자재신의 특징과 너무나 닮아 있는 관세음보살은 '자재천(Īśvara)신' , '시바신(Śiva)' 과 '비슈뉴신(Viṣṇu)' 의 신통력과 위신력을 함께 갖추고 제법의 진리와 중생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자재하신 능력을 갖추신 자재신(自在神)으로서의 대보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님은 세간의 음성을 듣고 세간의 중생을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을 갖춘 구세자인 것입니다. 대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의지하는 관음신앙이 대승불교 초기부터 대승불교 중기와 대승불교 후기를 이어 밀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불자들에게 절대적 구원자로 널리 신앙되어 왔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보살이란 개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초기불교에서는 '보살' 이라고 하면 석가모니불의 〈전생담〉에서와 같이 석가모니불의 전생보살로서 부처님에게서 장차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은 석가보살이나 미래의 미륵불이 될 미륵보살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를 위해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하며 성불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수행자들을 보살이라 불렀기 때문에 대승불교 시대에 많은 보살들이 출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흐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① '성품'은 번뇌가 없다

"하나를 하나로 보아야"

'바쁜가?' 세상에는 보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밖은, 조건 지어지고 변하는 것뿐이라서 아무것도 보고 들어 머물 것이 없다. 실상을 현혹하는 허깨비들만 바삐 오고 바삐 갈 뿐이다. 그러므로 바쁘지 않다. '바쁘지 않은가?'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잘 알아서 바르게 사유함으로써 이 생에 적용하고 회향하며 살아가기에 삶은 순간이고 찰나일 뿐이다. 그러므로 바쁘고 바쁘다.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생겨난 번뇌는 더욱 증가한다. 그러나 이치에 맞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긴 번뇌는 끊어진다.

이치에 맞는 정신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하나를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보다 좋은 이치에 맞는 정신 활동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 다. '하나' 는 항상 하나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하나' 를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여럿으로 분열시켜 본다.

왜일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아주 많은 생 동안의 경험과 개체들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 몸이라는 하나의 캐릭터를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에 아주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데, 잠재된 채 자꾸 방해를 한다. 실상은 '하나' 이외에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 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하나' 일 뿐이다. 그저 '하나' 였는데 내면의 캐릭터는 인연에 따라 다른 캐릭터를 가지며, 그 인연에서의 봄을 갖는다. 실상인 '하나' 로 보려 해도 캐릭터의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성품은 아무 에너지가 없는 '바라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치에 맞지 않게 정신을 쓰면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번뇌가 생겨나고, '하나' 로 보면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다. '하나' 인 것을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구분하며, 내면에서 분별심을 낼수록 생겨나지 않은 번뇌들이 생겨난다. 한 생각,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면, 번뇌는 그것을 따라 맞물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온다.

이것은 하나를 하나로 보지 않아서 생긴 번뇌이므로 원래 있는 번뇌가 아니라 만들어진 번뇌다. 이 만들어진 번뇌 즉, 없는 번뇌를 우리 자신이 만들고 키워 고통 받으며, 이 고통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켜 만족하거나 자괴감을 느끼는 어리석은 쇼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쇼를 마치는 방법은 쉽다. '내가 하나를 하나로 보지 못함에서 생긴 병이구나' 이렇게 알면 모든 번뇌는 제거된다. 하나를 하나로 보게 되면 아직 생겨나지 않는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이미 생겨난 번뇌는 끊어진다. '하나' 이외에 다른 것은 볼 게 없다. 그 하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하나는 느낌도 지각도 의도도 의식도 아니다.

'나의 생각' 이 있는 한 '하나' 로 부처님 말씀을 읽어 낼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가 〈맛지마니까야〉를 함께 읽어가다 보면 저절로 '하나' 에 녹아 있게 될 것이다.

한 수행승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하고 묻자, 조주 선사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베적삼 한 벌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더라."

하나를 이야기 했는데, 일곱 근을 말씀하셨다. 똑같은 소리인데 소리는 다르게 들린다. 항상 함정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끄집어내어 둘로 만드니, 일곱 근으로 막아버렸다. 일곱 근 밑에는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렇게 많지만 끄집어낼 수가 없다. 뱀은 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독에 죽지 않는가? 자신의 독을 끄집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 지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전화 (054)429-1700~3, 429-1713~15 팩스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ALGONG CHONGLIM DONGHWASA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팔공총림동화사 방장 진제 법원

회 주 임담 의현
주 지 능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전화 : 053)980-7900 / 팩스 : 053)985-4405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30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29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오후5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 륜

회원사찰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054)853-4185

사단법인 대선불교조계종 (화합종단구현)

종 정	현묵 혜승	승정원장	적연 운암
원로위원	법희	종회의장	성민 지우
총무원장	각진 보각	선 원 장	각운 혜명
총무부장	성문	호법원장	진각 영각
문화원장	법송	비구니회장	법성
포교원장	정범 혜린	감사부장	보혜
총무국장	각성 법광	사회부장	도경
오행사총무	백인	종정사서	보명 영인
승정원장사서	혜인 법등		
대구종무원장	담화 보덕	미 타 사	보광
인천종무원장	법화	약 사 암	법연
홍보국장	도율	삼 광 사	초현
편집국장	남산	광 명 사	노사나
문화부장	죽산		
종회의원	혜명 도만 보현 자광 법정 보현 보광		
사무국장	준범		

※ 입종안내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하실 스님 창건주 교임 법사님을 모십니다.
언제나 연락주세요. 010-3190-5767(총무원장 010-3255-8737)

옛 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元曉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원효종

대한불교 원효종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총 무 원	종 정	성우 자윤	원로원장 혜륜 법진
요 산 정 사	종회의장	청산 태일	호법원장 영민 현응
요 산 청 암	종회의원 및 종도일동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법률고문	곽 태 철	현 법무법인 대서양 대표 변호사 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전화 052)238 8010
팩스 052)238 7010

※ 종도 등록 안내 : 분담금 및 등록비 없음. 등록 수 제한 있을 예정
※ 2022년 금강계단 수계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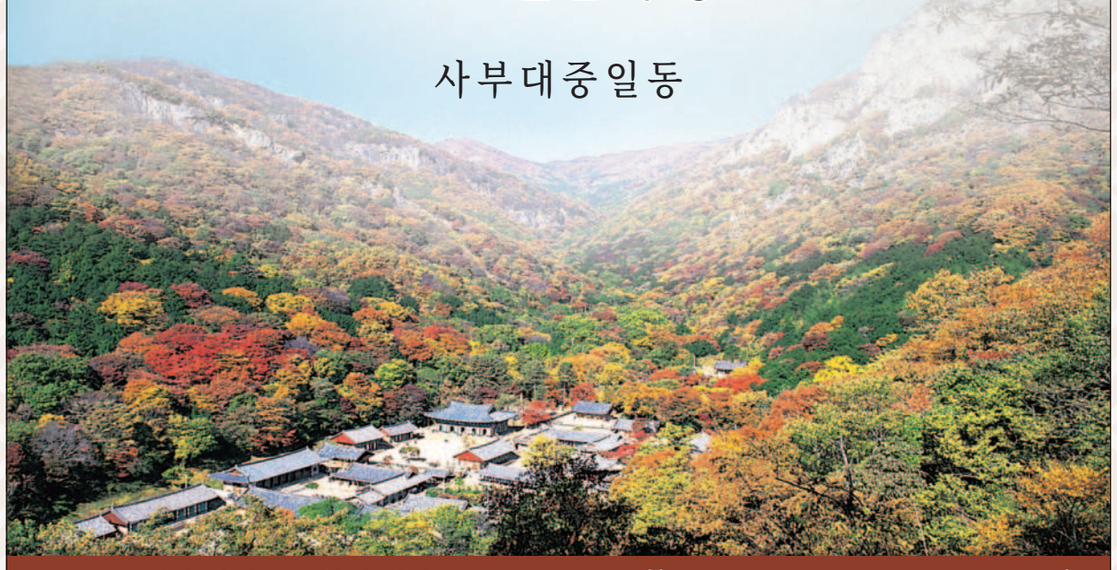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智異山 華嚴寺

조실 금성 명선 대종사
문장 은산 종국
회주 송천 종열
주지 초암 덕문

신도회 & 사부대중일동

화엄사 전통사경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일시 2022년 3월 17일 ~ 12월 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오후반)
저녁 6시 30분 ~ 8시 30분 (저녁반)
장소 화엄사 범음료
강사 多吉 김경호 선생 (화엄사 전통사경원 원장)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종 무 소 | 061)783-7600
기도접수처 | 061)782-0011
www.hwaeomsa.com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 성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참불선원

조 실 보광 성주
선원장 각 산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33 수안빌딩 3층 ☎ 1577-3696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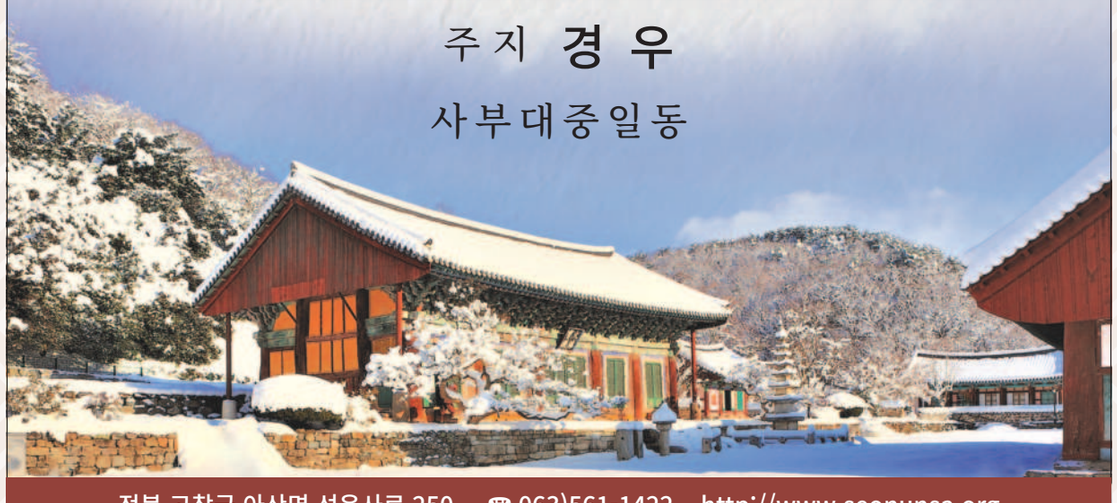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반야스터디 카페
  - 갤러리 리유 - 담마 북까페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지 경 우

사부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신비의 령산 # 마이산 탑사

주 지 청파 진성 스님

총 무	정원스님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장	이재현	수 암	재)갑룡장학회 상임이사	남상준	강 암
원 주	김연심화	교도소 교정 봉사단장	박성균	진실행	사)장엄 상임이사	김성규	혜 전
교 무	보문스님	소년원 어머니 회장	정해자	혜안행	사)착한벗들	주춘매	센터장
사 회	대련스님	소년원 어머니 위원장	김도은	청 운	사)전북베트남우호교류증진협의회 상임이사	박성웅	일 여
포 교	추파스님	탑 밴 드 봉 사 단 장	천순희	천수행	사)진안자원봉사센터장	최주연	
홍 보	정이 손채림 전법사	사랑나눔행복을 붓다 복지관장	김경은	금강행			
전국총신도회장	윤복길 감로수	해외구호 복지단장	심용운	다 인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남로 367
대표전화 063)433-0012 www.maisantapsa.kr

'108 돼지 저금통'으로 인재불사

견강암, 동지 인재불사 장학금 전달

동지때 108개 저금통으로 '나눔'
동지 및 기도 회향 맞춰 장학금
매월 2 · 4째주 무료 급식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견강암이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실천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지를 앞둔 구랍 20일에 방문한 부산 사상구 모라동 견강암(주지 향공)에서는 주지 향공 스님과 불자들이 돼지 저금통을 뜯어 동전을 정리하고 있었다. 동지불공 후 회향할 장학금이다.

견강암은 한해를 시작하는 정초가 되면 108개의 돼지 저금통을 불자들에게 나눠준다. 동지가 다가오면 불자들은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견강암을 방문한다. 15년 동안 이어온 인재불사 나눔이다. 견강암 장학금은 동지 뿐 아니라 산신재, 백중기도 등 기도를 회향할 때마다 전달된다. 동지는 그 중 하나다. 그 때마다 전달하는 장학금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다.

견강암은 구랍 22일(동지)에 견강암 동지 장학금을 5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견강암이 1년 동안 전달한 장학금은 1000만 원에 달한다. 108개의 저금통을 나눠줘도 돌아오는 저금통 수는 부족했고 기도비도 장학금으로 부족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 때마다 항공 스님이 나머지 금액을 충당했다.


부산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과 불자들이 돼지저금통을 정리하고 있다. 견강암은 매년 동지를 맞아 지역인재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견강암의 나눔 활동은 장학금 뿐만이 아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에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모라동 고동바위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한다. 무료급식과 함께 팥죽, 김장김치, 라면 등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에 소요된 금액은 2000만 원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중단되자 500여 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했고, 특별히 33가구를 별도로 추가로 선정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지급했다. 추가로 선정된 33가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과 조손가정이다. 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지 향공 스님은 "다시 태어난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향공 스님은 20대 때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전국일주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3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어야 했고 5차례의 대수술 후에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다리가 불편하다. 스님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스님은 몸이 마비되어 대소변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 때 당시를 떠 올리며 "도움을 받은 시간을 돌이켜 보고, 지금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때 받았던 도움을 회향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스님의 결심은 30년 전 부산 사상구 만덕동에 위치한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국수만발공양으로 실현됐다. 당시 법당은 11평이었다. 공양간과 스님의 처소까지 포함한 그 작은 공간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국수를 끓였다. 국수만발공양은 15년 전 불사해 이전한 지금의 견강암에서 이어졌다. 견강암을 불사하며 스님은 봉사를 이어갔고 봉사회원들이 모여들었다. 향공 스님은 지금까지 봉사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정각원'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각원은 견강암에서 봉사와 신행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이다. 난민촌에서 국수만발공양을 시작했던 당시부터 함께했던 봉사자들이 모여 견강암 신행단체 보현회를 만들었다. 보현회가 주축이 되어 10년 전에 정각원이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매년 꾸준히 봉사회원이 늘어나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지 향공 스님은 "나눔을 통해 성장하고 남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곧 보살도이다. 다음 한해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수잔치 개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구랍 23일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장수잔치 '사랑해孝 감사해孝'를 개최했다.

장수잔치는 용호복지관이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칠순과 팔순, 구순, 상수를 맞은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복지관은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 잔치상과 건강식품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또 칠순과 팔순, 구순에 해당하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다. 서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어르신들의 팔순, 구순, 상수를 복지관에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 대성암 제1기 불교대학 졸업식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 불교대학장)은 구랍 16일 제1기 대성암 불교대학 졸업식 및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 및 수계식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대성암불교대학 강주 대각 스님, 통영사암연합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고성 문수암 이암 스님, 고성 장의사 현제 스님, 통영법륜사 진명 스님, 고성 운흥사 선현 스님, 고성 청련암 원명 스님과 졸업생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은 "통영지역 조계종 불교대학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17주 입문교육을 거친 18명이 졸업하게 됐다. 졸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성암 불교대학은 2022년부터 기존 17주 과정을 19주 과정으로 확대 편성해 교육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용궁사, 소외이웃 위한 나눔

백미 2650kg · 성금 1000만원 후원



해동 용궁사가 구랍 2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구랍 2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용궁사는 전달식에서 백미 2650kg과 후원 성금 1000만 원을 부산 기장군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성탄절을 맞아 종교 화합을 기원하고 연말연시에 힘든 소외 이웃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주지 연규 스님과 김종천 기장군 창조경제국장, 용궁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다이빙 국가대표 우하람, 김지욱 선수가 동참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주지로 취임 후 지역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것을 강조했었다"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십시일반 후원이 큰 공덕의 산이 되었고 불자들의 공덕이 더 크게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무쪼록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성금과 쌀이 전달돼 희망과 용기가 함께 선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동용궁사는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등록 후 지역과 소통으로 화합하고 나눔으로 동체대비를 실천하고 있다. 주지 연규 스님은 취임 후 100여 일 동안 인근 동암마을 쌀 전달과 그룹홈 아동 후원 등 지속적인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나눔을 위해 해동용궁사는 찾아오는 관광객과 불자들을 권선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마련했고 백미는 지역 농민이 수확한 기장쌀을 매수해 농민 돕기에도 앞장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명정장학재단, 동지 장학금 전달

부산 원오사 재단법인 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대표이사 정관, 이하 명정장학재단)이 구랍 19일 경내 대웅전에서 동지를 맞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명정장학재단은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동지를 맞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장학 후원금을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보시해 풍성한 나눔으로 회향됐다. 동지 장학금은 일반대학부 19명에게 각 100만 원, 불교동아리 우수자(부산과학기술대학교) 7명에게 각 50만 원, 고등부 18명에게 각 50만 원, 중등부 10명에게 각 30만 원, 초등부 12명에게 각 10만 원, 만학도 2명에게 각 20만 원 등 3610만 원을 수여했다. 아울러 명정지역아동센터와 북한어린이 돕기, 승려 장학금 및 복지지원금 등 1766만 원을 전달해 총 5376만 원을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구불교연합회, 장학금 전달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가 구랍 18일 부산제일 감전 새마을금고 4층에서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초 · 중 · 고 34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020만 원을 전달했으며, 물품은 김 70박스와 라면 100박스(22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장 성문스님, 총무 법경 스님 등 회원스님과 심인택 신도회장, 여운철 사상구청장 권한대행, 장제원 국회의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 및 사상구 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태종 광명사, 동지팥죽 나눔 개최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구랍 22일 경내에서 '전통민속문화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과 불자들은 동지 팥죽 나눔을 위해 전날인 12월 21일부터 새알 만들기, 팥알 삶기, 팥물 등을 만들었으며, 이틀 동안 9개의 대형 가마솥에서 팥죽을 끓여 총 5000인분의 팥죽을 만들었다. 광명사는 팥죽을 신도 외 인근 주민, 등산객, 금정구청, 장전지구대, 금정소방서 관내 기관에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작은 설, 동지를 맞아 무장무애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드린다"며 "팥죽은 모든 액운액난을 쫓는 전통민속음식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동지 축원을 한 오늘 이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의 우주,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가정, 이웃, 사회, 국가에 멋지게 회향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정법사 20년 불사 회향, 도량 장엄하다

원통보전 33관음응신 봉불점안식

구랍 27일, 20년 총불사 회향
원통보전 불사는 완성의 의미
도문 스님 "불교 전법에 앞장"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구랍 27일 원통보전에서 33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도문)는 구랍 27일 원통보전에서 33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안식에는 불국사 덕민 스님, 정법사 주지 도문 스님, 통도사 염불원장 영산 스님,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과 지역스님들을 비롯해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김선정 고문, 윤재선 목각장인, 김규리 불화장인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33관음응신 봉불 점안식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움을 창조한다' 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을 기치로 3차에 걸쳐 진행된 정법사 중창불사의 마지막 불사였다.

정법사는 2001년부터 도량불사를 시작해 20년간 진행해 왔다. 원통보전 불사는 2015년부터 이날까지 1차 산신, 수월관음도, 2차 천수보살, 3차 33관음응신 불사로 진행됐다. 3차만 3년 4개월간 진행됐다.

정법사는 초대 주지 경봉 스님 때부터 관세음보살이 주불로 모셔져 원통보전이 주불전이다. 정법사는 최상층에 관음전, 중층에 석가모니 만불전, 최하층에 지장전으로 도량을 구성했다.

증명법사로 나선 불국사 덕민 스님은 "불교는 모든 것이 내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부처님 세계에서 정성드려 33응신 관세음보살 점안식을 하고 있지만 이는 본래 우리들의 모습일 뿐"이라고 법문했다. 스님은 이어 "본인이 관세음보살이 되고, 외부에서 찾지 말라. 관세음보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고 설했다.

주지 도문 스님은 "오늘 33관음응신 봉불로 정법사가 현대는 물론 후대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불교문화 전파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불자 한사람 한사람의 신심이 응집된 불사가 원만 회향된 공덕으로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가정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통도사 총무국장 현덕 스님은 인사말로 "덕민 스님의 법문과 같이 함께 마음 밝혀서 모두가 성불하시길 발원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은 축사로 "추운 날씨에 동참한 도반들에게 감사드리며 점안식이 있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신심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안식에서는 안미옥 신도회장과 김선정 고문 등에게 공로패가 수여됐으며, 윤재선 목각장인, 김규리 불화장인, 곽경하 불화장인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호남지역 동지팥죽 나눔 눈길

전주 · 광주 등지에서 사찰 주도 행사 개최





전주지역 동지팥죽 나눔(사진 왼쪽)과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의 도시락 전달식.

소외계층을 향한 팥죽나눔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과 탑밴드 봉사단, 나누우리 봉사단은 구랍 22일 전주 기린대로에 위치한 '사랑 · 나눔 · 행복을 붓다 복지관'에서 500명분의 동지 팥죽을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 또 전주시 진북동, 교동 등에 위치한 소외계층 가정을 방문해 팥죽을 전달했다.

이번 동지 팥죽 나눔행사는 마이산탑사, 천지사, 보문사, 사)장엄, 사)재백, 사)착한벗들, 재)갑룡장학회, 태고종총무원,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전라북도영산작법보존회 후원으로 진행됐다.

광주지역에서도 팥죽 나눔이 활발히 전개됐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구랍 21일 광산구청을 방문해 연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동지팥죽 도시락 500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주지 연성 스님과 김영례 신도회장, 정석원 변호사, 오윤숙 광산구청 불자회장 등이 참여했다. 도시락은 광산구 코로나 의료진, 독거어르신 100세대,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100세대, 장애인 가정 200세대에 전달됐다.

광주 보은사(주지 도제)도 구랍 21일과 22일 외국인 이주민과 장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지죽 새알 빚기 체험, 장애학생 장학금 전달, 송년회 행사를 잇따라 진행했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도 구랍 22일 팥죽 680인분을 구례경찰서와 구례지역 22개 단체 및 경로당을 방문해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혜암당 성관 스님 추모다례재 봉행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대종사 열반 20주기 추모다례재가 구랍 20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현응 스님, 동당 세민 스님,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문도대표 성법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대중이 참석했다.

혜암당 성관 스님은 1946년 합천 해인사에 입산 출가하여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하여 수계득도하고, '성관' 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스님은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며 '공부하다 죽어라' 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정진을 당부했다.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 방장과 1994년 조계종 재10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법랍 56년 세수 82세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열반에 들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김해 불교문화 전승 공간 들어서다

김해 은하사, 구랍 27일 전통문화전수관 준공식 개최

1층 다목적, 2층 전수관 구조
가야불교 콘텐츠 개발에 박차
새해 지역중심에 발돋움 기대



김해 은하사 전통문화전수관에 모인 대중들이 전수관 준공을 기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김해지역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할 전승공간이 건립됐다. 김해 은하사(주지 혜수)는 구랍 22일 은하사에서 전통문화전수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은하사 회주 대성 스님을 비롯해 주지 혜수 스님, 한주 일석 스님, 前주지 혜진 스님, 조형호 신도회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진기 도의원, 황동렬 홍기건설 사장 외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주지 혜수 스님 인사말, 청법가, 입정, 회주 대성 스님 법문, 각계 축사, 테이프커팅, 사홍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준공식에 참석한 대중들에게는 새해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오색떡국이 공양올려졌다.

경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김해시는 인근 부산과 창원 사이의 교통 요지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김해시를 대표하는 전통사찰인 은하사는 그동안 가야불교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불사에 매진해 왔다. 2019년 4월 총 연건평 155평에 달하는 전통문화전수관 불사가 시작됐다. 1층은 공양간 및 식당, 2층은 한옥구조인 전통문화관으로 향후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지 혜수 스님은 "불사가 많은 어려움에도 원만 회향된 것은 모두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사람이 편안하라고 하는 것이 불사라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편안하게 찾고 힐링이 되는 공간으로 은하사를 가꿔 가겠다"고 서원했다.

회주 대성 스님은 "참 나를 찾기 위해 은하사 문화전수관를 찾아 용맹정진하고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며 "중생의 교화 장소로서 신어산 은하사가 우뚝 서길 기원한다"고 법문했다.

조형호 신도회장은 "2000년 전통을 지닌 김해에서 은하사가 문화전수관을 통해 불교전통을 더 널리 알리길 기원한다. 앞으로 불교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김해지역 불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정진하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발원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前 주지스님의 노고로 기초가 다져진 후 현 주지 혜수 스님 원력으로 드디어 전수관이 준공됐다. 최근 은하사 명부전 보살상 등이 보물로 지정되는 등 전통문화 창달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대를 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천태종 대구 대성사 동지예술제 개최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원)는 구랍 21일 경내 서원당 3층에서 동짓날을 맞아 예술제를 개최했다.

동지예술제는 대성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로 주지 도원 스님과 조현대 신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지 도원 스님은 "동지를 맞이해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새해 우리사회 고난과 어려움이 소멸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술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예술제에는 대성사 감로다도회(지도 강학순, 서천 문화원 원장) 회원들이 다례를 통해 차문화를 새롭게 알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대성사는 이웃돕기로 쌀 10kg 100포를 이태훈 달서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남원 미륵암 · 연화사 자비의 쌀 나눔

남원 미륵암(주지 혜신)과 연화사(주지 도륜)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의 쌀을 남원시에 기탁했다. 미륵암 주지 혜신 스님과 연화사 주지 도륜 스님은 구랍 14일 남원시를 방문해 백미 10kg 50포와 10kg 60포를 전달했다.

이날 남원불교사암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혜신 스님은 사암연합회를 대표해 공동모금회에 200만 원 성금도 기탁했다.



혜신 스님은 "어려울수록 이웃에게 나눔을 행해야 한다. 이는 수행자의 기본 자세"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 法불교조계종

종 정 철허 만원(봉은정사)
원로원장 설봉 성인(대덕사)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종정 만원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인륜 보현(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TEL 02-762-2459 FAX 02-742-2344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韓國佛教太古宗

宗正指墟

禮敬室長 印峯

僧正院

僧正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院 德山, 錦龍, 性雨, 鏡潭, 覺林, 南坡, 保惠, 靑山, 明月, 智弘, 雪山, 法宣, 智性, 智山, 丘霞, 智玄, 東佑, 雪峯, 觀正

中央宗會 議長 法潭
首席副議長 法信
次席副議長 法輪

護法院長 慧日
副院長 法性
委院 智淸, 普雲, 虎山, 淸山, 晩愚, 惺應, 六和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明願
委院 德明, 碧岩, 法能, 古潭

中央選擧管理委員長 九山
副委員長 鳳峰
委院 法一, 智海

總務院長 虎溟

院長 慧蘆
院長 解惺
部長 眼能
部長 悟潭
部長 空華
部長 圓宗
部長 悟哲
委員長 弘智
長 法眼
長 京法
長 弘才
長 周慧
長 完休
長 眞常
長 悟哲
長 瑩錫
長 潤承

行政副院長 善一
教育副部長 能道
財務部長 正曉
社會福祉部長 圓現
文化部長 晴眞
弘報部長 心道
宗正企劃委員長 哲任·傳法

東邦佛教大學學長
教學處長

全國信徒會長
青年會長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이문덕
총무부장 이월장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김갈수
재무부장 정장호
사회부장 정도웅
규정부장 서덕재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무원
종의회부의장 이덕해
황세열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정사서실
사서실장 박덕수

금강대학교 총장 정용덕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임인년 새해아침



옛 부처와 함께 가니, 신선한 바람에
오래도록 즐겁고, 뜻과 같이 상서롭다!

묘법연화경을 의지하니 만사가 형통하고 안온해
편안한 경지에 이르니 기쁘고, 좋구나!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진기 76
2022년
壬寅年



총인 **경정**

통리원장 도진
종의회의장 효원
현정원장 회성
교육원장 효명
총금강회장 정명

진각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정진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전화 (02)913-0751~4 | 팩스 (02)913-0755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불기 2566년 임인년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분한 신고 및 승려·법사 입종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은 불법홍포, 민족평화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종을 창종하신 일붕서경보 큰스님의 크신 원력을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키고자 일붕 큰스님의 뜻을 따르는 승려 및 법사님들의 입종을 안내드립니다. 불교중흥의 원력을 갖고계신 승려 및 법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66(2022)년 1월 1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 성**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전화 02)991-8175,8904 팩스 02)991-8176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다문화 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화 응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1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사)전통불교 태고종 종도모집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문을 여시고
"기이 하도다. 저들도 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도다"
그리고 이 우주 그 자체가 법계 즉 부처의 나라임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우리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덕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한히 개량될 수 있고, 무량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말씀과 가르침에 뜻을 같이하실 종도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입종서류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양식) ③ 주민증(앞 뒤 사본)
④ 사찰 내 외부 사진 1부 ⑤ 증명사진 3매 ⑥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급은 특별예우!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원로원장 **효덕**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예술문화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 전**
수석부의장 **청 명**
부 의 장 **혜 일,**
종 회 의 원 **법 륜, 원 경**
송 월, 혜 담
도 홍, 법 윤
혜 신, 혜 경
원 만, 정 수
보 경, 법화심

종무원장 **진 성**
부 원 장 **연 수**
총무국장 **현 진**
교무국장 **법 성**
재무국장 **지 오**
문화국장 **법 진**
사회국장 **영 전**
주재기자 **문선희**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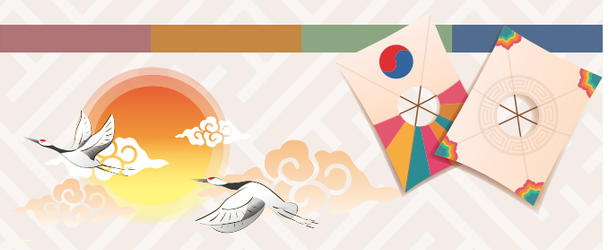
회 장 **혜 정**
수석부회장 **혜 안**(작법보유자)
지화명인 **도 홍**
총무 **정 수**
교무 **법 전**
재무 **지 오**
사무국장 **법 진**

영산 작법 보존 회원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지 **종성**

사부대중일동

옥천사템플스테이
체험형『졸졸졸 탁탁탁』
휴식형『물소리바람소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로 471-9
전화 055-672-0100 팩스 055)672-0481
템플스테이 055)672-6296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동림불교대학 선문화대학

주 지 **은암신공**

신도회장 **노도명화**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 계곡길168-14
전화 055)325-4008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전화 055)337-0101~5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망운사**

주지 **성각**합장

신도회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서대로 2240번길 708
전화 055)863-3095 팩스 055)863-3096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쌍계총림 말사

남해 제석산 **낙가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당넘로 82번길 14-16
전화 055)864-4298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장 **김종인, 손경례**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산사**

주지 **동조**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055)973-6799



대한불교조계종

참선 수행 도량

가지산 **석남사**

무주상 공덕행으로
복된 새해되시길…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석남로 557
전화 052)264-8900 팩스 052)264-8908
E-mail : seoknamsa@hanmail.net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불사

회주 만 상
주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원사

주지 태여 덕원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자 문 월파(문수사), 눌암(법륜사), 지용(남산사)
상임자문위원장 덕진(정토사)
회 장 산옹(백양사)
감 사 혜안(성불사)
상임부회장 혜원(해남사)
부 회 장 보화(월봉사), 문성(옥천암), 태암(관음사)
본명(등룡사), 종선(청룡암), 일영(석남사)
총무부장 효암(여여선원)
교무부장 양관(동축사)
재무부장 범허(화장사)
사회부장 덕송(도솔암)
포교부장 정진(태안사)
복지부장 명조(선암사)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 학장 진응(내원암)
부설 울산사암연합합창단 단장 기탁(화봉선원)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신정동) 성수빌딩6층
전화 052)266-3318~9 팩스 052)261-1285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울산 천마산 서장사

회주 진옥 주지 불 성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북구 관문길253
종무소 전화 052)293-0108 010)9741-1188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장 이병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 (농민빌딩 4층)
전화 052)271-1310 팩스 052)258-1370

대한불교조계종

성 전 암

주지 혜 찬

신도회일동

"차별없는 세상 모두가 부처님"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장안로 65번길291
Tel 055)754-7056 Fax 055)753-8662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및 신행단체 문화교실 ☎ 052) 258-9944
초하루, 일요,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다라니·금강경·행원참법 기도 등
어린이, 학생, 청년, 거사회, 108순례·일요순례회, 신도회, 동문회
합창단, 요가반, 민화반, 다도반, 난타반, 관현악단, 혼성합창단 등

◉ 장학 복지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행복한평생교육원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대장부를 만드는 지름길은
인내와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 우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 남 사

사부대중일동

행복한 미소가 가득한 절

임인년 새해
금강반야바라밀경
독송정진으로
지혜의 빛
밝힙시다.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길 13
전화 052)211-3340, 010-7450-3340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산 내원암

주지 진 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382
전화 052)238-5088



울주 삼십삼관음성지

치술령 법왕사

주지 혜 경

사부대중일동

불사금 마련(메주, 된장) 주문 받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말사

창녕 청련사

주 지 청산무영
총무스님 성휴
신도회장 이판암
총 무 하보경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진주불교회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학장 : 보선스님
부학장 : 광운 김종윤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지도법사 : 원명스님
센타장 : 원명 안정임

붓다기행단
지도법사 : 지현스님
단장 : 혜월 윤재철

만일회
지도법사 : 성각스닝
회장 : 일향 최형석

자비도량참법기도회
지도법사 : 보선스님
회장 : 대명 옥광주

법화경독송회
지도법사 : 지산스님

진불선원
선원장 : 만산 정재영

108인후원회
지도법사 : 원각스님
회장 : 상전 홍수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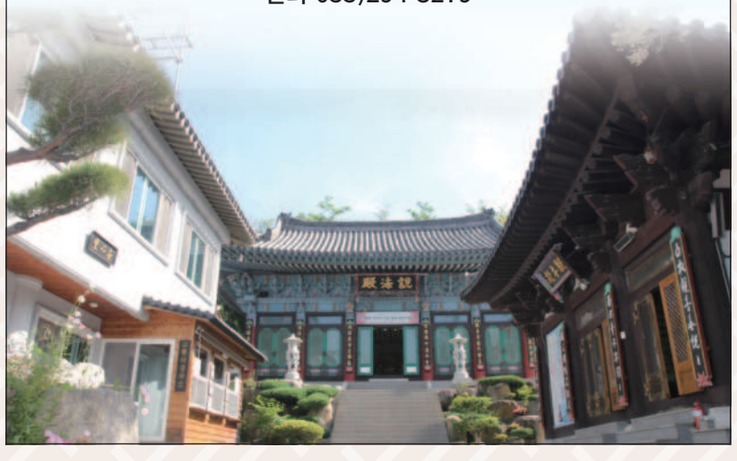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

주지 무 성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대한불교조계종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 예향다회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번지
전화 055)533-2073





대행 스님

우리 마음부터 헤아려야 부처 마음도 우주 만물만생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다

질문자1(남) 스님,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번 날 냉수를 제가 한 컵 마셨더니만 상당히 시원했습니다. 근데 그 기분에 온 세상이 다 시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 한생각이면 모든 것이 다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스님 본래 우리가 공생, 공심으로서 공용을 하고 돌아가고 있지요. 그건 대의적인 문제고요. 내가 한생각을 내서 옆의 사람도 못 보던 거를 알게 됐다, 또 내가 물 한 모금 마시면 내가 시원하니, 딴 사람도 다 시원할 거다 하는 것도 내가 시원하기 때문에 다 시원한데, 나는 시원한데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시원한 걸 모릅니다. 대의적으로는 다 시원하게 돌아가는데, 이 뜻을 아는 거는 다 돌아가고 있는데 한 개체가 "난 시원한 걸 모른다." 이런 겁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난 밝은 걸 모른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그럼 그 밝은 걸 모른다 하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나?

그걸 비유하건대 만약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항상 추격을 받고 있어. 그랬을 때, 그 양심이라 할 때 도둑은 어딜 가도 밝은 대로로 다니길 꺼려합니다, 잡힐까 봐. 항상 골목으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어두운 골목으로 이렇게 다니길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밝아도 밝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을 해서 컴컴한 데서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살아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고 가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자기도 모르고 저지르고 가는 것은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있는 줄 모르고 자기는 빼놓고 항상 바깥으로 돌아치니까 거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업보가 되는 거죠, 쌓이고 쌓여서. 그러니깐 그게 쌓이고 쌓이고 덮치기로 붙었으니까 내가 밝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을 볼 수가 없고 그게 덮겹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 보이긴 뭐가 보여? 바깥이 영 보이질 않지. 안에 그렇게 그냥, 내 면경 안에 그냥 쌓이고 쌓였으니까. 그러니깐 컴컴하단 말입니다. 뭐, 꼭 도둑질을 해서만이 컴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이 달리 미신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바깥으로 내가 잘되려고 하고, 믿음을 바깥으로 가진 사람들은 보통 미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모든 것은 잘잘못이 타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의에서 나오고 있단 얘깁니다. 자의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의에서 나오는 거를 알았으면 이 모든 걸, 오관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내다보면서 들이는 것도 바로 그 자의에다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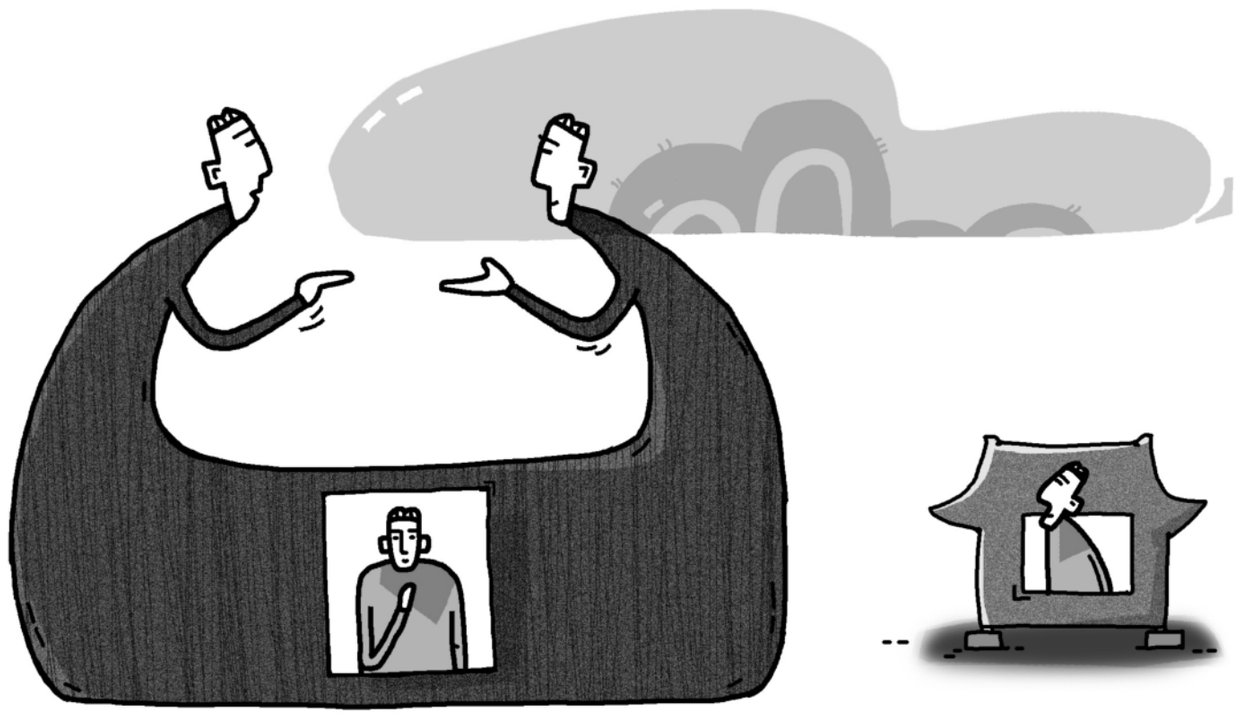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타의라는 거는 물론 체가 있고 보이고 또 들리고 이러지마는, 그리고 물질을 보고, 듣는 거를 듣고 판단을 하지마는, 자의라는 거는 내놓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가운데서 책정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자기 자의에 놓는다면 자의에서 나오고 또 나오는 것이 자의에서 나왔다면 자의에 들이고,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만이 조금도 안팎이 군더더기가 붙지 않고, 인과가 없고, 인과에 끄달리지 않고, 윤회에 끄달리지 않고, 즉 유전에 끄달리지 않고 얼마나 그냥 가벼운지…. 무겁게 짊어지고 다니지 않고 이러니 얼마나 가볍고 좋겠어요. 오늘의 자유인! 허허허…. 그래서 오늘의 자유인이 되니까 결국은 '내가 나로다가 고정되게 있지 않더라.' 그런 걸 알게 돼요.

내가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중인데 고정되게 중으로 있질 않더라. 여러분이 볼 때는 항상 봐도 중은 중이죠. 이 물질로 봐서는요. 그런데 어떤 때 가서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땐 간호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땐 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땐, 극치적으로 무슨 아주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변호사도 될 수 있어요. 변호사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을 추적해 보느라고 판사도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시골의 한 농부가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술집의 작부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 어찌 중이라는 게 깨끗한 것이 중이냐는 얘깁니다. 아니, 더러워서 더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올려놓는 것만이 어떻게 부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농부 짓을 했다가…. 그런데 남은 내가 농부 짓을 하는지 모르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의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야. 부동해, 여기는 그대로.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그렇게 바뀌져. 내가 수시로 바뀌져. 예를 들어서 나의 근본, 즉 말하자면 발전소는 여기에 그대로 있는데 전기가 나가도 나가도 줄지도 않아. 야, 저 집에도 전기가 나가고, 거지 사는 데도 전기가 나가고, 술 파는 데도 나가고 전기는 다 나갑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가발전소는 술집에 전기가 나간다고 해서 발전소 그 자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죠? 불 자체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또.

더러운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깨끗한 거를 막론하고 여러분의 마음만 응달을 지어 놓지 않는다면 다 비칠 수 있다 이거야. 여러분의 마음이 태양빛을 받으려면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옆도 없고 지붕도 없어야 되는데, 만날 옆도 막아 놓고 지붕도 해 놓고 문도 꼭꼭 걸어 잠가 놓고 하니까 빛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치 못한 저 똥구덩이 퇴비 해 놓은 데, 하치 못한 그 어렵게 사는 집들, 문짝도 변변치 않고 구멍이 숭숭 뚫리고 그런 데는 볕이 들어갈 수 있어. 하물며 똥구덩이에도 비춰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놓으니깐 못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가느냐 이거야. 볕이 들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 응용해서 활용을 하는 거지 누가 활용을 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하는데 뭘 알아서 해 줘요? 부처님이다 함은 자기 영원한 생명, 그 불성 자체라니까요. 그러나 씀씀이를 쓰는 것은 생각을 내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의 능력으로" 이런 말을 하죠. 쓰고 안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그 생명은, 일체 만물의 그 생명은 다 같다는 얘깁니다. 그래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불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날까지 억겁을 통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모습을 찰나찰나 바꿔 가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바꿔 가기 위해서 이런 진리를 공부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날까지 바꿔 왔습니다. 찰나찰나 모습을 바꾸면서 왔어도, 즉 모습이 바뀌지는 거는 자기 마음이 '야,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생활을 할 때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 요렇게 바뀝니다.

공장을 하는 데도 기계가 인제 다됐다, '이건 다됐고 앞으로 신품이 나오는데 이 구품을 가지고 하려면 물품이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신품을 들여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그 기계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또 내버리는 거냐? 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재생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바뀌지면서 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물질적인 것은 이렇게 찰나찰나 모습을 바꿔 가면서 나퉈 나오지만, 진화되지마는 우리의 마음 근본만은 절대로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가 없다 이겁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억 개로, 즉 말하자면 내가 화해서 만법을 응용한다 할지라도 함이 없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체가 없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마음을 '아, 저기는 지금 열 식구가 한 식구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깐 저건 내가 안락사를 해야겠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안락사를 해야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아이,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다 살 수 있을 텐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할 때에 그건 안락사라고 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건 사람이, 즉 말하자면 교육상으로 가르칠 때에 안락사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거지 그건 정말 안락사가 아니에요. 이름이야. 내가 '저 사람들이 다 죽겠구나. 저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생각을 무심코 그냥 할 때, 그건 이름도 성도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든

☞ A30면으로 계속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실 설악 무산

낙산사 대중일동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낙산사 신도회(관음회, 보현회, 바라밀회, 의상회, 합창단)
강원지역 대불련(강원대, 한림대, 지역단)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터 / 양양군노인복지관 /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 양양군가족센터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Tel 033)672-2447~8 www.nsksansa.or.kr

여러분의 마음만 응달을 지어놓지 않는다면 다 비칠 수 있습니다

☞ A29면에서 계속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만약에 그 한 사람을 안락사를 시키고 그 집을 다 살린다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추궁이 들어올까요?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응용을 했어도 선생님한테 "너, 사람 죽였으니 교도소에 가거라." 누가 이런 사람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거 한마디만 들어도, 수만 가지를 해도 함이 없으니, 누가 나를 끌어간다, 갖다 가둔다 이런 것이 없으니 자유인이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체가 없는 마음이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화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만법을 굴리고 응용해도 누구 하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거는 탓하지도 못해. 단지 안다면 서로 동등한 도반들끼리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도리를 배우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극히 나쁜 일은 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래. 또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 방편으로써, '저 사람을 내가 꼭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저걸 어떡하면 사람으로 만들지?' 하는데 한두 번 보고 좀처럼 해서는 안 되겠거든. 말로 일러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손을 대지 않고 매를 때린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구르다가 나중에 개골창에까지 빠지게 돼서 그때에 인제 다시 개심을 하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 그때 탁 받아서 다시금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법 없는 법, 판사 아닌 판사, 판사도 보통 판사가 아닙니다. 허허허….

천체 총지휘의 그 뭐, 법원장이라고 그럴까요? 법원장의 권리도 가졌지마는 부처님들 한자리에서 우주 전체의 회의를 하는 데도 같은 좌석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몸이 안 보이는 분들의 권한이 더 세냐, 몸이 있는 분의, 그 공부한 분의 권한이 더 세냐 하면, 권한은 거기에 천체가 같이하면서도 이 몸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즉 말하자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부처님 자리라고 합시다. 여기에서도 항시 자기와 같은 자리면서 몸이 있으니까 몸이 없는 데서 몸이 있는 데로 벌써 심부름을 하게 돼. 심부름을 하게 되는 거뿐이 아니라 마음이 같이 돌아서 나한테로 우선적으로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산 부처가 더 무서우냐, 죽은 부처가 더 무서우냐 그러면 산 부처가 더 무서워. 그건 왜? 눈으로 보고 듣고 오관을 통해서 서류 꾸미는 거는 누가 꾸미는 거냐 이거야, 응? 법원장보다 판사가 더 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사도 위력이 있지마는 검사나 서기나 여기에서 잘못해 넣으려면 얼마든지 잘못해 넣을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부 공부한 사람의 역할이, 산신의 역할도, 즉 말하자면 검사나 서기나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의 위치가 바로 판사의 위치와 동일하게 산신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다 이거야.

그래서 '독성', '산신' 이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독성이라 하는 거는 이 살아 있는 사람의 천체적인 하나의 물리를 말하는 거라. 그리고 또 산신이다 하는 거는 이 삼심이 공존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판단을 짓는, 즉 말하자면 판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일을 대통령이 하는 건 아니야. 대통령은 부동자세 하고, 한생각을 내는 데에 법신은 그 능력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역할이 이 세상에 돼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하게끔 돼 있다 이거야. 그 능력은 대의적으로 어느 곳이든 아니 닿는 데 없이 에너지와 같이 우주 전체에 돌아가고 있지마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그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만큼 손발이 안 닿는 데가 없다면, 지금 현재에도 오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이고 내고 보고 듣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거기다 발휘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몽둥이로 치는지 또 내 금몽둥이를,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가서 살리는지, 살리고 죽이는 걸 몰라.

그러나 부처님의 방망이는 요술방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부처님의 방망이는 항상 자비로운 방망이지 요술쟁이 방망이가 아니야. 그리고 도깨비방망이가 아니고. 너무나 자비하고 너무나 세세생생에 그 근원이 있는 방망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쓰고 착하고 무던하고 그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앞에는 세세생생에 그 금방망이를 아주 줘 버리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의 길잡이가 돼 주신다 이거예요.

그 길을 인도하시느라고 항상, 즉 말하자면 여러분이 캄캄한 데서 살기 때문에 금방망이를 이렇게 들면 그 금이 반사가 되어서 모든 여러분에게 밝게 보인다 이겁니다. 만약에 금을 대낮에 밝은 데서 들면 그것은 빛이 안 나. 캄캄한 데서 들어야 그게 빛이 환하게 나지. 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달이 뜨니깐 밝지만 낮에 달을 보시라고요. 허옇게 그냥 있지요. 그런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도 있고 밤에도 있는데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하고 있다면 밝아도 밝은 줄을 남이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밝아지면 벌써 어딘가 달라서 자기는 몰라도 남들은 "아, 저분은 어딘가 모르게 참 밝아 계셔. 아휴, 보통 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자연적으로 여기서부터 먼저 알기 때문이라. 그렇게 알아주는 것이 멋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이 "아, 저분은 뭐를 깨쳐서 이렇게 법상을 받고 이런 이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녹음 안됨)

그분한테 이름을 내리는 것도 그렇고 참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세세생생에 변치 않는 금이라고 말만 할 수 있으랴 이거야. 그렇게 참, 보배인 것이라. 수많은 중생들에게 보배며 자기의 보배며 둘이 아닌 보배라. 이 세상에 어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어느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예요.

석존께서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막바로 석존이 된 건 아니에요. 전자에 그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에 또 공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 주기만 하셨던 거예요, 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다 하고. 그리고 그 석존이라는, 그 석가라는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지시고 또 성이 석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성이 석가가 아니라 불성이 다, 생명이 다 있으니만큼 석가세존도 생명이 있고 우리도 생명이 있으니까 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부동하게 변치 않는다는 그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석존이라 하셨죠.

질문자2(남) 큰스님, 그러면 모든 중생의 생사를 자재할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소지하고 그 주인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공만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도. 중생의 무명과 여러 가지 업을 소멸시켜 줄 수도 있고 자유롭게 다스려 줄 수도 있지만, 중생이 다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참마음은 부처님도 깨뜨린다든가 죽인다든가 뭐, 살린다든가 이럴 수가 없을 텐데….

큰스님 글쎄, 내가 알기에는, 아는 것도 없지마는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십 번 지켜보고 수십 번 그렇게 말을 해 줘서 듣지 않는 자에게는 마음이 끊어지게 돼 있어. 즉 말하자면 마음이 가질 않아. 동하질 않아. 그럴 때는 그냥 동하지 않는 걸로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하지 않는 걸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게 그냥 돌다가…. 그렇게 마음이 가질 않으니까 전체가 마음이 그냥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게 위력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안 가니까 안 가는 대로 살다가 보면 어느 땐가 그것이 회개가 돼. 그럴 때 다시 그 마음이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연 없는 중생은 거둘 수가 없다. 언젠가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겠지." 이런 거죠. 나쁘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나쁘게 하면 한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

그런데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법정에서 구형장을 발휘해서 내가지마는, 붙잡아 가지만 부처님 법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하면 바로 법정이, 법원이 바로 거기 있다고. 거기 있어서 그냥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하는 대로 즉시 이렇게 차근차근히 됐다가 나중에 그게 터지면 거기서 그냥 바로 잡혀. 그래서 벌을 받는 거지.

질문자2(남) 결국 이 법정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거….

큰스님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지. 법정이든 경찰서든 병원이든 뭐, 부처님 자리든 산신 자리든 어느 자리를 막론하고 내부에 있다 이거야, 내면에.

질문자2(남) 스님, 똑같은 정도의 죄를 짓고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아주 가책에 못 이겨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는 좀 지었기로서니 그게 뭐 그토록 가책 받을 바 있느냐.' 하고 이 정도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왜 그렇게….

큰스님 그게 두 가지가 다 글러요. 두 가지가 다 나쁘다고요. 가책을 받지 않을 일이라면 그 뭐, 대수롭지 않은 일이거든. 그거는 그저 가서 사과를 하고 이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책 받을 일, 그건 아예 그렇게 하려면 하질 말아야 되겠지요. 또 '그까짓 걸 뭘 그래? 가책을 뭘 받아?' 이러고 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 앞에 돌아오게끔 돼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 가책을 받는다 한다면 양심이라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다음에 그런 짓을 다시는 안 할 거예요, 괴로워서. 그렇지만 '그까짓 걸 뭘 가책을 받아?' 이럴 때는 그 사람은 능히 그런 일을 더 저지르고도 남음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를 회개하기 이전에 잘못하질 않는다면 회개도 할 것이 없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때는 혹시나 잘못되는 일로 갈까 두려운 얘기가 있습니다. "야, 모든 거를 주인공에 맡겨 놔라." 이럴 때 '야, 그럼 나쁜 도둑질을 하고도 맡겨 놓으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짚고 넘어가는 말이 있죠.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상식과 도의, 의리, 도덕을 갖추어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서 부모에게 묵은 빚을 갚으며 자식들에게 햇빛을 주면서 이렇게 나가는 이 중도의 참,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간의 참마음이 우리 인간들을 조성해 내지 않았나. 그렇다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만약에 "그런 것 저런 것을, 도둑질을 해도 거기다 맡기면 되겠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니까 아예 대꾸할 건덕지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마음 자체,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 마음부터 헤아려야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우주 만물만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될 때에는 참, 우리가 부처님이라는 그 뼈다귀 없는 뼈다귀를 세세생생에 우려먹어도 그것은 없어지질 않아. 젖과 같은 그 물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간직하게 하고 끄달리지 않게 하는 보배라. 우려도 우려도 줄지도 않고, 갖다 부어도 부어도 늘지도 않고 항상…. 세상에 그런 보배가 어디 있겠어?

그래서 겉으로라도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놨다 하면 밥은 굶지 않으니 도대체 그 보배는 어떻게 생긴 보배기에 그렇게 좋단 말인가. 거죽 모습으로 생긴 것도 갖다 놓기만 하면 먹고살게 해 주는데 하물며 모습 아닌 그 보배는 얼마나 윤택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영원토록 말이에요. 아니, 가고 오고 그런 것도 없이 말이에요.

> 여러분이 태양빛을 받으려면 문을 활짝 열어놓고
> 옆도 없고 지붕도 없어야 되는데
> 만날 옆도 막아놓고 지붕도 해놓고 문도 꼭 걸어 잠가놓고 하니
> 빛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5년 12월 28일 일반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新年隨想

보살 정신 되새기자

동명 스님
중앙승가대
비구수행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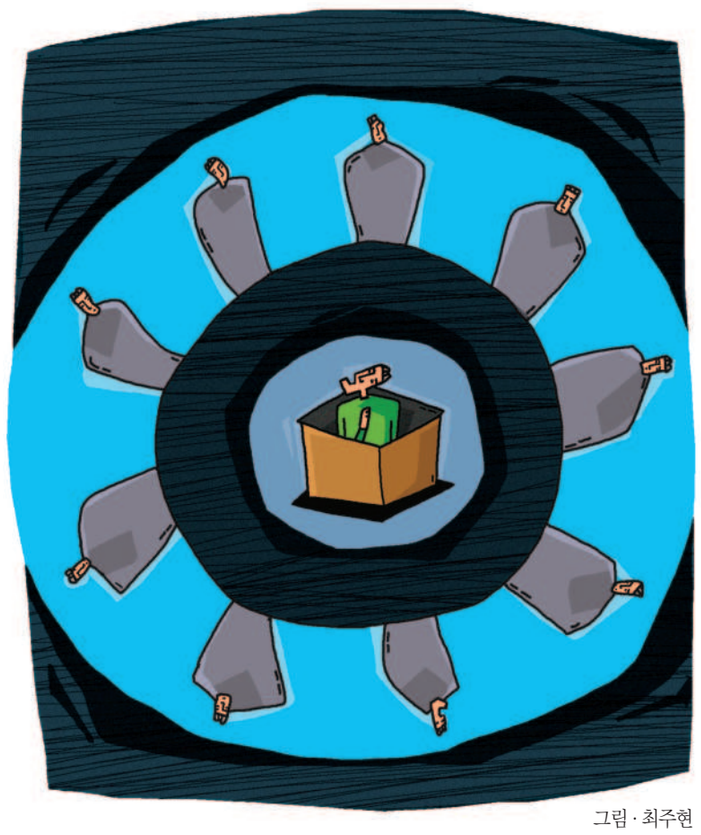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코로나 유행 장기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가르침 전해
현재 사회에 필요한 건 〈금강경〉의 '보살 정신'
댓가 바라지않고 보살행 실천하는 한해 보내자

지난 2년 동안 인류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살펴보더라도 전세계가 공히 어떤 한 질병에 동시다발적으로 위협을 받은 시대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2년에 걸친 위기,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구촌의 위기가 인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2월 봉암사에서 안거를 마치고 나올 때였다. 모든 통신을 끊고 지냈던 터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감이 오지 않았다. 공주 학림사에서 예정돼 있었던 담선법회(談禪法會)가 취소된 것을 보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후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법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템플스테이도 진행하지 못했으며, 제등행렬은 물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도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염병은 집단을 이루고 사는 인간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한 전염병이 이렇게 전(全)지구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힘들었다. 실제로 2020년 봄만 해도 더위가 시작되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전염병의 기세에 언제부턴가 전문가들도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자체를 하지 않는 형편이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물리학자 박권 교수의 책 제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사건이건 일어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코로나는 왜 '일어날 일'이 되었을까?

첫째, 지구촌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함에도 인간은 마치 인간과 다른 생명체, 인간을 둘러싼 환경이 마치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용하였다. 나나 내가 속한 집단이 이용하지 않으면 타인이나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이 먼저 이용해버릴까 전전긍긍하면서 경쟁적으로 인간이 아닌 생명체와 자연을 난도질했다. 그 난도질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

둘째,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그 생명체들은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생존해왔다. 그런데 지구의 주인은 오직 인간이라는 생각이 다른 생명체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간은 인간만이 지구의 주인인 것은 아님을 자각해가고 있다.

셋째, 혼자만 행복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오면서 인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축적할 수 있는 부와 권력도 그리 크지 않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부와 권력의 규모도 커졌다. 이익의 규모가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지다보니 자기 자신이나 자신과 입장을 같이하는 집단만 이익을 취하면 된다는 의식도 팽배해졌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는 그것이 바로 모두가 공멸하는 길이라고 경고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서로 접촉하면서 살게 되어 있고, 때로는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이들과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만, 자신이 속한 집단만 잘 살아보겠다는 기획은 여지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금강경〉의 보살정신이다. 〈금강경〉에서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질문한다. 부처님은 "보살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하되, 내가 인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신다. 이 말씀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짚어준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시하는 것이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남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제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파악하게 된다.

둘째,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섯 가지 바라밀행, 열 가지 바라밀행이 모두 유용하며,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行願)도 유용하다. 보현보살의 열 가지 행원을 우리 시대에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에게 예의를 지키고, 남을 칭찬해주며, 자신이 가진 것을 꼭 필요로 하는 이에게 보시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인정하고 참회하며, 남이 잘되는 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며, 누구나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모든 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이 지은 복덕을 널리 회향하는 것이다.

셋째, 보살행을 실천하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상(相/想)에 머무르지 않는 보살행'이다. 어떤 행위의 대가는 금방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오지 않는다. 특히 보살행의 규모가 큰 것일수록 그 효과 또한 느리게 다가온다. 대가를 바라다보면, 대가가 오지 않는 것에 분노하게 되면서 보살행의 즐거움은 없어지고 번뇌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하면, 보살행 실천의 이익만 얻게 되는 셈이다.

넷째,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인간만이 잘살기 위해 애쓰다보면 다른 생명체를 해치게 되고, 그러다보면 일시적으로는 인간에게 이익되는 것 같지만, 생태계의 불균형이 결국에는 코로나 같은 또 다른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궁극적인 행복의 길로 인도하되, 내가 인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살정신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되면서도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는 보살정신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위하는 정신이 아님을 깨달았다.

우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게 해주어야 하는 모든 생명체는 나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나의 행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다. '나'나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할 때 행복해질 수 있지만, 나의 것만을 주장할 때는 남들도 불행해지고 그 영향이 자신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불교는 자신의 진정한 이익을 가르치는 '진실한 이기주의 종교'라고 말한다. 새해에는 〈금강경〉의 보살정신으로 나와 남, 모든 생명체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보자.

社說

새로운 리더가 이끄는 변화

올해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20대 대통령과 전국 각 지자체 장들이 새롭게 선출된다. 불교계도 들썩인다.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 최고어른인 종정이 10년만에 바뀌고 9월에는 총무원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중앙종회 의원도 새롭게 선출된다.

리더가 교체된다는 의미는 곧 그 조직과 사회의 변화를 예고한다. 긍정적인 변화일지, 부정적인 변화일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로써 그에 대한 판단을 표에 담아권리를 행사하고 그 변화의 한 축이 된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는 우리나라를 이끌 리더의 자격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임인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종교편향 · 불교왜곡 근절을 위한 불교계 결집에 방점이 찍힌 만큼 보다 면밀한 잣대가 필요하다. 각자의 정치적 신념에 더해 전통문화에 대한 후보자의 이해도나 인식, 전통문화 관련 정책의 건전성, 그리고 종교감수성을 주의 깊게 볼 것으로 전망된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과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위의를 갖춘 선거로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진각종과 총지종, 태고종 등 각 종단의 변화도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원력을 보태자. 사회노동위원회 10주년, 불교스카우트연맹 20주년 등 우리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단체와 조직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응원도 아낌없이 보내자. 긍정적인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면, 어느새 불교의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자리매김해 있을 것이다.

임인년, 종교편향 근절의 해로

새해벽두부터 불자들의 마음이 심란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종교편향 · 불교왜곡 사안들이 해를 넘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과 여러 종교편향 · 차별 사안들을 처음에는 분노와 서운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공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8월 27일 이명박 정권의 도넘은 종교편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범불교도대회가 봉행되기까지의 역사가 1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불교계는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종교편향 · 차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 공공영역에서의 차별 발언과 차별적인 정책은 물론, 도넘은 훼불사건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언제까지 불교만 인내하고 감내하고 포용해야 하는가. 이제는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때다. 공직자차별신고센터가 가동되고 법이 개정됐지만, 큰 변화는 없다. 아니 변화는 있었지만 법망을 피해 더욱더 교묘해지고 세밀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하다.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언행과 정책들에 대해 사후약방문 형태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특히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종교감수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제한은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종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새해 예정된 승려대회와 범불교도대회가 전환점이 돼야 한다. 단순한 불교계의 결집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이를 의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변화의 법석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승 정 석원정 승 정 석혜암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법륜, 석우암, 석정호, 석법광, 석종우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의전원장 석법도 어 산 장 석도암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 원 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성덕 감찰부장 석성현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자광 사회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회
부 회 장 석효성 부 장 석지현 국 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도 만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명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일지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진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성각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제천중앙종무원장 석공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남산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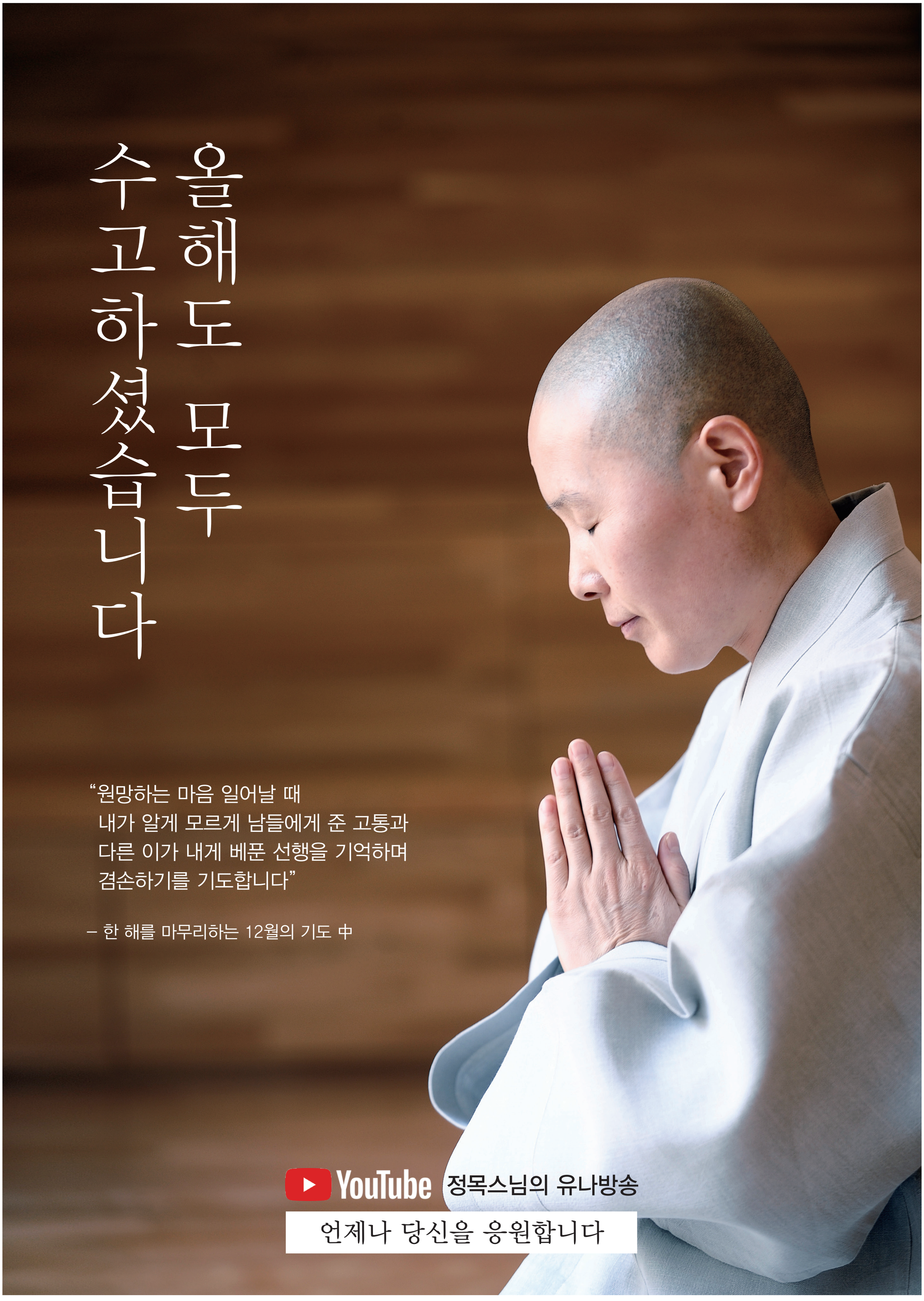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홍보부장 원명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부산부장 혜성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경기부장 자운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전남부장 혜명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포교국장 청운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통영국장 덕인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포교국장 혜림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봉화국장 혜정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Tel 054)682-5808 / Fax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Tel 02)303-5612


올해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일어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남들에게 준 고통과
다른 이가 내게 베푼 선행을 기억하며
겸손하기를 기도합니다"
–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기도 中
YouTube 정목스님의 유나방송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DIGITAL4.0 BUDDHISM

기술혁명 가져온 미래 불교, 준비해야 산다

 # 2042년 1월 어느 날 아침 6시, A씨는 스마트 홈에 설정한 알람인 사찰 범종 소리로 눈을 떴다. A씨의 기상에 맞춰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웨어러블 기기가 심박수, 혈당을 체크한다. 침대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 간단히 세면을 하는 A씨에게 인공지능이 오늘 스케줄과 함께 입고 나갈 옷 코디, 건강 상태를 조언해 준다.

화장실서 볼 일을 마친 A씨는 거실로 이동했다. 이내 스마트 글라스를 착용하고 메타버스에 접속하니 주위는 평소 자신이 다니는 사찰이 됐다. 그곳에서 A씨는 아침 참선 수행 클래스에 참여했다. 인공지능 스님의 가르침대로 법문을 듣고 참선 수행을 했다. 수행 후에는 평소 자신의 고민을 인공지능 스님에게 상담을 받았다. 고민을 상담받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는 20년 뒤의 한 불자의 일상과 신행생활에 대한 상상도다. 이 같은 일상은 더 이상 공상과학영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눈앞에 와 있는 미래이자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비롯된 인공지능, 가상 ·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 등은 최근 5~6년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는 평가다. 실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 속도를 2~3년 이상 앞당겼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들 산업 기술들의 특징은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으로 정의된다.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 디지털 데이터들로 디지털 온라인 시스템은 유지되며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은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을 디지털 세상에 구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데이터가 된 현실세계의 정보들은 디지털 세계로 구현되며 현실 세계와 융합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술이 '메타버스(Metaverse)'와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메타버스에서 구현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지는 유명 스포츠 스타와 가수 등을 제치고 지난해 '광고 퀸'에 등극했다. 가장 열광했던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였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가상의 세계관에 거부감이 없다.

이는 불교계의 취약점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포교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NFT'는 '복사해 붙여넣기'의 특성을 가진 디지털 데이터에 희귀성을 부여한 것이다. 소위 '디지털 원본'으로 디지털 세계의 '지적재산권', '저작권'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활용해, 스님의 염불, 독경, 법문들을 NFT화하면 무분별한 복제와 남용을 막고, 저작권 등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디지털 전환은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새로운 세계의 번뇌와 갈등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그곳에 불교가 있어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신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종교 · 철학 · 예술고전에 대한 새로운 재해석과 다시 읽기를 통해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 시대, 과연 우리 불교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보일 스님 〈AI 부디즘〉 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그래픽=송현석

INSIDE

B1·2·3·7·8·9 신년특집 DIGITAL4.0 BUDDIHSM

B13~15 신년특집 신년법어 · 신년사

B27 신년특집 불교와 호랑이

DIGITAL4.0 BUDDHISM

메타버스와 불교

메타버스 급부상… 이젠 가상세계 포교시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9살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인 연구원. 다양한 취미를 가졌고, 부캐(부캐릭터)는 패션모델. 박세리, 송가인 등 유명 스포츠 스타와 연예인을 제치고 광고계의 블루칩으로 급부상한 사람은 누굴까. 바로 롯데홈쇼핑에서 선보인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Rozy)다. 가상세계 속 인간인 로지는 가상의 공간과 세계관에 익숙한 MZ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이 일었고, 단숨에 유통가를 사로잡았다. 이런 로지가 탄생할 수 있는 배경에는 '메타버스(Metaverse)'가 있다.

불교와 메타버스 접점은

가공, 추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우주,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가 생산 활동과 사회생활 등 일상을 영위하는 3차원 가상세계, 일종의 '가상 속 현실 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실상 종착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기술은 AI부터 빅데이터, 클라우딩,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MZ세대 중심으로 활성화
명상·포교 분야 활용도↑
꾸준한 콘텐츠 개발 과제

메타버스는 판타지 세상이지만 현실이기도 한 세계다.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이나 일상을 영위하며 쌓여진 데이터들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원되며, 이때부터는 단순한 현실세계의 복제물이 아닌 독립성을 가진 공간이 된다.

이 같은 메타버스를 불교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은 저서 〈AI부디즘〉에서 메타버스가 보여주는 다양한 법계를 외면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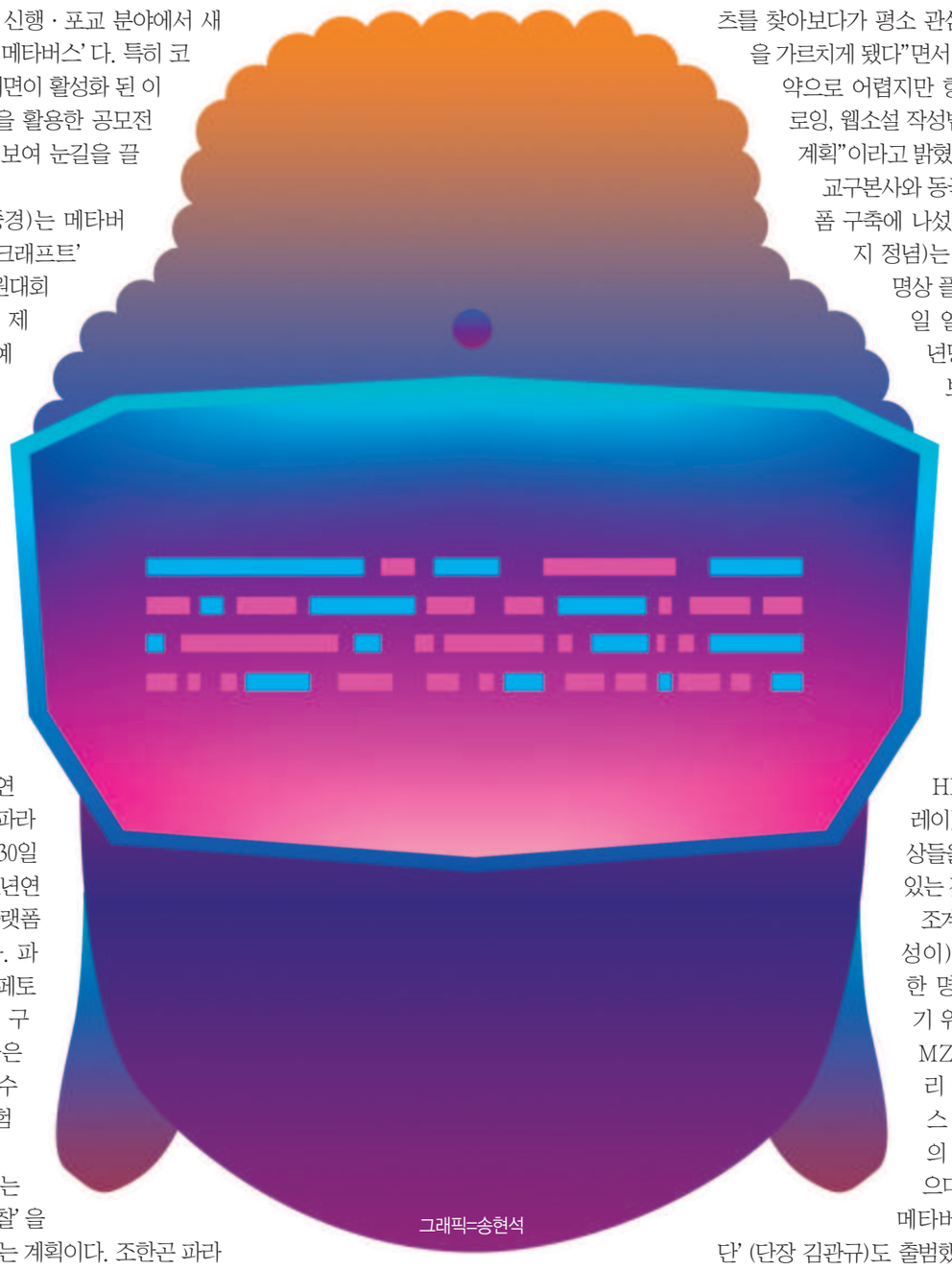
스님은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매혹적인 색과 형상, 소리, 감촉들도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현실이든 가상세계든 어차피 마음의 분별 작용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 어떤 가치를 담아낼 것인가'라는 질문"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메타버스 활용 '잰걸음'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이 투사된 것이고 오직 분별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불교는 '메타버스'라는 진보된 디지털 기술에 큰 거부감이 없다. 도리어 적극적인 활용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 지난해 불교계 신행·포교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한 트렌드가 '메타버스'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활성화 된 이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공모전이나 행사들이 처음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서산 보원사(주지 중경)는 메타버스 비디오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보원사지 복원대회와 공모전을 개최했다. 제11회 내포 가야산 산사예술제 일환으로 열린 복원대회에는 서산 지역학생부터 전국 종립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경연을 벌였다. 올해에는 1박 2일 캠프를 열어 조선시대 불교 건축양식과 지역 불교문화를 교육한 뒤 사지를 복원하는 대회를 열 계획이다.



그래픽=송현석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지현, 이하 파라미타)는 지난해 10월 30일 '제24회 파라미타 청소년연합캠프'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개최했다. 파라미타는 이를 위해 제페토에 '파라미타 사찰'을 구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불교문화를 체험했다.

파라미타는 내년에는 제페토의 '파라미타 사찰'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조한곤 파라미타 사무국장은 "파라미타 사찰에 상설방을 만들어서 사찰 청소년 법회를 봉행하거나 가상의 아바타 스님을 구현해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는 제13회 나란다축제를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에서 개최했다. 이를 위해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로블록스에 '도전!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제작했다. 제작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산하 교법사들이 참여했다.

콘텐츠에는 삼보사찰인 송광사·해인사·통도사가 구현됐으며, 미션을 통과하며 게임이 진행된다.

제작에 참여한 김윤경 동대부여중 교법사는 "나란다축제가 예전처럼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의견을 모은 게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만큼 요즘 인기 있고 제작도 쉬운 로블록스에 '삼보사찰 순례'를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VR메타버스 코딩 등을 가르치는 사찰도 생겼다.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는 템플스테이를 찾은 학생과 가족들에게 VR메타버스 코딩·3D프린팅·드론 등을 교육·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용화사 연수원장 지장스님은 "청주 용화사는 도심사찰이기 때문에 전통 콘텐츠로는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가족과 학생들이 재미있게 놀이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보다가 평소 관심있던 4차산업기술들을 가르치게 됐다"면서 "현재는 시간 등의 제약으로 어렵지만 향후에는 아아패드 드로잉, 웹소설 작성법 등의 강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구본사와 동국대는 자체 명상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는 자체적으로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개발해 8월 12일 열린 강원도 세계청소년명상주간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10월 8일 개막한 오대산 문화축전에서는 학생백일장 등의 행사와 월정사 화엄선문화연구소 제1회 국제명상세미나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월정사의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은 뇌파측정기와 HMD(머리 착용 디스플레이)를 착용하고 요가, 명상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메타버스를 기반한 명상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비대면 사회에서 MZ 세대의 정신건강 관리·회복을 위한 메타버스 디지털 솔루션' 주제의 연구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를 전담할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연구단'(단장 김관규)도 출범했다. 구랍 12월 14일에는 'MZ세대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공청회도 개최했다.

현재 사업에는 동국대 불교대학, 공과대학, 의료원과 가천대 뇌과학연구소가 참여한다. 가천대의 참여는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함이다.

해당 연구는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한 '2021년 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과제'에서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다부처공동기획연구 결과는 오는 2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관규 명상 메타버스 플랫폼 기획연구단장(연구부총장)은 "첨단과학과 명상, 선 수행과의 접점을 모색하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최근 메타버스 기술이 부각되고 동국대도 이를 구현할 수 있어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사업이 확정되면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연구와 플랫폼 구축이 이뤄지게 된다.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 정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콘텐츠 개발·명상 과학화 관건

불교계가 활용을 시작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성공적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실무 전문가들은 니즈 파악과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 참선 수행의 과학화를 과제로 꼽았다. 또한 기술 진입장벽의 해결도 제안했다.

김선임 종무실장은 "보원사지 복원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을 설문조사해보니 놀이라고 생각하니 재미있어했고, 참여도도 높았다"면서 "MZ세대가 무엇을 추구하고 좋아하는지를 살피고 여기에 맞춰 불교문화를 접목하는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경 교법사는 "다양한 전통 유산을 가진 불교는 메타버스에서 활용도가 높다"면서도 "현재 불교계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콘

보원사, 사지복원 공모전
통해 청소년 포교 앞장서
동국대 명상 플랫폼 개발
용화사, 메타버스 교육도

텐츠를 선보이고 있지만, 제작 이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수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규 단장은 참선 수행의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 기초자료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상담 심리 분야는 학문·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이 방대하고 체계적이다. 하지만 참선 수행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데이터는 아직 부족하다"면서 "불교계가 메타버스 명상 플랫폼을 구축하려 한다면 대중들을 설득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들이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을 운영하고 법회를 주관하는 주체인 스님들이 새로운 기술의 진입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것도 과제다. 이에 대해 지장 스님은 "저는 인공지능 상담을 할 수 있는 'AI붓다' 제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을 독학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겁이 없는 편"이라며 "목표와 관심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봉사와 나눔으로 실천하는 자비도량
안성 일죽 망이산성 사단법인 불교정중종

안성 연등사

주지 도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생활풍수 CEO 총동문회장 도심

총동문회 사무처 안성 연등사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
전화 031)674-5765 / 팩스 031)674-5769 / 핸드폰 010-3714-9351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합니다.



DIGITAL4.0 BUDDHISM

NFT와 불교



그래픽=송현석

디지털 세계 패엽굴 결집 'NFT'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디지털세계의 '원본' 개념
희소성 부여 디지털 재화
훈민정음NFT 1백억 모연
각계 상업적 성과에 열광

불교 지적재산권 보호에
NFT활용 순기능도 많아
디지털 공유에도 기반돼
"상업성과 떠나 관심갖길"

2021년 7월, 한국문화계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을 맞이했다.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 NFT를 100개 발행, 개당 1억원, 총 100억원에 이를 판매한 것이다. 수익금은 미술관 운영과 문화재 연구에 쓰였다. NFT가 문화사업의 새로운 분야로 떠오른 사건이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도 연예인의 사진 등을 담은 NFT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돌이나 방송 프로그램의 팬덤을 자극한 NFT 수집품이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올해 미국에 NFT합작법인을 세운다. SM과 JYP 등 국내 굴지의 엔터테이먼트도 NFT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MBC는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인기 장면을 담은 NFT를 만들었다.

게임업계도 난리다. NC소프트는 리니지 게임 아이템을 NFT화 한다고 하고, 수많은 업체들은 아예 NFT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의 '원본' 개념 NFT

너도 나도 손대는 NFT. 이처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NFT는 도대체 무엇일까?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이다. 토큰이라니? 토큰은 또 뭘까 싶은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전엔 버스를 탈 때 돈을 대신해 내는 동전 모양의 탑승권을 불러 '토큰'이라 했다. 일종의 화폐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세계에 통용되는 거래재화나 수단을 토큰이라고 한다.

대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세상에 유일' 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닌 5만원권은 다른 1만원권 혹은 다른 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돈마다 특정 코드가 찍혀 있기에 이 또한 대체불가능이지만, 현실에서는 내 지갑의 5만원권이 다른 이의 5만원권과 다르지 않다. 반대로 팔만대장경 경판이나 부처님 진신사리, 반가사유상을 떠올려보자. 대체가 가능한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 'NFT'가 무엇인지 짐작은 갈 것이다. Ctrl+C/Ctrl+V로 복제가 쉬운 디지털 세계에서 복제가 되지 않는 일정의 가치를 지닌 재화, 즉 '디지털 원본'을 의미한다. 물론 이 복제가 되지 않는 '디지털 원본'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지만, 그건 방편일 뿐, 미래에는 다른 기술이 쓰일 수도 있으니 블록체인 기술이 NFT를 정의하진 않는다.

왜 NFT가 각광 받나?

그렇다면 왜 NFT, 디지털 원본이 각광을 받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디지털화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깊게.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의 범람 속에서 사람들은 원본의 개념을 찾기 시작했다. '소장'의 개념이 강한 NFT미술품이나 NFT문화재 거래가 세간의 이목을 끌지만 사실 이 '원본' 개념이 더 밑바탕에 있다.

인터넷에서는 쉽게 모나리자 사진을 구할 수 있다. 조금씩 편집하거나 수정한 모나리자 사진도 떠돌아 다닌다. 실물을 보러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 걸려있는 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분간조차 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원본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먼저 NFT는 위변조나 복사 등이 많아 일정 가치를 지켜야 하는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디지털 사진, 영상 등에서 그렇다. 저작권과 연계한 분야에서 가장 확실하게 저작권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NFT가 여겨지고 있다.

세상에 유일하다는 것과 디지털 재화로 변환된다는 것에서 다시 소유에 대한 가치가 더해진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술품이나 문화재의 NFT 거래다.

돈 이면의 '원본' 개념 유의해야

예를 들어보자. 영험하기로 소문난 OO스님의 기도소리가 있다. 사찰 종무소 판매대에서 이른바 사찰이 어느 정도 보증한 OO스님의 진품 목소리를 구입해 들을 수 있다. 인터넷에도 물론 OO스님의 기도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OO스님의 목소리라고 누가 보증할 수 있을까. 일반인이 녹음한 비슷한 복제품과 차이가 없다면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NFT는 그 자체로는 '원본'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일정의 공신력을 지닌 기관에서 '원본 인증' '희소성 보증'을 하는 순간 가치를 지닌다.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 음성은 인터넷에도 있다. 테이프로도 나와 있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이나 해인사, 조계종에서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을 NFT화한다면 어떨까. 무분별한 복제의 디지털 세계에서 하나의 안전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난존자 '여시아문', 부처님 재세시 NFT

부처님 입적 후 칠엽굴에서 500아라한이 모여 아난존자의 '여시아문'으로 시작한 부처님 법문 결집은 당시 아날로그 시대의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이후 선지식들이 직접 경전에 새기거나 인도 구법행을 통해 현지 경전을 갖고 오고, 이를 국가나 종단 차원에서 인증하는 과정이 있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본' 개념이 바탕이 되면 더욱 활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pixabay'와 같은 사진 무료제공 사이트에 들어가보자. 해당 사진작품에는 저마다 사진 작가들의 저작권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무료다. 작가들의 무료보시된 사진들이다. NFT에는 저작권자와 소유자, 활용처 등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투명한 사용이 가능하다.

훈민정음 NFT화를 시도한 간송미술관 측은 "NFT는 디지털 세계의 방편으로도 훌륭하게 작동한다. NFT가 지닌 투명성으로 인하여 후원이나 기부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FT 확산과 함께 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조계종은 2011년 불교문화지적재산권 안내서를 내놓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

2000년 초반 디지털화를 틈타 일부 방송이나 특정 디자인 업체 등이 사찰이나 종단 동의 없이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을 개발해 놓고 오히려 원저작권자인 불교계가 이용할 경우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는가하면 예경의 대상이 되는 성보물이 왜곡돼 사용되거나 희화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디지털 4.0시대 불교문화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NFT 상업적 성과, 기술 평가에 악영향

NFT는 상업적 성과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업적 성과는 자칫 디지털 원본에 대한 중요성이 상업적 이용을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에 그치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교문화콘텐츠 전문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나 NFT라고 하면 일단 그게 돈이 되는지부터 문의가 들어온다"며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호가하는 미술품 NFT 거래부터 아이돌 상품화 등에 불교 NFT라고 하면 일단 사업, 상품화 개념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상업활동이 활발한 태국 불교계의 경우 NFT를 활용한 디지털 부적을 판매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불교도가 다수인 태국에서는 부적이나 종교적 장신구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고승 부적은 수천 달러를 호가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 크립토아뮬렛(CrytoAmulets)은 2021년 10월부터 NFT 불교부적을 판매 시작했다.

크립토아뮬렛의 NFT 부적은 태국 고승인 루앙 푸 헨(Luang Pu Heng) 스님이 실제 기도의식을 치룬 부적으로 만들어졌다. 크립토아뮬렛 측은 오히려 대량생산되는 실제부적들보다 손실되지 않고 진위여부 확인 등을 장점으로 들었지만 디지털 부적에 대한 반감을 불러오기도 했다.

장재진 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NFT에 대한 상업적 성과는 시장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불러올 기재가 되지만 이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NFT 본연이 지닌 장점을 희석시킨다"며 "불교계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과 향후 디지털 콘텐츠 공유 차원에서 원본을 인증한다는 의미에서 NFT 관심을 갖고 해당분야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대일** (여여사)

강서구 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전화 051)271-2774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장 **혜 덕**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중명대범주	명해(소림사)
고 문	대원(금불사) 도문(전등사)
	월봉(효자암) 월강(금어사)
	혜성(금강사) 자관(자비암)
직전회장	효문(효심사)
회 장	용하(용문사)
자 문	혜민(천불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취산(무량선원)
	범관(몽불사)
감 사	무상(미타사) 정호(해동암)
사무총장	범천(무량사)
재무국장	성화(용와사)
홍보국장	지훈(영주암)
포교국장	법광(무량정사)
문화국장	혜륜(혜륜정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21 용문사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림**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CM 명상상담센터
CLEARMIND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상 화**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여 래 선 원
경산 **삼 성 사**

주지 **평중 효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목요시민선방 오후7시
  금요자비참법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금토 다라니기도 오후7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8번길 12-2 전화 051)851-3355
경상북도 경산시 상대로 423 전화 053)856-1110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 **청량사**

이사장 **보 혜**
후원회장 **정용권**
회 장 **정다금**

기장차문화대학 학장 **이원숙**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원영애**
청량선차문화원 **장외숙**
기장꽃차문화원 **이숙자**
외 임원진 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사회에 봉사하는 스님들의 단체

화엄승가회

회 장	봉암 자인
고 문	법우
자 문	평천 범혜
수석부회장	자관
상임부회장	도원, 일공
부 회 장	청허, 도명
감 사	혜현, 천웅
총 무	대각 금산
재 무	태산
의 전	법봉
회 원	도경, 안국, 선혜, 보현, 정현,명호, 지오, 혜광, 의천, 향공, 혜명(비구), 혜명(비구니)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지 **향 공**

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영제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연산 원타
부 회 장 대유 시광
원상 정사
대유 시광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선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월륜 춘제, 석만 도관, 무심 법지, 승호 원종, 법담, 안국, 원여 도경, 우당 무무, 보문 효진, 상보, 지공, 덕난 무애, 다보 진여, 은좌 보현, 지연 보안

사상구 불교연합회

고 문 청 강(옥천사)
혜 지(낙은사)
경 호(법성사)
성 비(영수암)
자문위원장 혜 산(봉덕사)

회 장 성 문(선광사)
수석부회 성 림(관음사)
부 회 장 지 관(약수암)
대 둔(용운사)
무 문(옥천사)

총무국장 법 경(광명사)
포교국장 은 적(관음사)
사회국장 향 공(견강암)
감 사 자 륜(낙은사)

사상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장 심인택
신도부회장 전수택
신도회봉사회장 박유진

사상구불교연합회
연합신도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번길 32-123(선광사) Tel. 051)303-4848

불교여성개발원 부산지원

지원장 김수현

회원일동



※ 본 사진은 C19 이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약 수 사

주 지 혜 우
신도회장 김미자
총 무 김정녀

자비회 회원 일동



부산 사하구 감천로139번가길 41
TEL 051)291-9681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이사장 김경조
상임이사 박희채

이 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강석진, 이재동, 조성두,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이욱태, 김기환
감 사 황주환, 신태용
신도회장 성재곤
부 회 장 이원옥, 이상수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전화 051)626-4337, 624-7664 팩스 051)626-4330

진참회기도도량

황령산 **소 원 사**

주 지 법 진
회 장 추성숙
총 무 백순연

사부대중일동



매월 음력 초하루, 보름 법회

부산 남구 진남로96번길56(대연동) 전화 051)634-3366

대한불교조계종

청 심 사

YouTube 밝은마음TV

주 지 법 진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14-8
전화 051)315-7282



든든한 지역금융 **부산성의신협과 함께하세요!**

이율안내 (2021.12 기준 세전/만기해지 시)

정기예탁금 (만기지급식)	
12개월	연 2.1%
13개월	연2.1% (총 수익률 2.275%)
15개월	연2.1% (총 수익률 2.625%)

온뱅크로 개설	
유니온 정기예탁금	연2.2% (만기지급식)
E-파람적금	기본이율1.9%+*우대이율0.5%(최대 연2.4%)

정기적금	
1년	연1.7%
2년	연1.8%
3년	연1.9%

*우대이율 조건(각 항목 충족 시 0.1% 씩 추가적용)
▶총 납입 횟수의 2/3이상 자동이체로 납입하는 경우
▶적금 가입일 기준 조합원에 가입 된 경우
▶적금가입 시점 전 비대면으로 우리 조합 거치 · 적립식 예금을 개설,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적금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4개월간 월 20만원 이상 신협체크카드 결제실적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적금 신규일이 포함된 달 또는 그다음 달부터 연속한 3개월 동안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대이율은 우대조건 항목 충족 시 우대구분에 따른 우대이율을 각각 적용하며, 우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하되,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만기 후 해지 이율은 만기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예금상품의 중도해지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최초 약정된 이율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압류,가압류,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가 지급제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산 성의신협 범천지점(051-633-9120)및 신협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성의신협 범천지점 Tel. 051-633-9120 부산진구 범일로 162 1층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 2021 - 36호 (2021. 12. 22.) 유효기간 2022. 2. 28. 까지

맑은 소리 맑은 나라

월간
낮은 곳에서 참소리를 담아내는 불법 홍포지

도서
출판
Buddhism & Art & Book



맑은소리맑은나라는 선지식의 법문은 물론 불교 에세이, 불교 카툰, 불교 지식 등 다양한 불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불교 행사를 취재하여 한 달 동안 있었던 불교 소식들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22 동방빌딩 401호 www.puremind-ms.com
Tel. 051)244-0263, 255-0263 Fax. 051-255-0953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 계 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주지 허 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극락도량 **약 천 사**

무료시설 **포산승가원**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전화 053)767-3100 팩스 053)765-1600

대한불교조계종

한 마 음 선 원
포 항 지 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혜원**	방 장	**지선**
부 종 정	**법륜**	명예종정	**법경**
장 로 원 장	**정광**	총 무 원 장	**법성**
종 회 의 장	**혜관**	교 육 원 장	**도원**
감 사 원 장	**보덕**	포 교 원 장	**법성**
호 법 원 장	**홍일**		
비 구 니 원 장	**진언**		
비구니부원장	**무상**	비구니부원장	**광명**
총 무 부 장	**법일**	사 서 실 장	**벽산**

한국불교선조계종 종도일동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팩스 053)322-0567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종화 도진**
교 법 사	**문 수**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김 원 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전화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전통燈
장진익 공방

작가 **장 진 익**

봉축탑, 전통한지등 제작
전통등강습회 진행

전화 010-2606-4403

한국불교태고종

광주 · 전남교구

종무원

종무원장	**월 인**
부 원 장	**지 공**
총무국장	**국 진**
교무국장	**정 각**
재무국장	**명 휴**
규정국장	**도 허**
사 무 장	**연화심**

지방종회

의 장	**보 응**
수석부의장	**연 봉**
차석부의장	**승 휘**
의 원	**대 응**
의 원	**현 도**
의 원	**도 안**
의 원	**원 우**
의 원	**법 일**
의 원	**선 성**
의 원	**대 주**
의 원	**각 안**
의 원	**자 인**
의 원	**영 원**
의 원	**혜 휴**
의 원	**도 양**
의 원	**도 광**
의 원	**해 원** (전법사)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팩스 062)381-0944

DIGITAL4.0 BUDDIHSM

AI · IoT와 불교



초지능 · 초연결 사회, 불국토 이룰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4차산업혁명 기술들의 특징은 초지능 · 초연결 등으로 정의된다. 이 특징을 가장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기술이 AI(인공지능) · IoT(사물인터넷)이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AI의 상용화는 먼 일로만 여겨졌다. 하지만 딥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딥러닝은 음성 인식, 영상 분류, 사물 감지, 콘텐츠 설명 등 인간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교육하는 머신 러닝 기술로 사용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특징을 가진다.

해외 불교계에서는 AI 활용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고야산을 총본산으로 한 일본 진언종은 최근 소장된 고문헌을 디지털화하면서 AI를 통한 해석에 들어갔다. 2019년 8월 2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히다카 젠포 스님은 "고야산에 전해지는 방대한 문헌들은 역사의 보고다. 인력으로만은 그 전모를 밝히는데 상대한 시간이 소모된다. AI를 활용함으로써 해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단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불교학센터는 AI를 활용한 '불교 이러닝(e-learning)'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IoT에 있다. IoT의 연결성의 원리는 모든 사물, 모든 사람, 모든 정보, 모든 행위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IoT의 경우 문화재 보존 · 방재에 활용도가 높다. 문화재청은 건축문

해외선 AI통한 E-러닝 보급
문화재 보존 · 방재 IoT 활용
참선수행 과학화돼야 적용돼
종단산하의 스타트업 육성도

화재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전체적인 외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데이터의 정밀도가 재래식 센서 대비 크게 개선된 '문화재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문화재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공 안전 모니터링 분야에도 함께 적용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AI와 IoT분야에서 불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KT 기가지니에 명상플랫폼 '하루명상'을 탑재시킨 김병전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는 "과학화돼 있는 마음챙김을 기반한 명상법이나 위빠사나 등은 빅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이 가능하다"면서 "IoT의 경우 사찰 탐방객들에게 성보문화재를 소개하는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수행의 경우 아직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데이터가 확보가 안됐고, 과학화가 이뤄지지 않아 AI에 적용하기는 당장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김병전 대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불교계가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하게 사찰에서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수행 전문가인 스님들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 있고, 대중들의 영역에서 하는 수행이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중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 IoT 등은 자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은 그는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과 미래 비전의 문제"라면서 "마음산업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조계종 등 주요종단 산하에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Fintech와 불교

무현금사회 도래 디지털 보시 박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핀테크(FinTech 또는 Financial Technology)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빅 데이터, SNS 등의 첨단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핀테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분야는 지급결제 수단의 변화다. 이른바 무현금 사회의 도래다.

무현금 변화 양상 빠르다

한국은행의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현금 이용률은 9%에 불과하다. '페이' 결제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간편결제 이용은 하루 평균 449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한국은행 '2019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서'에 따르면 '현금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0대부터 40대에서는 40%를 웃돌았다. 더 간편하고 빠른 결제 수단이 등장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변화양상은 더욱 가파르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이용은 전년대비 8.4% 증가했다. 백신패스를 비롯한 증명서와 신분증이 QR코드 등을 활용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탑재되며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지갑 자체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코로나로 인한 무인기기의 확대도 이러한 무현금 사회를 재촉하고 있다. 현금을 갖고 무인기기에서 결제하기 보다 각종 페이나, 카드 등을 활용한 결제가 더욱 편리하기 때문이다. 생체인식과 결합된 결제시스템이 있는 곳은 현금 자체를 쓰지 못하는 곳도 있다.

이제 불전 수입에서도 패러다임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에서는 노점에서 옥수수를 사먹어도 '알리 페이'로 결제하고, 구걸도 QR코드로 하고 있다.

조기룡 동국대 교수는 "사찰 내에만 보아도 10여 년 전부터 불전함 보시금 외에는 사찰 용품 결제 등에서 카드결제가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결제, 간편결제 확대가 사찰 내 결제방식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 보시 확대 눈길

불교계는 오프라인에서는 디지털 불전함을, 온라인에서는 오픈뱅킹 보시함 등을 도입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2020년 1월 키오스크 불전함을 도입했다. 합천 해인사와 화성 항하사 등에도 키오스크 불전함이 설치됐다. 아직까지 주요 대상은 젊은 시민들이다. 고령의 기존 신도들은 1000원, 10000원씩 불전함에 넣는 것에 익숙하다. 서울 화계사는 오픈뱅킹을 활용한 온라인 디지털 불전함을 내놓기도 했다.

20~40대 40% 현금사용 無
백신패스 비롯 앱활용 증가
지갑 자체 들고다지니 않아

무현금 사회 급속한 전환에
사찰 보시, 결제 변화 예고
"디지털기부 · 결제 다듬어야"

결제방식의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서울 봉은사의 경우 공양미 자동판매기에 카드결제와 페이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양양 낙산사와 고창 선운사, 부안 내소사 등 주요 관광사찰은 지난해 5월부터 사찰 입장료를 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 키오스크를 설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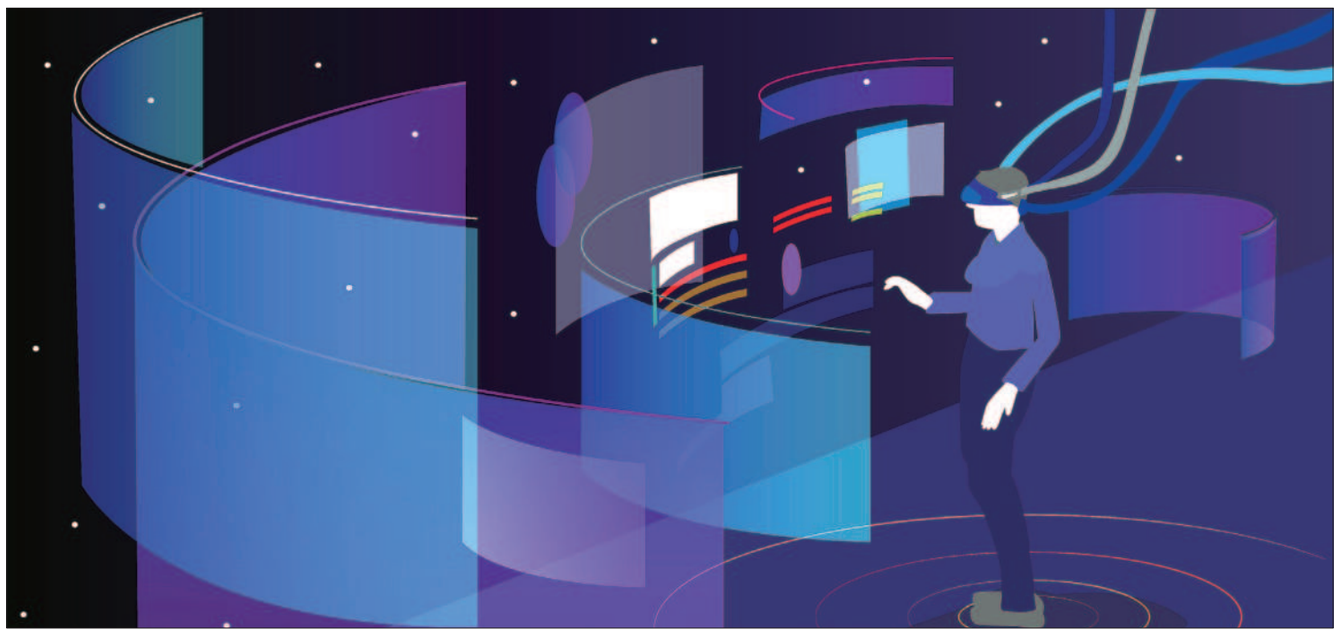
민병덕 올이프 회장은 "무현금사회에 대비한 디지털 보시문화 형성과 청년세대 접근을 위한 사찰내 결제 시스템 등을 다듬어 가야 한다"며 "데이터 축적으로 불교계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DIGITAL4.0 BUDDHISM

디지털 전환 시대와 한국 불교

韓불교, '데이터 댐'을 만들자



사람 있는 곳에 佛法있는 것 당연
시대 맞춤 포교, 교육모델 시급해

디지털 데이터 수집 관리 등 필요
데이터 연계 통한 종책 수립 용이
한국불교만의 '데이터댐' 만들어야

앨런 튜링과 50파운드

지난해 3월, 영국의 런던 중앙은행은 최고액권인 50파운드 지폐에 새겨질 새 인물을 공개했다. 기존 구권 지폐에는 앞면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18세기 증기기관을 발명해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제임스 와트가 새겨져 있었다. 신권의 새 주인공으로 낙점된 사람은 바로 '앨런 튜링' 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과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다고 전해진다. 어째서 영국인들은 '앨런 튜링' 을 자신들이 내세우고자 하는 인물로 선택했을까?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난공불락으로 알려진 독일군 암호체계인 이른바 '에니그마' 를 해독해 낸 인물이다. 당시 '에니그마' 는 매일 바뀌었고, 문장을 무작위의 글자배열로 변환하면서, 무려 2200만 개의 암호 조합을 만들어 냈다. 앨런 튜링은 영국군 암호 해독반에 소속돼 독일군의 '에니그마' 를 깨뜨리기 위한 '계산기를 만들어 낸다. 오늘날 컴퓨터의 효시이다. '튜링 머신' 과 '튜링 테스트' 라는 개념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에 최초의 통찰을 제공했다. 한 마디로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결국 앨런 튜링이 개발한 암호해독기를 통해 독일군 암호체계를 해독해 냄으로써 연합군은 승리할 수 있었다. 훗날 역사가들은 앨런 튜링이 아니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2년은 더 계속됐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업적과는 대조적으로 그의 삶은 불행했다. 동성애 혐의로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고 화학적 거세를 받은 뒤, 1954년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아마도 이런 비극적인 삶 때문이었는지 그의 천재성과 탁월한 업적에 비해 그리 대중적인 찬사를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시절 인연이 도래한 것일까. 인류문명의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는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은 앨런 튜링을 다시금 우리 앞에 불러내고 있다.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증기기관을 발명한 제임스 와트를 영국의 상징으로 내세웠듯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인 인공지능의 창시자, 앨런 튜링을 통해 자부심을 담아내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인류 문명사를 전환시킬 대변혁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 변화에 대응하고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세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다

약 2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에 호모사피엔스가 생존해왔던 시간을 약 1m의 야구방망이로 환산한다면, 인류가 과학기술을 통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기 시작한 시간은 방망이 끝 마지막 1mm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딥러닝 △빅데이터 △나노기술 △유전자가위 기술 △자율주행 자동차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물인터넷(IOT) △NFT 등의 기술이 바로 그렇다. 100년 동안에 이뤄질까 말까 한 기술혁신이 최근 2~3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가 창출되고, 새로운 권력이 등장하고 있다. 이 기술들은 낙후된 기존 시스템의 운용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주저 없이 기존 질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가치와 시스템을 받아들인다. 이른바 '파괴적 혁신' 이다.

그 실례를 들자면, 인공지능은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되면서 그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이 딥러닝에 동력이 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의해 대규모 수집 · 저장되고 있다. 특히 구글, 아마존, 텐센트, 카카오 등은 엄청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데이터가 곧 돈이고 권력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그리고 나노기술의 혁신은 유전공학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분야나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크리스퍼' 라고 불리우는 유전자가위 기술을 통해 인간이 노화와 질병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마저 갖게 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인간 DNA 등의 생체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화함으로써 가능해진 일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현실 물리 세계의 도로 주행 정보들이 모두 디지털 데이터화 되고 저장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데이터 처리를 관장하는 중앙 서버 없이도 모든 시스템 참여자들이 거래 장부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데이터 처리 방식에 있어서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식 데이터 처리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메타버스는 온라인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융합하는 디지털 기술이다. 5G로 대변되는 인터넷 전송 속도의 향상과 데이터 정보량의 급증, 컴퓨팅 능력이 좋아지면서 가능해진 기술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메타버스가 보급되면서 더불어 '디지털 휴먼' 뿐만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라는 'NFT' 도 디지털 자산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이상의 첨단 기술을 관통하는 핵심 속성은 무엇일까. 바로 '디지털 데이터' 다. 이전에는 전혀 디지털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분야조차도 이제 '복사와 붙여넣기' 가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화 되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온라인 시스템은 현실 세계로부터 더 많은 데이터가 공급돼야만 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딥러닝부터 메타버스, NFT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현실 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세상으로 보내는 일종의 대규모 '파이프라인(Pipeline)'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온라인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현실 세계와 연결되고 융합한다.

디지털은 어디로 가는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 전통 선가에서 전해 내려오는 화두다. '모든 존재와 현상이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모든 존재와 현상이 돌아가는 곳은 어디인가' 라는 물음이다. 디지털 시대의 물음으로 표현해 보자면 '모든 것은 디지털로 귀착되는데, 그 디지털은 어디로 가는가" 정도 되겠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관통하는 속성은 무엇이고, 결국 그 낙처는 어디일까?

시내와 하천,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듯이 이 모든 크고 작은 변화는 디지털이라는 바다로 모여들고 있다. 현실 세계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 데이터들이 흘러들어 마치 강물이 댐에 가두어지듯이 대규모로 저장된다. 이제 온라인 디지털 세상의 정보량과 현실 세계의 정보량이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디지털 세계의 정보량이 물리 세계의 정보량을 넘어서는 세상이다. 그럼 현실 세계를 디지털 코드로 모두 변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에서도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방식과 동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마디로 두 세상이 서로 경계가 없어지고, 연결되고, 융합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상즉상입' (相卽相入) '의 상태이다. 결국 물리적 현실 세계와 동등한 디지털 세계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고, 사람들의 활동 영역과 인식영역 또한 확장됨을 의미한다.

디지털 대항해 시대 속 반야용선

그렇다면 불교는 이 대전환기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앞서 강조했듯이 변화의 본질은 물리적 현실 세계의 디지털 데이터화를 통한 새로운 디지털 세계의 창조이며 현실 세계와의 연결과 융합이다. 불교가 왜 메타버스를 비롯한 온라인 디지털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곳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머물면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하고 경제활동도 영위한다. 오히려 디지털 세계에 익숙한 이른바 MZ세대는 메타버스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고 할 정도이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곳에 사람들의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불교는 손을 내밀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새 시대에 맞는 전법 · 포교전략은 물론 교육 모델 정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수집 · 저장 ·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이다. 실제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구축하려는 가상의 댐이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를 가두고 저장하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구상이다. 각 사찰의 전법 포교 교육 현장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그냥 소실되지 않도록 수집 · 저장 · 관리 · 연계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개발 · 유지 · 관리하는 것이다. 한국불교는 종단 차원 또는 개별 본사 단위별로라도 향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한국불교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불, 법회의 진행, 신도의 교육과 관리, 동참금 보시도 디지털 공간 속에서 용이하게 진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신도들의 특정 법회 선호도나 추이를 교구본사 단위별 또는 종단별로 데이터로 수집 · 관리 · 연계될 수 있다면, 당장 종책 수립이나 다음 해의 예산안 편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일선 포교나 교육, 종무행정 현장에서 휘발성으로 사라지는 다양한 경험의 총량은 막대한 손실이라고 할 것이다. 디지털화된 경험의 기록은 데이터가 되어 불교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불교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정된 공동체의 자원 속에서 최적의 준비를 통해 누수 없이 포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두에서 소개한 영국의 새 50파운드 지폐 뒷면에는 앨런 튜링의 초상과 그의 서명,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다음과 깨알 같이 적혀 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맛보기에 불과하며 미래의 그림자일 뿐이다."

앨런 튜링은 7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인공지능 딥러닝 시대를 예견했던 것 같다. 한국불교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업도 지금은 미미한 시작일 수 있지만, 다가오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를 헤져나갈 반야용선(般若龍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일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장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인년, 흑호黑虎의 힘찬 기운으로 200만 부산 불자들의 신심을 결집하여 불도 부산을 일으키겠습니다.

회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2022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단

■ 고 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김수현 하정선

■ 부회장
윤종경 박효섭 박영근 최태식 김종한 이종우 최순환 유영남 강경희 노종헌 장호익 김정화
김상훈 김영도 김선조 김홍종 공정근 최상곤 손정원 류길자 백영선 문 호 김영주

■ 자문위원
김진수 정홍섭 이장호 박홍대 전호환
박순곤 박태학 고영립 박한일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회문화부회장 박수곤
불교경제사회부회장 조용국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총무부회장 박종문
기획부회장 이희태
경조부회장 신기열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행정법률부회장 박도영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기획이사 김기호 김민성 노현주
경조이사 오세룡
교육이사 이륭우 김윤희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이영숙 김민성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박근배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강미영
섭외이사 이만수 정임숙
의전이사 정연식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배도정 이현수
친목이사 문종헌
홍보이사 손정현 정지원
집전 류상영

■ 이 사
강근순 강길주 권혁란
김선일 김성익 김영자
류강렬 박수진 백정진선
성재곤 심인택 안천일
유지호 이동진 이명학
정분남 정순천 하승준
허 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 808-8600

DIGITAL4.0 BUDDHISM

3인3색 전문가제언

디지털 전환기, 불교가 주도하자

혁신 주도 출·재가인력 양성 '우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현재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혁명은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방법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불교계도 디지털화 되는 사회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응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전을 비롯한 불교의 원천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검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디지털 혁명 시대가 불교에 미칠 영향을 이 같이 분석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김 교수는 "디지털로 정보화되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경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불교문헌과 불교문화 자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검색 서비스 제공, 메타버스 세계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김 교수는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불교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으며, 아바타는 화신불이라는 개념으로 이미 수천 년간 활용해 왔다"면서 "가상세계를 통해서 현실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올바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메타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상세계를 현실세계로 착각하게 하는 부작용, 가상세계에 빠져서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의 부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디지털 네이티브' 인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포교방안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MZ세대가 스스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불교를 쉽게 이해하고, 불교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MZ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제공하고 이를 메타버스를 활용해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명시대의 불교 포교를 이끌어나갈 전문 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향후 불교 디지털 포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출재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라며 "예를 들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스님이 있고, 스님을 보조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이 있어야 포교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종단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특강, 발표회, 토론회, 워크숍 등을 빈번하게 열고, 주요 사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각 사찰에서 개별적인 역량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서로 연대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참여 유도 '열린 사찰'로 나아가야"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메타버스는 MZ세대에게 불교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촉매가 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의 여부는 생태계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에 있습니다."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디지털 4.0시대 불교의 적응에 콘텐츠와 생태계 구축이란 화두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결국 메타버스, NFT 등 디지털 전환기의 플랫폼과 기술은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개방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불교는 이를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Iot와 디지털 원본화 작업 일환인 NFT에 대해서는 그 기술과 함께 불교가 주는 메시지가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불교가 지향하는 연기론적 세계관과 더불어 함께 하고자 하는 공생과 포용이라는 가치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더욱 가치를 발휘했다. 과거 불교는 늘 역사를 선도해왔고 시대적 물음에 답을 해 적극적으로 실천해 왔다"며 "메타버스를 비롯한 새로운 가상융복합 세계에서 불교적 가치관과 상상력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디지털화 된 불교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불교가 갖고 있는 다양한 가치를 도구로 한 디지털 콘텐츠로 만드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유통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가장 먼저 불교문화유산을 활용한 상징과 이미지 시각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공의 제약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다양한 불교적 세계와 메시지를 가상공간에서 표현하고 다양한 체험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콘텐츠는 결국 종교적 체험과 불교적 가치를 확산하는 곳으로 다시 환원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수는 디지털 기기에 미숙한 고령화된 신도층이 많은 부분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교수는 "현재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이용은 전 세대에서 필수가 되었다. 베이비부머인 5060세대를 오팔세대라고 하여, 자신 만의 행복한 노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보석 세대로 사회가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도들에게 제공했던 불교적 체험과 불교적 메시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불교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매체와 장을 확장하여,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열린 사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생태계 구축, '전문기업' 육성"

최대종 불교IT전문기업 다나 공동대표

불교IT전문기업 다나는 사찰 홈페이지 구축부터 시작해 다나TV 등 유튜브를 비롯한 뉴미디어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메타버스, NFT 등 새롭게 성장하는 디지털 분야 연구 또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대종 다나 공동대표는 불교계 디지털 전환기를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다. 현재 이천에서 연구활동에 활발인 그는 불교계 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대해 한마디로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디지털 전환기에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교계 전문가, 전문기업, 소비층이 함께 구축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불교계 내에서 활동하는 인재나 기업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사회에서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하듯, 특정 종단만의 주도적 사업이 아닌, 일선 기업들과의 협업 구조가 지속적인 발전의 뒷받침이 된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불교계 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업체로만 보지 말고 조금은 인식을 다르게 해달라"며 "디지털 전환기에 결국 사찰과 스님들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직접적인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곳들이 불교계 기업들"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만약 북한이 개방되어 현재 통신망을 대대적으로 깐다면 2G망부터 깔까요, 5G망부터 깔까요?"라고 물어봤다. 최 대표는 "아마 5G망, 최신 기술을 바로 접목할 것"이라며 "디지털 전환기에 모든 영역의 변화가 바로 그렇게 일어난다. 아날로그 시대처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아니라 최신 기술이 바로 적용되고 그에 맞는 생태계가 형성된다"고 예를 들었다.

"홈페이지 구축만 하더라도 사회에서는 진즉에 된 부분인데, 2000년도 초반에 본격적으로 구축을 했어요. 이제는 디지털 전환기에 메타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지점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단시일 내에 변화를 경험하고 이에 적응하는건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최 대표는 사회에서 수십년에 걸친 디지털 전환의 시간이 비교적 도입시기가 늦은 불교에서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NFT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며 디지털 포교에도 기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종단 안팎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많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언론 뿐만 아니라 종단과 여러 관계 기관에서 디지털 4.0시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불교계 기업들도 이에 대한 입장과 제안을 했으면 합니다."

노덕현 기자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종정사서 보명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민, 지운, 지심, 명산, 명재, 지공

총무원장 해불 원장사서 성화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성우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혜인 교리연구원장 남륜
총무부원장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수선원장 응진 수선부원장 성혜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성덕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충 북 종무원장 정연 충 남 종무원장 성현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화 경남·울산 종무원장 무간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강 원 종무원장 혜인

중앙종회
종회의원 지학 성현 성화 근혜 보명 묘현 성우 정연 성각 혜원 지화 응진 지연 자원 혜송 무영 해산 성덕 해인 무간 도암 도일
중앙신도회장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생명나눔 문화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 은 사

주지 **도 제**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전화 062)954-440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법 공**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약사천일 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무 진**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지 **무 안**

사부대중일동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종무소 061)374-0660, www.unjusa.kr
템플스테이 010-5850-0661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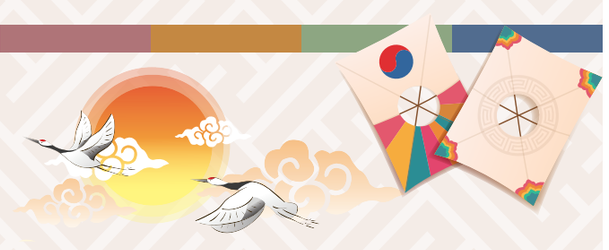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화 062)222-2202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
전화 062)224-7666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 2동 448-2번지
전화 062)227-7295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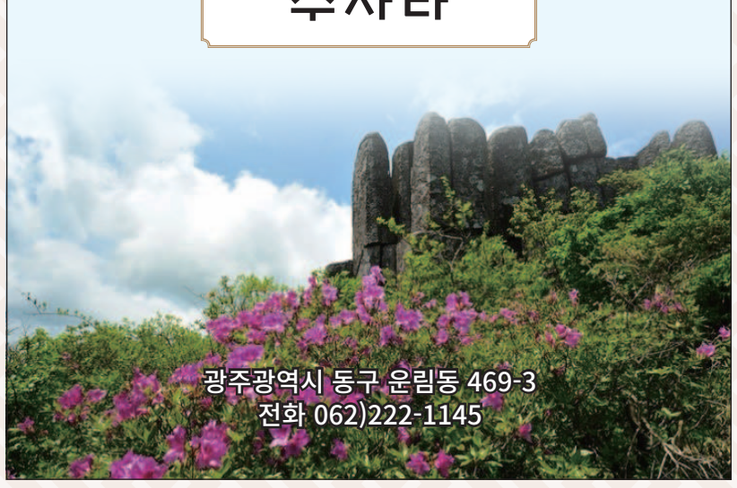
전남 순천시 신흥중1길 39
전화 061)723-3161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전화 062)222-1145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전화 062)266-0326

연우개발(주)

대표이사
윤 상 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50-1, 302호
(두암동,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상가동)
전화 062)262-0480 팩스 062)262-0481

(주)열린기획

대 표
정 성 훈

Stage System Design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06
전화 062)381-7730

예공

Total Design 전문회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카다로그/브로슈어/리플렛/BI,CI제작
시각Design/인테리어/환경Design
실사, 현수막출력/옥외광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54-1
대표전화 _ 062·352·7474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제2교구 용주사 부모은중 참선도량

수락산 **약 사 암**
일심선원

주지 **공수 성곡**

사부대중일동

수목원 용암산 만년결사
제2 무문관 불사 원만성취 발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 35길 67-20(상계동)
약 사 암 ☎ 02)937-9132 일심선원 ☎ 02)934-4153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806677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암)
농 협 351-1161-2896-63 (대한불교조계종 약사암)

대한불교천태종

삼 룡 사

주 지 **무 원**
신도회장 **김용규**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매월 둘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정기법회**
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전10시 30분 **경전법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112나길 41 전화 02)496-3839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선불교대학
제13기
신입생 모집



동록기간
2021년 11월~2022년 3월
입 학 식
2022년 3월 5일(토)

주지 **무 아**

진불선원·선불교대학
유아어린이청소년법회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문의 및 접수. 055)275-3222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 로 의 원 **태우 (부은사)**
원 로 의 원 **대안 (극락사)**
원 로 의 원 **등법 (법운사)**
자 문 위 원 **서산 (보광사)**
자 문 위 원 **월봉 (석봉암)**
자 문 위 원 **세명 (관음정사)**
자 문 위 원 **법안 (청량사)**
자 문 위 원 **옥산 (화엄사)**
자 문 위 원 **법철 (세심사)**
자 문 위 원 **석봉 (백운사)**
포교위원장 **황봉 (관음사)**
교육위원장 **석봉 (백운사)**
감사위원장 **성각 (기원정사)**
선거관리위원장 **만우(법성사)**

종 무 원 장 **환명 (약수암)**
종무부원장 **도각 (선암사)**
종 무 국 장 **자명 (석봉암)**
교 무 국 장 **법조 (보현사)**
규 정 국 장 **혜각 (수도사)**
재 경 국 장 **명성 (보광사)**
교 무 과 장 **법윤 (불정사)**

종 회 의 장 **정광 (문수암)**
종회부의장 **자범 (옥골사)**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중앙종회의원 **보행 (법운사)**
중앙종회의원 **청호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자범 (옥골사)**

중부분원장 **혜우 (봉연암)**
서부분원장 **백현 (금봉사)**
남부분원장 **자범 (옥골사)**
밀양분원장 **승범 (해광사)**
김해분원장 **정광 (문수암)**

중부분원총무 **자명 (석봉암)**
서부분원총무 **자운(여여암)**
남부분원총무 **근해 (무상사)**
밀양분원총무 **지원 (부은사)**
김해분원총무 **무진 (보현정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 1201호
전화 055)298-3634 팩스 055)298-3638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 화 사

주 지 **종 묵**

사부대중일동

템플스테이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사부대중일동

자기의 주인공이 바로 부처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원 명**
총무 **영 공**
감사 **정 광**

신행단체
함안 불교신도회 회장 **조용찬**
함안 바웃다합창단 단장 **박문자**
함안 공무원 불자회장 **심은숙**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주 지 **효 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8-c1020,8층 (신정동)

대한불교 원효종

야단법석
벽 선 암

주지 **홍법혜진**

신도회회장 **전순남**
운영위원장 **김영란**
대외협력단장 **김기원**
(사)야단법석대표 **김은아**
거 사 회 회 장 **양범수**
거사회부회장 **김문식**
거 사 회 총 무 **김효식**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36-6
HP) 010-5101-0093

용맹한 기상으로 연화세계 만들자

중중제망의 연기세상 펼쳐가는 한해 됩시다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불조장중불전과
(佛祖場中不展戈)
후인강지기효와
(後人剛地起嚆訛)
도태불전천자령
(道泰不傳天子令)
시청휴창태평가
(時淸休唱太平歌)

부처님과 조사가 계시는 곳에는 다툼이 없거늘
후인이 공연히 옳고 그름을 논함이로다.
진리의 도가 넓어지면 천자의 법령을 전할 것도 없음이요,
세상이 깨끗하고 깨끗한 시절에는 태평가를 부를 필요조차 없음이로다.

임인년(壬寅年)의 새아침에 떠오르는 붉은 태양이 전 세계에 가득한 코로나 질병과 지구촌의 갈등과 대립, 기아와 전쟁 등 칠흑(漆黑)의 무명(無明)을 몰아내고 국민의 가슴마다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祈願)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중심은 연기법(緣起法)입니다.

즉 인연생기(因緣生起)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입니다.

모든 존재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성립하였다가 조건이 변함에 따라 사라지는 중중제망(重重帝網)의 연기세계입니다.

전(全) 세계적으로 창궐(猖獗)한 코로나 질병의 공포와 고통은 인간의 자만심(自慢心)으로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훼손에 대한 자연의 대응(對應)입니다.

이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나와 더불어 남이 존재하고, 인간과 자연이 둘이 아니며 인간과 더불어 자연이 공존(共存)하는 만유동일체(萬有同一體)입니다.

새해에는 유마거사의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라는 대자대비(大慈大悲)의 가르침으로 종교와 이념, 남녀와 세대, 계층과 빈부를 초월(超越)하여 모두가 보살심(菩薩心)을 가져 개개인이 행복(幸福)하고 세상이 화평(和平)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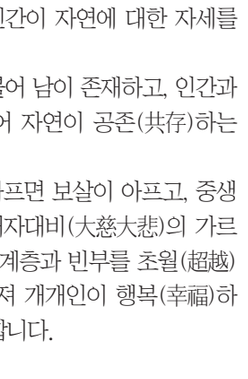
모든 인류(人類)시여!

나고 날 적마다 영원한 행복과 복락(福樂)을 누리고자 한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話頭)를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만번 챙기고 의심하면 몰록 '참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만유의 본질을 바로 보는 안목(眼目)이 열리어 나와 남이 둘이 아닌 동체대비의 비원(悲願)을 실천하여 인류가 하나 되어 태평성대를 누립시다.

공심으로 사회의 빛 되자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공심(公心)을 밝혀 공도(公道)를 세웁시다. 새해의 대일(大日)이 밝았습니다. 대일의 무량광명은 시공을 넘어서 뭇 중생의 삶의 터전에 한없이 비추니 누리에 새날의 희망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공심(公心)은 밝음이고 사심(私心)은 어둠이라. 공사(公私)를 세워서 진실이 살아나도록 진각眞覺의 종문을 법계에 헌공(獻供)하니 각성(覺性) 깊은 선남선녀가 정토를 만듭시다.

지혜 밝고 공도를 세워야 지도자가 되고 국민이 먼저 공심을 일으켜 성스럽게 되면 사도(私道)의 덫을 뛰어넘는 맑은 사람이 따뜻한 웃음 짓는 나라의 길잡이가 됩니다. 생명은 중중 무진, 서로 어울려서 저마다 빛 품은 품격으로 장엄세계 나툽니다.

미증유의 역병이 인생의 안락을 위협하지만 공존의 자비심으로 그 아픔을 이겨갑시다. 종교가 공심을 세워 본보기를 보이면 정치는 정법을 따라서 정론으로 겨루고 경제는 공영을 향하여 발전을 더 하여 다 함께 즐거운 세상이 여기 열립니다.

기쁨이 슬픔을 다독여서 새 기운을 북돋워서
새해에도 손잡고 화순(和順)하며 수행합시다.

불이 · 화쟁 정신으로 희망 만들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귀하디귀한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국민과 불자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와 이후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 하였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이 아무리 이루기 힘든 일일지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로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우리 국민들께서는 품고 있는 호랑이와도 같은 강직함과 인내심으로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 다름과 차별에 집착하는 갈등과 정쟁은 버리고 불이(不二)와 화쟁(和諍)의 정신으로 함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합시다.

임인년 새해 우리 불교계는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활용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됩시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불자 및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올해도 고통과 시련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가 발생해 전 세계를 다시 팬데믹으로 몰아넣고, 그에 따른 세계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경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에 의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우리나라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다, 6월 1일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격변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격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고 존재해나가야 할 생명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인간으로서 바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할 명제입니다.

행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존엄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우리는 그 행복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곤란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어려움과 고통을 진흙으로 삼아 우리의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희망의 연꽃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희망과 용기로 꽃피우는 새해되길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



용맹과 지혜의 밝은 기상으로 임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해, 임인년에는 코로나 19를 비롯한 일체의 병마가 사라지고, 경제난과 각종 사회악이 해소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불자와 국민 여러분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고 큰 희망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편과 피로가 쌓여가지만, 더욱 굳건한 원력으로 청정한 삶을 유지하며 상생과 화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힘차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고, 대자대비의 보살이 되어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며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합시다.

새해에는 모든 사람이 지혜의 눈을 뜨고 자비의 마음을 열어 일체의 고난을 극복하고 건강과 행복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삶의 터전이 곧 보살의 정토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새해 새 빛이 온 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일여래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지구촌을 넘어 사이버 세상까지 능히 비춥니다. 언제, 어느 곳을 가리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새 희망을 노래합시다. 서원을 세웁시다. 믿음으로 정진하면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는 여전히 인류를 위협하는 마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하는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계행과 하심, 그리고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밝음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지혜로 어리석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성을 찾아 부처님처럼 살아갑시다.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한 새해입니다. 국민은 개인의 행복을 지키면서 더불어 살려는 노력을 하고, 국가는 국민의 화합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정치와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 행복지수를 더 높이는데 진력해야 합니다. 장차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인류가 다함께 잘 사는데도 기여해야 합니다.

새해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대에 맞는 교화이념과 방편을 펴는 종단으로서 현세정화를 위한 진호국가불사에 매진해왔던 것처럼 우리 삶의 터전이 보살의 정토가 되도록 새롭게 서원하고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진언행자와 불자, 나아가 국민의 복지증장이 회당대종사 탄생 120주년을 뜻깊게 하는 우리들의 서원이 되도록 합시다. 상호공양 정신으로 우리 다 같이 어울려 살면서 만다라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갑시다.

부처님 가르침 따르는 한 해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사람의 이동과 지인의 만남이 제한되었던 신축년의 해가 저물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게 해 새로운 힘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희망과 용기를 오랜 시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옛 부처와 함께 가면 신선하고 즐거우니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법화경과 함께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바로 설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임인년 한 해는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 생활해 나간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역병도 물리쳐 자유롭고, 역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와 같이 용맹정진하라

지허 스님
태고종 종정



새해는 임인(壬寅)년이라는 호랑이를 상징하는 해이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위엄과 용맹함, 지혜를 수호하는 영물이다. 당대의 선지식을 호랑이라 지칭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승보살이자 협시보살 가운데 하나인 문수보살이 중생들에게 지혜를 전할 때 호랑이가 함께 등장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도(道) 닦는 사람은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일상(日常)속에서 지혜의 눈으로 참구하고 법을 보시한다.

예로부터 도(道)를 성취한 대선지식(大善知識)들이 용맹정진 한다는 것도 바로 이 호랑이의 기상처럼 용감하게 참구한다는 뜻이다.

백천만겁에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나 달력이나 넘기면서 호구지책(糊口之策)에만 메여서 살아야 되겠는가.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정진하고 지혜롭게 살며 일편단심 도(道)에 드는 마음으로 화두를 참구하면 반드시 견성 성불한다.

물질의 복은 껍질이고 마음의 복은 복의 내용이다.

코로나 병이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복(福)의 내용을 채우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부대중들이여! 쉬지 않고 참구하여 육체에 코로나도 이겨내고 마음에 깨달음도 얻길 바란다.

바른법으로 정진하라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실상은 이름과 모양을 떠나 있고 법신은 자취가 없건만 인연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거울 속의 모양이 있다가 없어짐과 같구나.

모든 분별은 중생의 망상이라.

대상을 따라가는 대립된 경계에서 벗어나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 덧없는 세월을 한탄하지 말고 한결같은 신심으로 오늘을 준비하십시오.

계를 지니고 기도와 선정을 닦으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재산이며 수행과 기도가 진정한 보배임을 알아 자기를 깨닫는 공부를 하여야합니다.

고통 없이는 어떤 행복도 없으니 고집과 아집을 떠나, 자비의 삶을 사는 가운데 새해의 대문이 열립니다.

기나긴 꿈속에서 깨어날 인연을 만났으니 오직 바른 법에 의지하여 정진하십시오.

실천적 삶으로 위기극복

법공 정사
총지종 종령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불자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널리 비추어져서 일체의 곤란과 액난이 소멸되고, 마음에는 밝고 큰 지혜의 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가 고(苦)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겪는 인생고(人生苦)는 누구도 피해 갈 수 없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두가 겪는 중생의 공통된 인연사(因緣事)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개고(一切皆苦)는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나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로써 고난과 괴로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역설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일체중생이 빈곤과 가난, 질병과 고통에서 해탈하는 한 해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지난해에 어려움이 컸지만, 올해는 일체의 곤란과 액난이 일어나지 않고 일체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져 안락과 평온이 넘쳐나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眞如苑 원주 眞澄寺 수좌 대승정 이토신소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번영과 불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등 여러 문제로 인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중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영조 쇼쥬신인의 ‘용상(湧祥)의 송(誦)’이 마음에 울려옵니다.
“현(顯)에서 밀(密)로 들어가 올바르게 수행하여 세상을 위해, 사람을 위해 올바르게 길을 관철하라” 현(顯)이란 경(經)과 의례이며, 밀(密)은 그 말이나 형태를 초월한 진리를 이끌어내 는 것입니다. 자리(自利)에서 이타(利他)로, 만물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을 비추는 보살도를 관철해갑시다.

무심無心하면 자비慈悲는 연꽃으로 변한다

(사)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희망찬 임인년 새해가 세상을 향해 힘찬 첫 걸음로 밝아 왔습니다. 만약 여기서 분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처가 부서져서 마군이가 되는것요, 참으로 무심하다면 악마의 지독한 화살은 자비스러운 보살의 부드러운 연꽃으로 변할것입니다. 불자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함께 지혜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수 있도록 실천해야 할 이일 것입니다. 불교의 기본 가르침은 오직 하심 뿐일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은 자신을 낮춰 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화합하여 갑오년 한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태양이 힘차게 솟아 올랐습니다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조화(造化)를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연기론(緣起論)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때 무궁무진한 화엄의 세계를 열어 진정한 행복과 환희심을 느낄수 있습니다. 올해 임인년도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퇴치는 물론 경제 · 교육 · 부동산 · 문화 등에서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사업을 펼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수준 높은 질적 삶을 도모해야 합니다. 어떠한 난관도 부처님의 순일한 정신과 지혜를 모은다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맑고 밝은 지혜와 무량한 복덕으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재난과 고통을 여의고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는 희망찬 임인년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의 새해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와 혼돈의 나날 속에 우리 삶의 현장은 살아 있는 경전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처럼 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같이 흐르는 마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불변하는 자기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인년 한 해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밝은 새해를 열어 갑시다.

새해 해조음을 타고 밀려오는 광명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보살의 자비행입니다. 묘법연화경의 대광명입니다. 거짓 나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마음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귀로 듣고 마음을 씻으십시오. 높이 높이 오르십시오. 무명을 깨고 나오십시오. 묘법의 평등대혜가 온 세상에 펼쳐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부자(父子)간에, 형제간에, 부부간에, 친족간에, 이웃간에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며 탐욕도 성냄도 벗어 놓고 증오하지 말며, 안색은 화평하게 하고 아상을 버리고 하심하는 마음으로 행하면 만인의 존경을 받습니다.

청정불심과 자긍심으로 극복하는 한해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호랑이처럼 기운찬 임인년의 새해 찬란한 태양이 동녘에서 떠올랐습니다. 불자님 가정 소망하시는 모든 일 원만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못지않게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정한 불심과 자긍심으로 모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위엄과 용맹함, 지혜를 수호하는 영물입니다. 용감무쌍하고 뚝심 있는 호랑이처럼 우리에게 또 한 번 닥쳐온 시련과 현실을 슬기롭게 부딪쳐 상생 도약하는 기쁨의 광명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쌍차이변雙遮二邊이 쌍조이제雙照二諦다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각몽 혜승



구래부동여여불(舊來不動如如佛)이니 심기명정에 쌍차이변하고 정입중도에 쌍조이제니라(心旣明淨에 雙遮二邊하고 正入中道에 雙照二諦니라. 마음이 이미 맑고 깨끗해지면 양변을 다 막고, 바르게 중도에 들어가면 두 법을 다 비추느니라. 현실세계란 전체가 상대적 모순이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어둠과 밝음 등 이들은 서로 상극이며 이 모순과 대립이 바로 투쟁의 세계이니 투쟁의 세계는 우리 종교인의 참 목표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의 세계는 모든 상극의 차별 세계를 버려야 함이니, 양변을 다 버리면 쌍차이변(雙遮二邊)의 세계가 쌍조이제(雙照二諦)가 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여 정법안정의 지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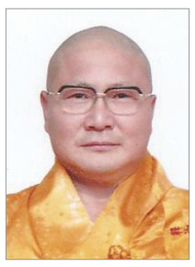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국난극복의 저력과 중심축은 불교가 해법입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온 세계가 갈등과 전쟁이 없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 해를 두 손 모아 바라옵니다. 더불어 전국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나투어 행복 가득하시기를 합장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불교가 세계 일류 종교로 힘차게 나아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불교인들이 오직 신심과 용맹 정진으로 일체의 단합과 화합으로 솔선수범하여 정법 안정의 지혜를 모아 반드시 더 큰 한국불교 발전을 다 함께 열어갑시다.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다.
心自本來心(심자본래심)
本心 非有法 (본심비유법)
有法有本心 (유법유본심)
悲心非有法 (비심비유법)

마음은 본래가 마음이라서 본래의 마음은 법이 있음이 아니며, 법이 있으니 본래의 마음이 있음이요 마음이 아니면 법 또한 있음도 아니네.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의면 달리 법도 부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임인년(壬寅年)에는 우리 모두가 부처님 마음으로 한 해를 보냅시다.

좋은 일, 나쁜 일, 내가 뿌린 씨앗

한국불교 현조계종
종정 무비 도현



如來立敎에 其法有三하니
一曰戒律이요 二曰禪定이며
三曰智慧이니 然이나 非戒면
無以生定이요 三法이 相資하야
一不可缺而 皆稱爲學者라

여래께서 가르침을 세움에 그 법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계율이라 말씀함이요 둘은 선정이라 말씀하였으며 셋은 지혜라 말씀함이니, 그러나 계율이 아니면 선정이 생길 수 없음이요 선정이 아니면 지혜가 생길 수 없음이니라. 세 가지 법이 서로 도와서 하나도 결핍됨이 없어서 다 학문이라는 것이 된다고 일컬음이라.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석성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안녕과 불교의 중흥을 위해 애쓰신 대덕스님들과 불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불교는 역사적으로 늘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 마다 항상 나라와 국민의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국가적 위기도 부처님의 동체대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온 국민과 함께 대동세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우리 스님들과 불자들의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너희들 생명 그대로의 모습

(사)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물질은 그 자신의 성질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 성질을 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오직 마음이다. 마음으로 건강을 생각하면 건강이 나타나고, 마음으로 아품을 생각하면 아품이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영화(瑛畵)의 스크린에 장사(壯士)를 비추면 장사가 나타나고 병자(病者)를 비추면 병자가 나타나건만, 영화의 필름은 본디 해맑아서 장사도 병자도 없는 것을 다만 그 해맑은 필름 위를 덮은 인화액(印畵液)으로된 여러 가지 모양, 장사, 혹은 병자를 나타냄과 같다. 만약 영사기에 인화액의 작용없는 빈(空) 필림을 걸어봐라. 그때 그 스크린에 떠오르는 건 장사도, 병자도 아닌 오직 광명일 뿐, 그 광명은 너희들 생명 그대로의 모습과 같다.

세월 따라 인연 따라갈 것을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세월 따라 왔다가 세월 따라갈 것이, 밝은 달은 비추고 맑은 바람은 떨치도다.
비록 본래 한 물건이 없다 하지만 봄이 오면 옛날을 의지해 초목이 스스로 일어나도다.
구름이 같다가 구름이 올 것이 허공에는 오고 간 자취도 없도다.

묵은 해는 가고 새해 오니, 탐 진 취 삼독을 버리고 원하는 바 모두 이루어 행복한 한 해가 되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탈진어복脫珍御服 착폐구의着弊垢衣

대한불교 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2022 임인년 흑호랑이 용맹한 새해 우주본래법신불,위신력의 광명력으로 이 나라에 큰 번영을 이루어지이다. 탈진어복(脫珍御服)하고 착폐구의(着弊垢衣)니라. 보배의 옷을 벗어놓고 때 묻은 옷을 입었구나. 진어복이란? 천자가 입는 보배 옷이며, 상근기 사람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폐구의란? 어리석은자 입는 남루한 더러운 옷이며, 중하근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부처님께서 성도하신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법적멸(諸法寂滅)은 불가언설(不可言說)이라. 아불설법(我不說法)하고 질입열반(疾入涅 槃)이니라. 모든법의 적멸상은 말로서 설명 할 수 없으며. 여래는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가는 것이 나으리라.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서호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19로가 종식되고 전국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싸우고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름이니 서로의 마음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습니다. 본래성불의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정진합시다!

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동건 법경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새해에는 모든 불자들의 가정과 모든 사부대중들께서 부처님의 가르침를 바르게 믿고 다함께 정진합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청정한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이 드러나면 다툼 갈등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웃음과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널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불자들께서는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화합해야 합니다.서로 양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참회하고 자비의 마음으로 불우 이웃을 위해 모두 정진합시다. 내 가족, 이웃, 사회, 국가와 민족 인류의 평화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 내실을 다져 인격을 완성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부대중 및 불자 가정마다 항상 가득하시기 서원합니다.

비로광명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길

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무원장 자운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한발씩 물러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모든 이가 하나로 뭉쳐 화합된 사회가 조성되어 모든 국민과 우리 불자들이 마음 편히 생업에 종사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기를 기원해봅니다. 모쪼록 새해에는 어려운 모든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환하게 웃는 해,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는 해의 원년이 되어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사람은 고요할 줄 알아야 한다

(사)국제불교승가회 대광불교조계종
종정 덕산



사슴을 쫓는 자 큰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 하노니 탐욕이 극에 이르면 곧 밝음이 어두워 지니라
큰 상인은 상품을 과장하게 진열치 않으며 어진 사람은 능함이 많아도 그 재주를 나타내지 않는다. 고로 사람이 고요할 줄 알면 곧 평화를 얻는 지름길이다. 요즈음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는 말이 널리 쓰여지는데 그것은 어둡고 사사롭고 한 옛것을 과감히 깨뜨리리다 보면 드디어 밝고 어질고 바른 것이 들어난다는 말입니다. 신뢰를 잃어가는 인심, 무너져가는 윤리도덕, 불안한 사회 그것을 밝힐 수 있는 빛은 태양이나 동력에 의해 얻어지는 빛이 아니라 나의 빛으로 시작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寸陰을 아껴 成佛합시다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현묵혜승



삼계유여급정륜(三界猶如汲井輪)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길은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길입니다. 만일 금생에서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후생에 이르러서 끝없이 한탄하리니라. 백천만겁역미진(百千萬劫歷微塵)백천만겁 미진수를 지내어왔네! 차신불향금생도(此身不向今生度)이 몸 금생에 제도하여 닦지 못한다면 갱대하생도차신(更待何生度此身)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겠는가 사람몸 받았을 때 촌음을 아껴열심히 정진하라는 것입니다. 惜寸陰歲不延 이라 촌음을 아껴 쓰라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길은 시간을 더욱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길입니다. 만일 금생에서 이 도리를 깨우치지 못한다면 후생에 이르러서 끝없이 한탄하리니라.

大衆은 圓融和合의 回向

대한불교 원효종
종정 성우 자운



歸依 三寶 하옵고
壬寅年 한 해도
더욱 精進하며
大衆은 圓融和合의 回向
있으시길 發願합니다.

古佛未生前
凝然一相圓
釋迦猶未會
迦葉豈能傳
옛 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석가도 몰랐거늘 가섭이 전했으랴.

일상 평온 찾아들길 희망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2022년 새해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힘겨운 상황이 진정되어 우리의 일상도 평온과 안정이 찾아들길 희망해 봅니다.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였으며,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셨는지요.

〈중대가전연일야현자경〉에는 '오늘 할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 누가 내일의 죽음을 알 수 있으랴' 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희망찬 새해는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바라며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발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평화 위해 한 걸음 내딛자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월우 스님**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2022년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에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변수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차기 정부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의 공과를 꼼꼼히 따져보고 현 시국을 타개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긴장감이 높아질수록 늘 평화를 발원하곤 합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늘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북은 결코 불이(不二)의 대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평화를 위해 한 걸음 내딛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교사회복지 발전 위한 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새희망으로 시작하는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복지기관들의 서비스제공 방식은 변화 되었습니다.

2022년은 복지서비스 확대와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해 취약 계층의 디지털 역량 활용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재단과 산하시설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불교복지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뒤처지지 않고, 계속된 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단은 사회복지와 불교의 자비실현의 가치를 구현하며, 불교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위기에 빛나는 참다운 불자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



위기 속에 더 큰 자비로 세상을 비추는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지난 한 해 아름다운 동행은 어렵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한 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참다운 불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한 걸음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름다운동행은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계층에게 꼭 필요한 지원으로 소중히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 대표 모금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 가내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욕지족으로 기후위기 극복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지금 우리는 산업화 이후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지구 평균온도가 1.1도 올라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부분별한 자원개발과 생태계 파괴, 남획 등으로 지구상의 여섯 번째 대멸종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더 많이 생산하고 끊임없이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대지와 토양과 강과 바다가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사회적 대전환을 이루는데 함께 노력하는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호랑이같은 인재 불사 기원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장 **성행 스님**



코로나 19의 위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지구촌 어느 곳에 살든,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헐벗고 굶주리지 않고, 병마에 시달리지 않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은 누구나 소중한 내 자식이 아프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임인년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몸놀림이 빠르고,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을 지녔습니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올 한 해 건강한 몸으로 호랑이처럼 날쌔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소년에 희망 선사하자

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지현 스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그동안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청소년에게 심어주기 위해 매진해왔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인구가 대폭 줄었습니다. 사찰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보기가 매우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사찰법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학교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가상의 공간에서라도 청소년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파라미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대면활동과 비대면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지혜롭고 자비로운 청소년을 기르는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임인년에는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정마다 만복 충만하길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존경하는 불교도 여래 사도여, 신년에는 분단의 국토에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교전래의 역사를 바르게 성찰하고 부처님의 정법을 올곧게 펼쳐야 하겠습니다.

불교전승을 위하여 우리 불교도여래 사도들이 일치단결해야합니다. 특히 인권이 존중되는 참 세상을 위해 우리불교도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평등을 말합니다. 평등한 삶의 존재를 이 국토에 실현하기 위한 수행 공동체의 정신을 불교여래 사도들이 실천해야 합니다.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교 여래 사도들에게도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자 합심하여 외호에 힘쓰자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지난해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공당의 국회의원이 우리 불교를 왜곡하고 폄훼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편향적인 일들이 발생되어 전국 불자들의 공분을 사고 실정이며, 이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의 사부대중이 중심이 되어 범불교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전국에 계신 불자들은 더욱 합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와 함께 하셔서 성불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국민 위한 의정활동 박차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



잦아들 것 같던 코로나 19가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지난해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어려움에 맞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 경험이 많습니다.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함께 힘을 모아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냅시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공동체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갑시다.

국회 정각회도 더욱 정진하여 청정법안(淸淨法眼)을 기르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건학이념 내재화 해로

윤성이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2021년은 건학이념 구현의 원년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구체화되고 시행될 것입니다. '삶 속 불교' 의 생활화를 통해 건학이념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한 걸음씩 나아갈 것입니다. 동국인 모두가 불교정신을 가슴에 품고 교육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우리의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시대를 선도하고, 공헌으로 존경받는 대학' 을 향한 동국대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도전의 주인공은 바로 동국가족 여러분입니다.

호랑이 기상으로 어려움 극복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단절하고 생업이 위협받는 상황에 불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았을 줄 압니다. 또한 포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스님들께서도 무척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도 처음 접하는 코로나 환경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온라인 실시간 수업 시스템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했습니다. 새해에도 불자님 모두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불자공동체 공익 활동 앞장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어느때보다 치유와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불교리더스포럼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치고 힘든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고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사회 각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자들과 함께 사회공동체로서의 공익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성을 마친 5기 임원단은 교구별 임원단과 함께 활동을 전국적으로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우리들의 불심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교지평 넓히는 한해로

김영석 포교사단장



지난해 어려운 사회적 여건에서도 포교활동에 힘쓰신 모든 분들의 공덕에 찬탄을 드리며 저희 포교사단을 늘 지지하고 격려하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부처님 가피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탈종교화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포교사단은 군포교 등 각 분야 334개 팀 5000명의 포교사가 전국 13개 지역단에서 포교활동 하고 있습니다.

포교사단은 창단 21년의 포교경험과 원력으로 임인년 한해에도 포교활동의 지평을 더 넓게 더 크게 포교 활동하고자 합니다. 새해 포교사와 불자님들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나눔의 공동체 구성하자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해를 맞아 힘든 고난을 극복하고, 비상의 날개를 달고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를 뒤덮은 감염병으로 일상은 단절되었고 경제는 추락했으며 질병의 위협으로 불안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 속에서 불교는 피해를 감수하며 안전과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자비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아갑시다! 새로운 여명의 희망처럼 빛나는 보살행으로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국민 마음, 희망 연꽃 피길

손창동 공무원불자연합회장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국민종교이며, 종교를 넘어 문화이자 생활 그 자체라 하겠습니다.

불자들은 예로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들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나라와 국민들이 하루 빨리 현재의 국난(國難)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는 모든 불제자들이 본래 부처인 자신을 바로 보고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면서 함께 행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원합니다.

한국불교 위상 제고 토대 마련

이재홍 국제포교사회장



국제포교사회는 지난 23년간 축적해온 좋은 전통을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국제포교사회는 회원과 집행부가 힘을 합쳐 새해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로 종단과 회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 법회 및 행사의 수준을 질적 양적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둘째, 회원들의 포교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와 봉사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국제포교사회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타불이 보살행 앞장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낱낱이 드러내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극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사회 안전망 밖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명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물질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을 우선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토에서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아는 우리 불자들이 자타불이의 보살행으로 중생의 고통을 멸하기 위한 길에 앞장서야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학생 포교 사명 발현

안현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대학교는 아직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은 여전히 캠퍼스에 발을 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함께 나누고, 절망에 빠진 이들을 부처님께 인도하게끔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역할이자 사명임을 잊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직접 만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덕을 쌓으며 사회와 발을 맞추어 나아가도록 노력할 것을 발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알리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정진으로 苦海를 건너자

신성민 한국불교기자협회장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3년이 되어가는 지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 신행활동이 위축됐고, 불교 언론들도 취재 보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격변하는 미디어 트렌드도 불교 언론이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불교 언론인으로서 불법(佛法) 수호와 홍포의 사명에 따라 근면하게 정진할 시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와 뉴미디어 혁명이라는 파고를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신년은 호랑이 기운을 받아 불법 수호와 홍포의 원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사부대중일동

정토만일봉사회 · 53구법성지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30-34
전화 055)672-0078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금음산 불 인 사

주 지 **송 산**

고불학당(불교대학)
불인사 파라미타

신 도 일 동

경남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6번길 3
전화 055)343-1638 팩스 055)343-1637

대한불교조계종
가야불교 중흥발원도량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경전반

주 지 **도 명**

신도회장 조성진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원장 **법공**

총무스님 길상 등명
사단법인 이사장 선건
사무국장 이수홍 감사 장임순, 제효정
고문 김영준, 이재우

사단법인 봉화산정토원신도봉사회
회장 이장명
부회장 박영옥 이수홍, 총무 김지원
지도법사 황재연 조세균, 간사 김대진

메아리음악단 단장 김수복

신도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전화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한국불교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밀양 법 성 사

주 지 **만 우**

신 도 회 일 동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2길 159-11
전화 055)351-0374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심 적 정 사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133번길 15
전화 055)973-1388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동진, 오심, 동주,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전화 055)382-7081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전화 052)262-0518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 지 **월 암**

신 도 회 일 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전화 055)835-8656

대한불교조계종 13교구 쌍계사 말사

통영 대 성 암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통영시 남해안 대로 654(무전동)
전화 055)643-2186

대한불교조계종

두 타 사

불 사 회
두 타 회
단 나 회
108산사순례단
가릉빈가합창단
통영해병전우회

해병 영혼의집

사 부 대 중 일 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전화 055)648-1477, 648-1366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 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한국불교태고종

밀양 약 수 암

주지 **환 명**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국전로879-119
전화 055)356-1844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 각**(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덕우**(운수사)
감 사 **자명**(무봉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무상행**

사부대중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031)426-366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주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한문화체험관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고담,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기획이사 마나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이사 일동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부산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 2층(수정동, 은정빌딩)
전화 051)853-0429 팩스 051)853-0439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지 목종

사부대주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부산교수불자연합회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7268-9959 (회장 장상목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地藏佛教根本道場 대연정사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초하루법회 - 음력 1일 오전 10:00
지장재일법회 - 음력 18일 오전 10:00
신도회 법회 - 음력 6일 오전 11:00
어린이 법회 - 2,4주 일요일 오전 10:00

부산시 남구 진남로 69번길 8 (대연동)
전화 051)625-3886
www.dytemple.net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 소 원

상담 · 봉사
수행 · 후원

이 사 장 **장유정**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전화 051)508-4509 팩스 051)508-4870

보현행원으로 보리이루리

무 량 사

주지 **법 천**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로 59-9번길 온천2동
전화 : 010-2426-176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관음도량

계 명 암

감원 **선 재**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전화 : 051)508-4345

한마음 건축

건축 인테리어
설비·배관 리모델링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725(염포동)
전화 052)289-1276
이메일 sxo1213@naver.com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금정구 불교연합회

고 문 경선(범어사) 춘광(광명사)
계천(국청사) 월인(승가종 종정)
동원(연화종 종정)
회 장 고담(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혜창(원효사)
부 회 장 법일(법장사) 홍일(법전사)
사무총장 동암(금용사)
감 사 운곡(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대운사)
사회국장 혜공(구룡사)
포교국장 현수(홍법사)
재무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천불정사)
회 원 승공(칠보사) 진여(다보사) 청명(분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전화 051)583-9233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범산, 명현, 성문,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송재린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감 사 강재실 이수임
부단장 서영우 이양희 임한규 주태돈
사무국장 강태산
총괄팀장 최정자 황용대 조봉례 김영신 천경덕
김옥희 윤영준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동명불원
부 회 장 도오정사 남도심인당
법 천 소원사
감 사 능 후 대연정사
대 각 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무국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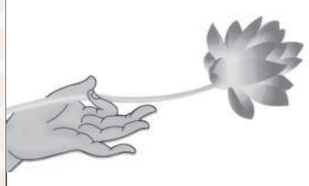
신도회장 신선덕행
부 회 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진 광
종무국장 도 오
신도회장 인 덕 륜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전화 051)464-0668

부산광역시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운영위원장 혜총 대종사
회 장 차정연
수석부회장 이석래
부 회 장 김윤선,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양은순, 윤기선, 윤유점, 이순선, 이초우. 최선희, 보혜스님
편집주간 양원식
사무국장 양 기
재무국장 김현옥
편집국장 이소정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지 청 암 자 관
총무 정 웅

신 도 일 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지장기도도량

천 불 정 사

주 지 선 묵 고 담
법 사 범 성
원 주 조정자

신도회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총무 김영애
거사림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산 **홍 제 사**
황령선원(재가선원)

회주 금아 혜국
주지 성문

매월 음력 초하루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신중기도 (3일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 ❖ 노인요양시설 효림원(부산)
- ❖ 정토노인복지센터(부산)
- ❖ 노인요양시설 정효원(제주도)
- ❖ 무료양로원 법성원(충주시)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전화 051)802-0130 / 팩스 051)804-1037
www.hjsa.or.kr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맑고 향기로움이 머무는
백옥 부처님 천불도량

봉화산 **길 상 사**

주지 자 인

연등회 회원일동
관음회 회원일동
지장회 회원일동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촌소류지길163-4(송정동)
전화 051)973-0408, 5224
팩스 051)973-3076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각 사

범어사 정통 호국무예
세계금강승불무도협회
달빛명상센터

주지 안 도

매월 음 14일 달빛 걷기명상
매월 음 15,16,17일 달빛 다라니기도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장산마을
전화 051)701-8827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8



▶ 49회 예고

아쇼까 순행단 일행은 수나빠란따국 왕과 상인수장의 안내를 받아 숫빠라까 도시에 들어간다. 빠딸리뿌뜨라 못지않게 발달된 도시를 보고 모두 놀란다. 아쇼까는 지난번에 잃었던 정찰조 군사들을 되찾고는 더욱 기뻐한다.

아쇼까, 순행 길에 해적 소탕하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의 보고를 받고는 분기탱천했다. 사바르마티강 강변 해적촌에서 겨우 탈출해온 선봉대장을 나무라기보다는 자신의 권위를 손상한 해적들을 몰살시켜버리겠다고 분개했다. 선봉대장은 숫빠라까 항구까지 정찰하지 못하고 돌아온 자신을 자책했다. 숫빠라까 항구까지 가서 수나빠란따국 왕을 만나고 와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쇼까는 측근심복인 늙은 선봉대장을 위로했다.

"다른 사람보다 대장을 잃었다면 나는 실망이 더 컸을 것이오. 지금 대장이 내 옆에 있으니 그나마 위로가 되오."

"부왕님이시여, 예부터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소장은 한밤중에 경계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버린 실수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경계를 섰던 정찰조 군사들의 잘못이 크오. 그런데 정찰조 군사들은 이미 해적들에 의해 대가를 치렀소."

"아닙니다. 소장을 문책하여 주십시오. 소장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부왕님을 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오. 이번 정찰이 실패한 것 같지만 사바르마티강 강변에 해적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큰 성과요."

아쇼까가 선봉대장의 정찰 실패를 문책하기는커녕 용서해주자 경비대장과 호위대장도 한마디씩 거들었다.

"선봉대장님, 소장이 더 잘 모시겠습니다. 소장은 대장님께 아직도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베디샤나가르 지형정찰 때 저는 호위대장으로서 작전상 용의주도하지 못했는데 대장님께서는 치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왕님 곁에 더 계셔야 합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가 주재한 대장회의에서 지형정찰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임되었다. 다만 순행시기 문제는 대장들끼리 이견이 생겼다. 호위대장은 건기가 곧 끝나니 다음해 건기 때로 순행을 늦추자고 말했다.

"지금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하신다면 돌아오실 때는 혹서기일 것입니다. 혹서기 더위는 맹수보다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밤에만 행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며칠 만에 부왕님과 군사들은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경비대장은 이동을 빠르게만 한다면 혹서기가 막 시작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병만 차출해서 순행하면 얼마든지 이동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혹서기가 시작하기 전에 웃자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더구나 선봉대장께서 발견하신 해적촌은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순행 길에 해적촌을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아쇼까는 해적촌을 불살라 없애버리자는 경비대장의 말에 공감했다. 정찰조 군사를 노예로 팔아넘기고 지형정찰을 방해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수나빠란따국은 마우리아국에 복속된 나라인 까닭에 아쇼까 마음대로 중죄인을 처형하고 재산몰수를 명할 수 있었다.

순행하기 좋은 건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아쇼까는 순행을 서둘렀다. 늙은 선봉대장은 제외시켰다. 기병 군사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므로 늙은 선봉대장이 동행하기는 무리였다. 대신 선봉대장은 웃자인에 남아 경비대장의 임무를 대리케 했다. 경비대장은 하인 길잡이를 앞세우고 정찰조로 나서고, 호위대장의 군사는 아쇼까 부왕을 전후에서 호위하기로 했다. 순행 길에 동행할 데바 상인수장도 선봉대장의 정찰조 군사들이 해적촌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데바는 아쇼까를 만나 건의했다.

"저의 산치 절에는 비베깐난다 사문이 계십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문입니다. 사문을 데리고 가시면 순행 길이 무사할 것입니다."

"사문이 기도해서 순행 길이 무사하다면 마땅히 데리고 가야지요."

마침 비베깐난다 사문은 데비 별궁으로 마힌다를 축원해 주러 와 있었다. 데바는 즉시 데비 별궁으로 가서 비베깐난다 사문을 만났다. 그런데 비베깐난다 사문은 데바가 부탁하자 선선히 허락했다.

"수나빠란따국으로 간다구요? 언젠가 소승이 꼭 순례하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잘 됐습니다."

"소승은 고타마 붓다의 제자 뿐나 사문님이 교화를 펼쳤던 수나빠란따국으로 가서 여생을 마칠까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데바 상인수장님을 따라 내 고국 앙가국 짬빠에서 산치까지 내려왔던 것입니다."

"뿐나 사문은 수나빠란따국 출신이었습니까?"

"수나빠란따국 숫빠라까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뿐나 사문님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을 불법에 귀의시킨 분입니다."

데바와 비베깐난다 사문 간에 오간 이야기를 옆에서 다 들은 데바 부인이 말했다.

"사문님이 기도해 주시면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무역 일도 잘 성사될 거예요. 저는 사문님께 감사드릴 뿐이에요."

데바 부인이 고마워하자 비베깐난다 사문이 두 손을 이마까지 올리며 합장했다. 데비 역시 순행 길에 비베깐난다 사문이 동행한다는 말을 듣고 안도했다. 남편 아쇼까 부왕과 아버지 데바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드디어 아쇼까는 수나빠란따국으로 순행을 떠났다. 지난번에 지형정찰을 떠났던 하인이 다시 길잡이를 했다. 하인 길잡이는 경비대장과 함께 말을 타고 달렸다. 물론 물소가죽으로 만든 말고삐는 그가 잡았다. 아쇼까 부왕은 일산을 펴지 않은 채 날쌘 코끼리를 탔다. 부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산이지만 속도를 내서 달리려면 펼 수 없었다.



아쇼까 순행 일행은 밤잠을 줄이면서 서남쪽으로 이동했다. 몇 개의 강을 건너자 수나빠란따국이 나왔다. 사막과 황무지가 이어지고, 열풍이 수시로 부는 나라였다. 하인 길잡이가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큰 강이 나오고 나무와 풀이 자라는 들판이 나옵니다요. 지금 부는 열풍은 혹서기가 되면 흑풍으로 바뀝죠."

"혹서기는 피해야 되겠군."

"그렇습죠. 혹서기에는 풀들이 말라버리고 들쥐들이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요."

멀리 나무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사바르마티강이 황무지 사이로 흐르고 있었다. 하인 길잡이는 스스로 놀랐다. 밤낮 없이 달린 끝에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바르마티강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하인 길잡이가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님,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합니다요. 해적촌이 저 위쪽에 있습죠."

"지난번에 우리 군사를 살상한 해적들이 사는 마을이군."

"그렇습죠."

"숫빠라까 왕은 어째서 해적들이 그곳에 사는 것을 묵인하고 있는가?"

"상인들이 먼 바다로 나갈 때 해적들이 길잡이도 돼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들에게 터를 내준 것 같습니다요."

"서로 돕고 사는 셈이군. 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니 응징을 받아 마땅하지."

경비대장은 손을 들어 뒤따라오는 순행 군사들을 멈추게 했다. 그런 뒤 아쇼까에게 달려가 말에서 내린 뒤 보고했다. 아쇼까 뒤에서 군사들을 지휘하던 호위대장도 걸어왔다. 아쇼까는 코끼리에 탄 채 보고를 받았다.

"이곳에서 숙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가면 해적촌이 가까우니 위험합니다."

"나는 해적촌에서 자고 싶네."

호위대장이 말했다.

"지난번에 우리 군사가 당한 곳입니다. 또 당할 수 없습니다."

"대장은 생각이 짧소. 해적들을 몰살시켜버리면 편하게 잘 수 있지 않겠소?"

"예, 알겠습니다."

아쇼까는 즉시 해적촌 소탕작전을 짰다. 한밤중까지 군사들을 촘촘히 횡대로 배치한 뒤 해적촌으로 들어가 불을 질러 해적들을 몰살시킨다는 소탕전이었다.

"해적 가족,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시오."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아쇼까는 임시숙영지에 비베깐난다 사문, 데바 상인수장과 함께 남기로 했다. 해가 지자 기온이 빠르게 떨어졌다. 작전 중이므로 화톳불을 피울 수 없었다. 아쇼까와 비베깐난다 사문은 긴 쇼올을 몸에 둘렀다. 데바는 벙거지 같은 모자를 눌러쓰고 겉옷을 하나 더 껴입었다. 아쇼까를 지키는 호위군사들은 임시숙영지 사방에서 경계를 섰다. 달이 중천에 떠서 달빛을 뿌렸다. 순찰을 도는 호위군사 조장의 발걸음 소리가 자박자박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곤 했다.

이윽고 해적촌 쪽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호위군사 조장이 아쇼까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부왕님, 해적촌 소탕작전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나도 불길을 보고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임을 알았네."

아쇼까의 예상대로 해적촌 소탕작전은 한 치의 틈도 없었다. 경비대장의 군사들이 마을에 잠입해 불을 질렀고, 호위대장의 군사들은 해적촌 밖에서 은폐하고 있다가 도망치는 해적들을 잡아죽였다. 해적들은 불길에 타죽거나 뛰쳐나왔다고 하더라도 호위대장 군사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 쓰러졌다. 조장 한 명은 해적들의 사지를 찢어 나뭇가지에 걸었다.

수십 채의 해적움막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타다 만 시체들은 노린내를 심하게 풍겼다. 수색은 달빛이 밝아서 용이했다. 그러나 경비대장과 호위대장 군사들은 수색을 하려다가 중지했다. 잔불까지 꺼진 잿더미이지만 열기가 확확 끼쳤다. 호위대장이 경비대장에게 말했다.

"몰살입니다."

"내가 보기에도 개미새끼 한 마리까지 다 불에 타 죽은 것 같소. 부왕님께 보고하고 오겠소."

"소장은 여기서 더 수색을 하고 있겠습니다."

경비대장은 몇 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쇼까가 머물고 있는 임시숙영지로 달려갔다. 아쇼까의 임시숙영지도 몇 개의 작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아쇼까가 군사들에게 화톳불을 피워도 좋다고 허락했기 때문이었다. 비베깐난다 사문과 함께 화톳불을 쬐고 있던 아쇼까가 경비대장을 맞았다. 경비대장이 보고했다.

"부왕님이시여, 이제 해적촌으로 가셔도 됩니다."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작전이 성공했음을 알았소."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응징했습니다."

"웃자인으로 돌아가면 포상을 하겠네."

그러자 옆에 있던 데바가 말했다.

"포상금은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순행 군사들이 강변에 거주하는 해적을 소탕해주었으니 상인수장으로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적은 바다에만 있지 않았다. 무리지어 땅으로 올라와 우기와 건기를 나기도 했다. 그럴 때는 대상들의 물건을 갈취하는 도둑떼와 다를 바 없었다.

"하하. 그래주시면 군사들의 사기가 더 오를 것이오. 숫빠라까에서 그곳 상인수장을 만나 반드시 성과가 있기를 바라오."

"부왕이시여, 고맙습니다."

아쇼까는 숙영지를 해적촌 부근 강가로 옮기라고 명했다. 군사들의 수통에 물을 채워야 했고 내일 아침 끼니를 해결하려면 강물이 필요해서였다. 잠시 후 아쇼까 순행 일행은 사바르마티강 강변으로 숙영지를 이동했다.〈계속〉

코로나 종식을 발원하며
임인년 새해 희망을 전합니다!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견불사 · 실상선원 · 사천왕사 / 부산포교원 대각정사 · 대법화원
대풍범각 · 사부대중 합장

YouTube 대풍범각TV 대풍 범각스님의 진심법문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전화 055)352-3104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부산광역시 영도구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 성 큰스님
정 각 큰스님

고 문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회 장 호법
부 회 장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현여
사무총장 석인정사
이 사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감 사 해암, 혜진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발원사內 전화 051)405-2326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김유리자 강명자 김정순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부 회 장	윤미자
음악선생	임춘지
감 사	윤정희
총 무	강행순
재 무	안상희
팀 장	신미자 최옥희 최말순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자문위원 보운스님(금용암)
정산스님(마하사)
회 장 보당스님(보국사)
수석부회장 법승스님(화엄사)
상임부회장 월광스님(보은사)
부 회 장 동선스님(내원암)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불심사)
법진스님(고운암)
사무총장 눌은스님(해련사)
감 사 지공스님(불이중도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131-3 보국사 內
전화 051)861-6961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상호 박효근 윤경석
회 원 강석진 곽방보 김선조 김인석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오식
이정출 이학우 진남일 최대경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전화 051)334-0108 팩스 051)867-4397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산청보현사 주지 도일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해운대 여여선원 주지 도우
거제 여래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
동래효심사 주지 효문
양산보현선원 주지 효범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 지 혜총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늘기쁜마을 관음사
cafe.daum.net/gwanumsa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전화 051)294-9300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신선덕행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문현 노인 복지관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대한불교조계종
부산하고도 사상에 있는
옥 천 사

즐겁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68번길 96-10(덕포동)
전화 010-2384-3450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김선언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찬불가지도 이복금
피아노연주 김순옥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동 국 한 의 원
(구, 홍코치한의원)

'부처님의 가피로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세요'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동삼동)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❶ 안세고(安世高)

▶김진무 교수는 동국대 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동산법문(東山法門)과 그 선사상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중국 남경대학 철학과에서 〈불학과 현학의 관계연구〉(中文)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부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 〈중국불교거사들〉, 〈중국불교사상사〉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 〈조선불교통사〉(공역), 〈불교와 유학〉 등이 있다.



안세고의 역경, 중국불교 참다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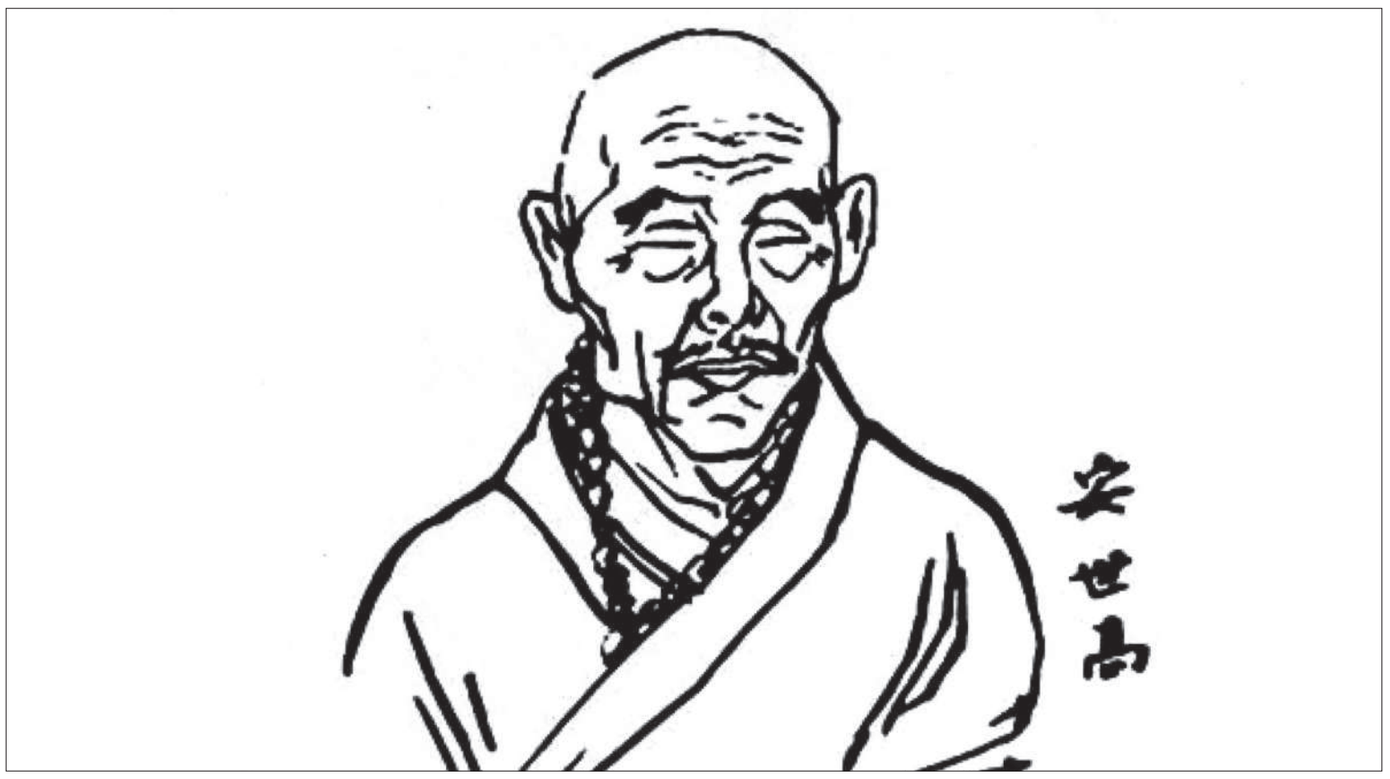
석존(釋尊)의 정각(正覺)으로부터 시작된 불교는 사상적 경향과 문화적 풍토가 다른 중국으로 전래되면서 중국 본토에 형성된 사상문화와의 충돌과 융합의 과정을 통하여 중국적 변용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용은 여러 측면에서 인도나 서역의 불교와는 상당한 차별상이 나타난다. 이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여 '비불교(非佛敎)'라고 비판되기도 하며, 특히 조사선은 노장(老莊)사상에 입각한 불교의 아류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불교와 중국선의 사상사를 전공으로 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견해들이 오히려 중국불교와 조사선을 깊게 이해하지 못함에 기인한 단견이라고 평가하며, 그와 반대로 석존께서 시설(施設)하신 교의(敎義)가 중국에 와서야 비로소 참답게 완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으로부터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歸命)하여 중국의 불교를 살아있게 만든 역대 종장(宗匠)들의 행적과 사상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불교와 조사선의 참다운 진제(眞諦)를 논하여 석존의 혜명(慧命)이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에 불교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서한(西漢)의 무제(武帝, 재위 B.C141~B.C87)에 의하여 서역과의 교통로, 이른바 실크로드가 개척되면서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서역로가 개통된 이후 수많은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당시 서역에서 유행하고 있었던 불교의 문화와 교의(敎義)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에 최초로 기록되는 것은 동한(東漢) 명제(明帝, 재위 57~75)시기의 초왕(楚王) 영(英)의 기사[영평 8년(65)]이고, 본격적인 불교의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환제(桓帝, 재위 146~167)의 건화 2년(148)에 안세고(安世高)에게 경전을 번역하라고 명한 이후이다. 따라서 중국인들에게 불교가 알려진 이후 최소한 150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역사 기록에 등장하고, 또한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환제시기에 갑자기 국가적인 사업으로 불교의 경전을 번역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지 200여 년이 지난 이후인 환제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불교가 주목받게 되었고, 국가적 사업으로 역경을 했을까?

중국은 황하(黃河)와 양자강(楊子江)과 같은 지리적인 이점으로 형성된 비옥한 땅으로 인하여 농경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문화를 일으켰고, 그에 따라 상고시대로부터 척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변의 소수민족들의 침탈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까닭에 선진시기로부터 일종의 정신적인 방어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랑캐[夷]'의 저급한 문화가 '중국민족[華夏]'의 우월한 문화를 망치기 때문에 방어해야 한다는 '이하지방(夷夏之防)'의 의식이고, 이로부터 점차 이하론(夷夏論)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까닭에 종교사상적으로 뛰어난 불교가 전래되었어도 화하(華夏)의 것이 아니기에 쉽게 수용될 수 없었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은 〈주역(周易)〉의 '풍지관괘(風地觀卦)'에서 "성인(聖人)은 신묘한 도[神道]로써 교(敎)를 세우니, 천하가 그를 따른다.[聖人以神道設敎, 而天下服矣]"라는 말과 같이 제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성인의 '신묘한 도'를 통치이념으로 설정하는 전통을 세우고 있었고, 그에 따라 열국이 각축을 벌이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법가(法家)를 채택한 진(秦)이 비록 천하를 통일하였지만, 법가 사상의 지나친 적용으로 실패하였고, 그 뒤를 이은 서한(西漢)은 도가(道家)의 황로학(黃老學)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였지만, 결국 한계를 노정하여 무제(武帝)에 의하여 유가(儒家)의 사상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유가의 통치이념도 제국을 통치하는데 실패하게 되어 서한은 망하게 되었다. 그러한 까닭에 서한을 계승한 동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황실에서는 새로운 통치이념의 수립을 위하여 이미 100여 년 전에 전래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뿌리 깊은 '이하론'에 기인한 민족적 저항감으로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후한서(後漢書)〉에 "초왕은 황로(黃老)의 미언(微言)을 읽고, 다시 부도(浮屠: 佛)를 숭상하여 사당에 모셔 신(神)과 함께 3개월을 결재(潔齋)하기를 맹세하였다."라는 최초의 기록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중국의 사서(史書)에 불교와 도가에서 중시하는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와 융합하려는 다양한 기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이하론'의 저항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황실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환제도 역시 '황로'와 '부도'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에 따라 불교가 통치에 도움이 된다는 상소가 올라오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본격적인 역경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불교경전 국가적 한역 작업
황권 차원 번역맡은 안세고
태자지위 버리고 출가 수행

이렇게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불교경전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비로소 중국불교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황권으로부터 최초로 번역을 맡은 이가 바로 안세고이다.

안세고는 다양한 전적에 그 이름이 언급되지만, 양(梁) 대 때 혜교(慧皎)가 찬술한 〈고승전〉 권1과 승우(僧祐)가 찬술한 〈출삼장기집〉 권13에 온전한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고(世高)'는 자(字), 즉 아명이고, 본명은 청(淸)이며, 안식국(安息國)의 국왕과 정후(正后)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에 따라 태자(太子)의 지위에 있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오행(五行)과 의방(醫方) 등의 다양한 분야에 뛰어났으며, 짐승들이나 새들의 소리에도 통달하여 서로 소통하였다고 한다. 또한 외국의 전적들에도 능통하였다고 하니, 어학에도 상당히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왕이 승하하자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불법에서 논하는 고(苦)와 공(空)을 깊게 사유하여 숙부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출가하였다. 출가한 이후에는 모든 경장(經藏)에 밝았지만, 특히 아비담(阿毘曇) 교학과 선경(禪經)에 뛰어났다.

그 후에 서역의 여러 나라를 유행하며 법을 펴다가 환제가 즉위한 다음해인 건화 2년(148)에 낙양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 시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권에서 불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당시에 서역으로부터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논하겠지만, 지루가참(支婁迦讖)은 안세고보다도 1년 먼저 낙양에 도착한 것과 같이 이미 많은 승려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불교를 신앙하던 이들도 존재했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안세고는 낙양에 도착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전의 번역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영제(靈帝, 재위 168~189)시기에도 번역을 지속하였지만, 그 시기에 관중(關中)과 낙양에 중대한 변고가 발생하면서 중지하게 되었다. 바로 초기 도교도들에 의한 황건적(黃巾賊)의 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교도들의 반란은 불교를 통해 새로운 통치이념을 제시하고자 했던 동한 황실을 좌절케 하였지만, 이후 남북조와 수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삼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승전〉과 〈출삼장기집〉의 전기에서는 안세고가 난을 피하여 강남으로 향했으며, 계속 남하하여 광주(廣州)에 이르러 시장에서 싸움판을 지나다가 잘못 맞아 입적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황건적의 난으로 인하여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교도들에 의하여 화를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도 해보지만,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들은 〈고승전〉에서는 39부라고 하지만, 양(梁)대까지 번역된 불전을 모두 종합한 〈출삼장기집〉의 '신집찬출경율론록(新集撰出經律論錄)'에 따르면 34부 40권이라고 하며, 진(晋) 대의 도안(道安)이 편찬한 〈중경목록(衆經目錄)〉에서는 35부 41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경전은 아함부에 속하는 17부와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 2권, 〈음지입경(陰持入經)〉 2권, 〈선행법상경(禪行法想經)〉 1권, 〈도지경(道地經)〉 1권, 〈아비담오법경(阿毘曇五法經)〉 1권 등이다.

안세고의 역경은 그의 전기에 언급되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 최초의 번역은 아니지만, 황권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에 의한 번역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중토(中土)의 첫 번째 역경가로 알려지게 된다. 이렇게 불경이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비로소 중국불교의 참다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동한 시기에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에 따라 불교가 상당히 유행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들은 주로 아비다르마에서 논하는 선정(禪定)을 중시하는 경전들이다. 특히 〈안반수의경〉은 당시에 가장 유행하였으며, 이 경전에서 논하는 '안반수의'는 바로 '수식관(數息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한다. 또한 〈음지입경〉에서는 사제(四諦), 오온(五蘊), 십이연기(十二緣起), 삼십칠도품(三十七道品) 등의 법을 설하여 선정으로 번뇌를 퇴치함을 제창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안세고의 역경으로부터 유행한 불법을 '선수학(禪數學)'이라고 칭한다. 동진(東晋)의 명승 도안(道安)은 안세고가 번역한 경전을 높이 평가하여 서문을 쓰는데, 〈음지입경〉의 서문에서 안세고의 역경을 "오직 선관(禪觀)을 펴는 데 힘썼다."라고 하고 있고, 다시 〈안반수의경〉 서문에서 "옛 학문을 널리 배웠고, 특히 아비담(阿毘曇)에 뛰어나 그 역출(譯出)한 경전의 선수(禪數)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하며, 〈십이문경〉 서문에서는 "안세고는 선수학을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세고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불교를 유행하게 하였으며, 그의 역경으로부터 유행한 선수학은 이후 남북조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불교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고 하겠다. 비록 수(隋)·당(唐) 대에 이르러 안세고 계통은 거의 사라져 명맥조차 남지 않게 되지만, 그의 역경으로부터 비롯된 선수학은 이후 중국불교가 최종적으로 조사선(祖師禪)으로 귀숙(歸宿)되는 초기화를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사)함께 가는 길 이사장 **혜상**
일산 자비원 원장 **도일**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해동자비원 원장 **만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불기 2566(2022)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 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054)335-1369 팩스 054)335-2609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회 주 **지 산**
주 지 **징 암**

관운사 복지센터 (무료급식)
Tel (054)933-0808

신도일동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전화 054)931-7777 팩스 054)931-3000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 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안 흥 사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86(상방동)
전화 053)815-403
0 팩스 053)814-5142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천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 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 장 **운곡 돈관**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대한불교조계종
'태양의 정기를 받은 와불산 기도도량'
금오산 약사암

사부대중일동

"부처님 만남은
일생일대 최고의 복이다
그 시작은 독경 염불 참선이다".

경북 구미시 금오산로 433의 3
전화 054)452-8039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❶ 불교미술의 이해와 감상법은



▶**김선희 교수는**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불교미술학사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상해국제미술제특별상(2015)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 미술제에서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올해의 작가 100인전 대상, 2021년에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인도 뭄바이 대학교, 창원문화재단 성산아트홀, 서울 수미정사, 창원 봉국사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현재 동국대 연구교수로 활동 중이다.

부처님 말씀 어떻게 시각화됐을까?

종교와 예술은 서로 간에 그 어떤 내재적 연결고리가 있어 분리될 수 없는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인류의 의식이 오늘날과 같이 각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총체적 성격의 시대 및 사회에서는 종교와 예술 등의 이념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혼용의 상태였다. 종교의 기능은 인간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예술 역시 인간 본질을 살펴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함이니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종교와 예술의 결합은 바로 종교 내부의 1차적인 성스러움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종교 외부의 표현 매체를 통해서 표출해내는 데서 시작된다. 종교의 신비하고 초월적인 역량을 과학적 언어로는 설명해 낼 수 없으며, 그렇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통상적인 언어 문자로도 다 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술이 이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만약 예술이 없다면 종교를 현현(顯現)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종교가 없다면 예술은 곧 그것의 가장 유력한 표현 내용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종교와 예술은 상보상생(相補相生)의 관계에 놓여있다.

불교는 바로 붓다의 가르침으로 그 궁극적 이상은 개인의 인격 완성인 '깨달음'과 아름다운 세상인 불국정토의 구현이다. 다시 말하자면 상구보리를 통한 자리(自利)의 충족과 하화중생(下化衆生)의 이타행을 실현하는데 있다. 붓다는 이를 가르치는 스승으로 평생을 중생교화를 위한 설법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붓다 열반 후에는 그 생동감 있는 설법을 들을 수 없었으므로 제자들은 당시를 회상해 경전으로 엮어낸다. 이후 이렇게 엮어진 경전 내용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예술 형식을 통해 표현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불교미술이 출현한 계기이다.

불교회화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조각과 건조물의 성립 시기와 거의 같다고 추측하지만, 초기의 불화로서 남아 있는 예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초기의 불교사원에 불화들이 그려진 사실을 여러 경전서 발견할 수 있다. 즉,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화는 기원전 2세기경에 그려진 아잔타 석굴의 벽화들이다. 그러나 카시미르를 중심으로 성립된 부파시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雜事)〉란 경전에 의하면 인도 최초 사원인 사위성(舍衛城)의 기원정사에 불전도(佛傳圖), 본생도(本生圖) 그리고 야차(夜叉) 등 넓은 의미의 벽화가 그려졌다는 것으로 미루어 적어도 기원전 3세기에는 어떠한 종류 형태로든지 불화가 그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은 부처님이 24년이나 머무신 〈금강경〉의 무대이자 왕사성 죽림정사와 함께 최초의 불교사원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7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부처님 모습 등 불교적인 소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실제의 제작은 그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는 출현 초기부터 예술과 결합해 붓다의 말씀 즉, 추상적인 경전 문자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내는데, 우리는 이를 '경변(經變)' 혹은 '변상도(變相圖)'라 부른다.



인도 미디아 프라데시에 있는 석굴의 '스투파 공양' 작품. 1세기 초에 조성됐다.
사진=쇼가쿠간 발간 〈세계미술대전〉中



인도 나식(Nāsik) 석굴사원 제18굴 내부 도상. 1세기 사타바하나 시대에 조성됐다.
사진=김선희

'변상도'를 그리는 목적은 예술 형식을 빌어 신도들에게 불교이념을 선양하고 어려운 불교 교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만약 '변상도'가 출현치 않았다면 우리는 팔만대장경을 다 읽어야만 불교를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상도'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지금 한 폭의 그림을 통해서도 어려운 경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상도'는 그 출현 이후 각 시대 마다 그 시대의 불교 사상을 잘 반영한다. 남북조시대의 경변은 소승 경전을 다채롭게 그려내는데, 자아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있으며, 내용은 본생경변상, 불전 고사가 많고 졸박(拙朴)한 양식으로 표현되었다. 수당 이후 대승사상이 성행하면서 많은 화사들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풍부하고 변화가 다양하다. △유마힐경변 △본행경변 △금강경변 △금광명변경 등이다. 이는 중국 미술사상 아주 특수한 변화의 시기이다.

종교와 예술은 '상보상생' 관계

불교미술, 경전 전하는게 목적

초기부터 나타난 예술 '변상도'

상징 언어 알아야 올바른 이해

일반적으로 변상도를 벽화 표현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당대에 아주 성행하였다. 이외에도 입체적 표현의 조소 작품도 있다. 양송(兩宋) 이후에는 자수(刺繡), 견화(絹畵) 등 다양하다. 문헌상에는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에 '경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으며 그 밖의 서적에서 '경변'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앞으로 본 연재에서는 이와 같은 '관경변상도'를 그 출현서부터 변화 발전과정을 추적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거기에 종교와 예술적 측면을 함께 어우러 그 출현의의와 심미적 가치를 밝혀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어려운 경전 내용을 어떻게 '변상도'란 시각예술로 표출해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상징의 시각화

미술의 표현은 원래 감각적 표현에 속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성스럽고 존엄한 내용까지도 시각화해 드러낸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가시적 형상표현에 있어서 곤란함에 이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성품, 덕성 혹은 붓다나 신의 성스러움 등의 추상성이 그러하다. 즉, 구체적 형상으로 시각화하기 위한 가시적인 표현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어떤 가시적인 것을 상징해 성품, 덕성 등과 같은 추상적인 내용을 표현하기로 약속을 정했다.

이런 방법이 종교미술 표현에 응용되었는데, 이와 같은 약속과 규정을 불교에서는 도상 '의궤(儀軌)'라 하며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을 도상학(圖像學)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떤 한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직접 관조하면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미술 이해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특수한 미술 작품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것의 형상화를 위한 특별한 약속이나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바꾸어 말하면 종교미술의 정확한 감상을 위해서 감상 이전에 우선 미술표현의 의도(意圖) 즉, '상징 언어' '도상의 의의'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불교 미술사에 있어서 '무불상시대'의 불전도(佛傳圖)에서는 붓다의 존용(尊容)은 신성불가침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감히 표현해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붓다의 존재나 행위를 기호나 징징적인 물건으로 표현했으므로 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시기의 불교미술 작품의 주제, 내용 혹은 형식을 파악하기 어렵다.

스투파 · 불족적 등 표현한 무불상시대

그럼 당초의 상징을 '스투파 공양'(사진①)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면, 의자와 한 그루의 나무가 보인다. 이 나무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고 붓다가 된 순간 그 아래 앉아 있던 나무인 보리수를 표현한 것이다. 보리수 앞 의자는 금강좌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앉았던 자리이다. 또한 탑문 · 난순 · 기둥 등에 표현된 붓다의 전생 설화를 묘사한 본생도에는 주역인 붓다는 일체 등장하지 않고 다만 불좌나 나무 등이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붓다를 신성시해 다른 신들과 구별하기 위해 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설(說)과, 붓다의 모습을 감히 형상화시키거나 표현할 능력이 없어 불신형상화(佛身形像化)를 하지 않았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그리고 금강좌 아래에는 불족적(佛足跡) 즉, 붓다의 발자국이 표현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붓다가 그곳에 있음을 불족적을 통해 나타냈다.

그 밖의 상징으로 법륜(法輪)과 탑(塔)을 들 수 있는데, 법륜은 붓다의 가르침을 수레바퀴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며 불탑은 즉, 스투파(사진②)라 불리며 붓다의 사리를 봉안한 무덤이다.

이와 같은 상징물로써 붓다의 존재를 대신한 것은 붓다 재세 시부터 기원후 1세기 중엽까지 500~600년 동안 철저히 지켜온 약속이었다.

기원후 1세기 중엽 인도 서북부 간다라 지방을 알렉산더가 점령함으로써 인도와 그리스의 혼용미술이 출현했다. 소위 그리스 양식의 불교미술이 성행했는데, 이때 그리스의 신상을 모방한 불상 즉, 사람의 모습을 띤 붓다의 형상이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초인적이고 존엄한 붓다의 자태를 보통사람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음으로 이에 합당한 가시적인 상징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32상 80종호로 이를 바탕으로 초인적이고 존엄한 붓다를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무국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교원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전원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불기 2566(2022)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영천포교당

대 중 일 동

경북 영천시 서문길 69 (교촌동)
전화 054) 334-3526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종천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비슬산
유 가 사

주지 도 휘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길 161
전화 053) 614-5115 팩스 053) 615-5116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주 포전 혜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부처님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비슬산 용연사

주지 능 도

사부대중일동

포교원 인정 용연사
불교대학 운영
법화경 독송 및 관음 염송 법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전화 053)616-8846, 팩스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 슬 산
대 견 사

주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전화 053)746-0020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 장학재단

“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전화 053)710-3700, 053)523-2886
팩스 053)252-2886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지 우록 법륭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3길 6(불로동)
전화 053)982-9329 팩스 053)983-1698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

10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불기 2566(2022)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 정 **보원 현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전화 053)802-4043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 지 **지 원**

사부대중일동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전화 054)932-9847

대한불교천태종

해 동 사

주 지 **박 도 선**

사부대중 일동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길 167(법흥동)
전화 054)852-6320
https://haedongsa.com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장 세 철**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35)
전화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사)한국불교선조계종

염속산 광 불 사

회 주 **혜 원**
주 지 **도 광**
재 무 **도 웅**

사 부 대 중 일 동

사훈 | 비교하지를 말라 / 따지지를 말라 / 의심하지를 말라

경북 김천시 조마면 금감로 678-3
전화 054)435- 9885

高靈瓦 Goryeong Roofing Tile Solution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 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진 규**

사 부 대 중 일 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불기 2566(2022)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회주 성 일

주지 선 관

대중일동·신도일동

부처님교화공원,
청소년수련원
불교대학, 경전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전화 031)357-3916, 2695
팩스 031)357-8687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전남정

총 무 김지오

신도일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 신중3일기도
초삼일 : 독성3일기도
16일 : 산신기도
18일 : 지장재일 법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23길 235
전화 02)988-1996, 9300 / www.samsungam.org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대전포교원

용 수 사

주지 설 문

통도사대전불교대학
학장 설 문

사부대중일동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191 2층
전화 042)531-1332
cafe:cafe.daum.net/yongsoosa

대한불교조계종

석 불 사

사부대중일동

[休息];
하던 일을 멈추고...
지친몸과 마음을 위한 휴식

마포나루 한강변 300년 고찰(古刹)
석불사 템플스테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23-6
(마포동 394)
전화 02)712-1765

대한불교조계종

왕 산 사

주지 왕 산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포천시 호병골길 193
전화 031)533-3245 / 팩스 031)553-3246
www.wangsansa.org

태아영가 천도도량

구 담 사

주지 지 율

사부대중일동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마로199번길 18(부평리)
전화 031)529-2856

대한불교
조 계 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지 종 후

사부대중일동

남북평화통일기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15-35(북한동)
전화 02)353-4924 / 팩스 02)386-4198

두려움 대상이자 용맹·지혜 상징하는 영물

[특집] 불교와 호랑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22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壬寅年)이다. 십이지의 호랑이는 방위상으로는 동북 방향, 시간상 오전 3시에서 5시, 달로는 음력 1월을 지키는 신이다.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공포의 상징인 동시에 가장 친숙한 동물이다. 조상들은 호랑이로 인한 재앙, 호환을 특히 두려워한 조상들은 오히려 호랑이에게 잡귀를 물리치는 영물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제를 지내기도 했다. 영물인 호랑이는 액을 물리고 복을 부르는 존재였으며, 때문에 매년 정초가 되면 궁궐을 비롯해 민가에서는 대문에 호랑이 그림을 붙이기도 했다. 각종 민화와 전설·구전설화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명나라와 청나라 등에서는 호랑이 이야기로 가득한 조선을 '호담국(虎談國)'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불교에서 호랑이는 영물인 동시에 그 특유의 위엄과 용맹성으로 불법을 수호하는 동물로서 인식됐다. 대승보살이자 협시보살 중 하나인 문수보살이 타고 다니는 동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문수보살이 중생들에게 화현해 지혜를 전하는 현장에 등장하곤 한다.

당대의 선지식을 호랑이로 지칭하는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대변한다. 가야산 호랑이로 불렸던 성철 스님과 가지산 호랑이 인홍 스님, 오대산 호랑이 탄허 스님, 조계산 호랑이 활안 스님 등이 대표적이다. 산 중 사찰서 용맹정진한 끝에 확철대오한 선지식들이 치열한 수행력과 기라성 같은 깨달음의 일성으로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모습에서, 각 산을 대표하는 호랑이로 연관시킨 셈이다.

불자들에게는 사찰 산신각에 봉안된 탱화 속 산신과 함께하는 호랑이의 모습도 상당히 익숙하다. 산신은 우리나라 고유의 토착신이지만 불교와 습합된 한국불교의 독특한 신앙형태다. 산신도를 통해 영물인 호랑이가 산신의 옆에 엎드리거나 뒤따르는 등의 모습으로 신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천 용문사와 문경 김용사의 산신도 속 산신 앞에 엎드린 의젓한 모습의 호랑이가 대표적이며, 서울 화계사 명부전과 수원 팔달사 용화전 벽면에 그려진 호랑이는 긴 담뱃대를 물고 있는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설화 속에서도 호랑이는 단골소재로 등장한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 나타난 호랑이는 살생을 하는 천성으로 보살행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굶어죽어가는 호랑이 가족을 만나 스스로 몸을 보시했다는 내용이다. 호랑이에게 먹히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형태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서 보살행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

사찰의 창건설화 속 호랑이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나주 불회사 창선설화 속 호랑이는 과거 조상들이 가장 사랑했던 '은혜 갚는 호랑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조가 들어선 시기, 참의 벼슬을 지낸 조한용이란 충신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출가해 오랜 세월에 쇠락한 불회사를 복원하고자 원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절로 돌아오던 중 산길에서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다.

입을 크게 벌리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 목에 비녀가 걸려 있었다. 사람을 잡아먹었음을 눈치챈 스님은 호랑이에게 다시는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비녀를 제거해 호랑이를 구했다.

이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꾸준히 불사에 매진하던 스님은 어느 날 귀한 집 소생으로 보이는 처자가 절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했다. 호랑이가 한 짓임을 알고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수소문한 결과, 천 리 밖 안동 만석꾼의 외동딸임을 확인했다. 스님은 즉시 처녀를 안동의 집으로 데려다 줬고, 호환으로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돌아온 것에 크게 감동한 아버지인 김상공이 불회사 복원 불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불회사 중창불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와 함께 영주 희방사에도 같은 내용의 창건설화가 두운대사와의 인연담으로 전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주 호원사 창건설화는 〈삼국유사_감통편〉의 '논호림(論虎林)'이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김현(金現)이 흥륜사(興輪寺)에서 탑돌이를 하다가 만난 호랑이 처녀의 인연을 기록한 글로, 당시 세 오빠가 저지른 살생의 업보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호랑이 처녀가, 김현에게 이를 이용해 벼슬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훗난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넋을 기리는 절 '호원사'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호원사는 현재 경주 황성숲 인근 사지로만 남아있다.

호랑이는 반야사 창건 설화에도 등장한다. 반야사 중창을 명한 세조가 대웅전에 참배하자 문수동자가 나타나 절 뒤쪽에 있는 개천(현재의 영천)에서 목욕을 권했다. 세조가 목욕을 시작하자 문수동자는 부처의 자비가 따를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이 때 문수동자가 타고 온 호랑이가 아직도 백화산에 남아 반야사를 지키고 있다고 전한다.

서울 호암사가 호암산의 호랑이 기운을 누르기 위해 지어졌다는 설화는 유명하다. 조선왕조 개국 후 태조는 도읍을 한양으로 이전키 위해 경복궁을 중창했다. 그러나 공사는 원만하지 않았다. 틀을 세우는 족족 무너져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어느날 태조의 꿈에 한 백발노인이 나타나 "호암산 호랑이 기운의 꼬리부분에 절을 세운다면 궁궐이 무사히 축조되고 왕조의 기운도 성성하게 뻗어 나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때 노인이 알려준 호랑이 기운의 꼬리부분이 바로 지금의 호암사가 위치한 곳이다. 이후 무학대사가 "달아나는 호랑이 형세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해 지어진 곳이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사자암이라는 설화도 함께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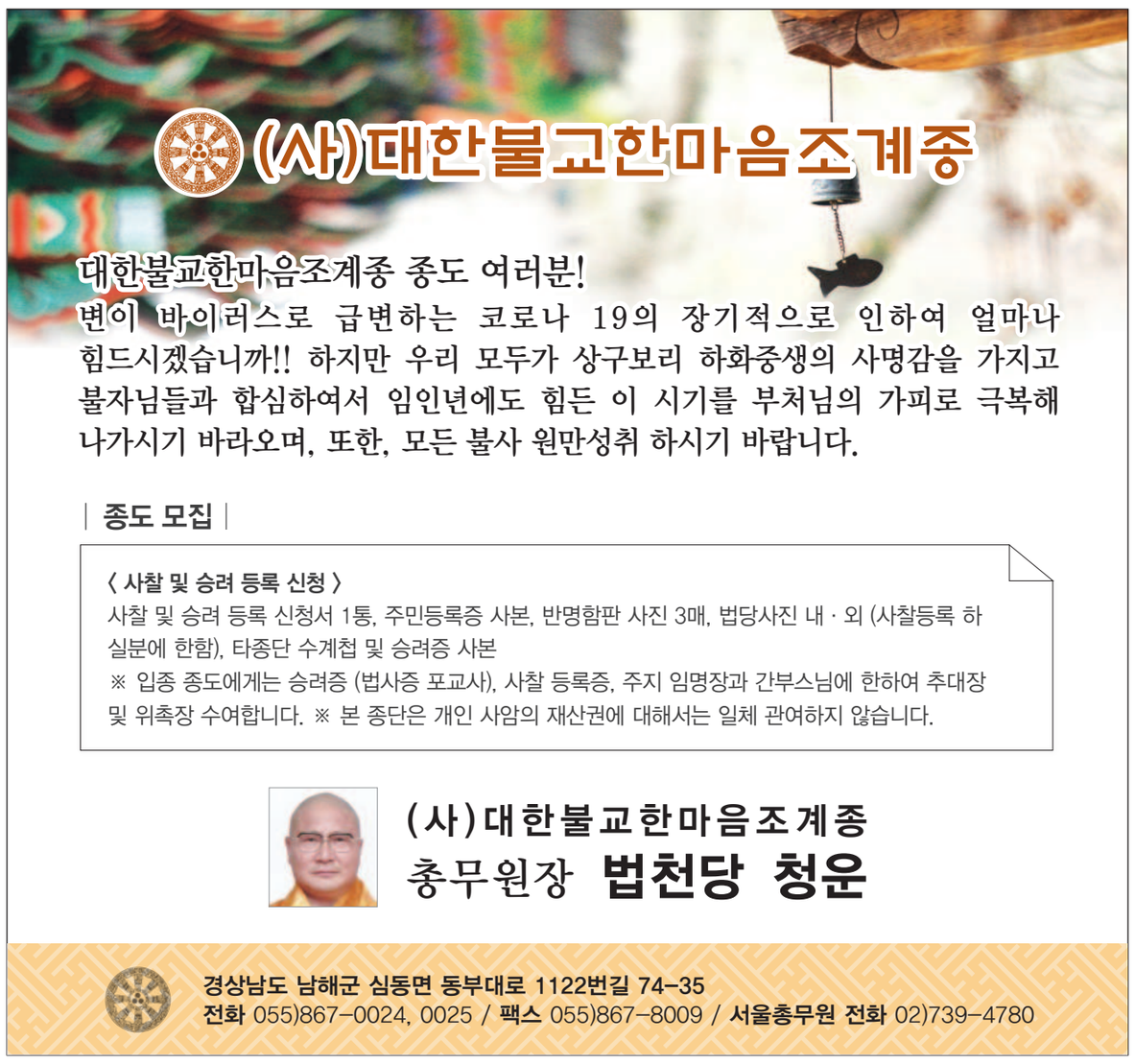
당대 선지식들 호랑이로 지칭
가장 무섭지만 친근한 존재로
특유의 위엄 용맹성에 신격화
불법 수호하는 동물로도 인식
사찰의 창건설화 단골로 등장



만봉 스님의 '미신발이라 대장' 한국민속박물관 제공

호랑이해 불교 소사

△631	원광 스님 입적
△702	의상 스님 입적
△918	처음으로 입관회 설치
△1422	경행행사 폐지
△1410	해인사에 대장경 인행 명령
△1458	해인사 대장경 인쇄해 사찰 분배
△1902	사찰령 36조 공포, 식민지 불교시대 시작
△1926	만해 한용운 〈님의 침묵〉 간행
△1938	김제 금산사 낙성식, 〈불심〉창간
△1950	국보 청평사 화재로 소실
△1962	불교재산관리법 제정 공포
△1974	조계종 전국승려대표자회의 개최, 조계종 종정 고암 스님 사퇴, 5대 종정 서옹 스님 취임, 월간 〈불광〉, 월간 「불교문화」 창간
△1986	전국승려대회 개최, 불교탄압공동대책위원회 결성
△1998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황해북도 사리원 금강국수공장 준공,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창립, 정화개혁회의 발족, 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에 고산 스님 당선
△2010	'무소유' 법정 스님 입적, 문수 스님 소신공양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 분한신고 공고 ◆

사)대한불교 한마음 조계종은 분한신고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한신고 : 2022년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유효기간이 없는 사찰등록증, 임명장, 승려증, 신분증
▣ 신고기간 : 2022년 1월 부터 2월 15일까지
▣ 신 고 처 :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

※ 상기 기간 내에 분한 신고를 마치지 않은 각 사암과 승려는 종헌 종법에 따라 자동 말소하고 직권 제적함을 공고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심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 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총무원 전화 02)739-4780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흥사

주지 **덕유**

사부대중 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오백나한 도량

도 선 사

주지 **도 원**

총무 윤경화
신환의 합장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길 61-6
전화 062)234-7633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전화 062)951-3562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전화 062)263-4660

지장참회도량

도솔산 참당암

참당선원

선원장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전화 063)563-3440

한국불교태고종

군 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 월**
주지 **보 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전화 063)453-0050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신도회

신도회장 **이근재**
수석부회장 **김영섭, 이정희**
부회장 **김동현, 김기운, 하유호 한덕남, 채규수, 나유인 박두섭, 최병헌, 홍영옥 조영석, 박춘열, 안준아 김용수, 남궁선, 이혁진 송재면** (무순)

신도회일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전화 063)277-3497

대한불교조계종

미타도량 성 불 사

석가여래행적송
(전북유형문화재 238호) 봉안도량

주 지 **월은 종명**
회 주 **관 음 행**
신도회장 **월 광 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포교로 사회를 밝히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정법 김용수**
수석부단장 **강봉 구강식**
부 단 장 **고경 윤태근**
감 사 **향엄 이택회 심진 최영석**
사무국장 **자광 강대후**
간 사 **김민정**
전주1 총괄팀장 **중 관 여영만**
전주2 총괄팀장 **서래행 윤은숙**
전주3 총괄팀장 **해 월 문병현**
전주4 총괄팀장 **천명월 석진금**
익산 총괄팀장 **법성화 김덕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일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북불교회관 2층
전화 063)252-4940 팩스 063)252-494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익산 관음사

주지 **덕 림**

사부대중 일동

부설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이리불교대학)
보물1842호 관음보살입상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전화 063)854-1578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전화 02)587-4677, 팩스 522-5666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70호 | B29 | 전면광고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사구게 만이라도 남을 위해 설해준 공덕이 더 수승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금강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010-3586-6091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 •
공양주 모십니다
보시금 150만원
부산 남구 소재 사찰
• • •
010-4435-5660

• • •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9157-2276

• •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제주도(육각사)
• • •
010-3753-7844

• • •
기도하실 스님 모십니다.
경주
• • •
010-8908-0488

• • •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 • •
010-6532-2773

뭐든지 성취되는

기도비법을 스님께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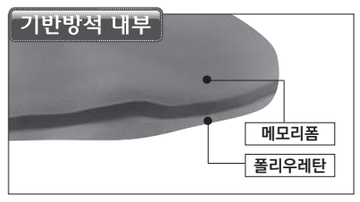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 계 최 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출강 및 통신 2022학년도 제31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31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역량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수업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영상미디어 통신강좌)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2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3층 (견지동, 한선빌딩)
http://pubsa.net FAX : 02)737-5305

부처님 6년 고행 육경신루진통사성제 사구계 사만다라 생명의 화두로 성불하신 법으로 비구·비구니 사부대중, 유불선일체 종교가 하나인 마음심자로 성불하는 천하제일의 비법문자와 말과 글·염불·독경·화두·참선·명상·수행으로 찾지 못하는 화두의 근본 루진통 대법회



부처님께서 오통은 누구나 하지만 루진통을 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라 하시고, 숨을 멈추고 1분 2분 3분 4분을 멈춘 생사해탈법은 모든 종교를 초월 새벽 사시 저녁예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법화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헛고생 없이 성불 도통하여 내생에 사람 몸 받는 루진통 대법회가 2022년 1월 6일 밤 해시, 입제 7일 해시에 금요일 경신일 성불도통 단번으로 백년 수행보다 견성성불 도통하는 법회 부처님 성불하신 사정제 = 고집멸도의 태란습화이므로 태생은 사람 난생은 조역, 습색은 충력, 수력은 짐승 수며, 멸은 무간지옥을 면하는 기도가 두진통이고 사구계는 사 = 수,육,보영이고 구계는 진종도 민족업 봉천명이며 잠자는 두뇌를 화두의 흐름으로 뇌하수체를 깨워 영과 혼 그리고 백을 살려 육신보존으로 생사해탈하는 것이고 이것을 막고 괴롭히는 자는 누구냐 귀신의 집단이며 지면 멸이고 이기면 성불하는 루진통 화두요. 천수경 앞에 나무사만다라의 근본화두를 찾는 것이 수행이지 하안거, 동안거에 있지도 않은 생명인 마음인 화두는 두진통을 하지 않은 비구,비구니,보살,사부대중 성불지 망생들은 모두 고행일 뿐이다. 하신 것은 말법과 병겁에 불법도 살리고 자신도 살리고 중생도 구하는 지계 수복자에 의하여 나무사성계 사구계 나무사만다를 공개하오니 진법을 모르고 천년만년 읽고 수행하여도 근본을 모르기에 결국에는 신장철퇴를 맞고 한생을 보내지는 수행을 초월 한 번의 루진통으로 육불선일체종교가 하나로 되는 마음의 생명에 근본인 루진통 화두에 입문하시어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하여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류스승 되소서. 동참비 120만원 이법은 지구촌 어느 대학이나 법전에도 없는 비법공개. 눈과 귀가 있는 자 따라오는 자 살 것이니라.

◉ **하일라이트TV 방영중 (동양철학운명, 성명, 속명, 출세성공, 인생운명 상담)**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 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입 제 일 : 2022년 1월 6일 목요일 해시 ■ 해제 : 7일 금요일 해시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간편한 옷, 무박 2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기도
■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예금주 : 곽한영) / 천문천서 동참비 120만원
■ 상담전화 : ☎ 032-502-6625 / 010-9292-3110 / 010-9718-4449

귀 천지공사 불선도. 육경신 천문도통회 총본산
귀 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예성 용천사. 천룡진인 환성 태일 대종사 합장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토요일 | 불기 2566년

접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의 02)2004-8214
가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70호 | B30 | 전면광고

만약 근기가 총명하고 지혜가 밝으며 많이 듣고 널리 알아서 불도를 구하는 이 있거든 이 같은 사람에게는 경을 설할지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화경 방편품》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 체결시까지 홍보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김천시 구성 소재(김천역 차편 15분대)
- 법당 약 20평, 주방 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 대지 약 100평, 도지료 연 35만, 남향, 구성 중심소재 교통좋은 대로변 포교지
- 가액 : 3천만원

010-729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산읍
- 건물 : 2층, 목조 법당
- 대지 : 540평
- 건평 : 3동 2백평, 단청 완비
- 가액 : 13억

054-977-6611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5백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377-2279

학원 및 사찰터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지 : 약 256평
- 우동 자이아파트 단지 옆 자명요양병원 앞
- 가액 : 5억

010-3173-51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 도로에서 25미터
- 대지 100평 3홉 건평 40평정도
- 스님유고 관계로 양도합니다.
- 답사 하실분만 전화 요망
- 가액 : 2억 9천(절충)

010-9796-08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희곡리
- 대지 : 약 2,100평
- 전망이 아주 좋음
- 가액 : 5억

010-3173-5151

창원 사찰안내

- 사찰 전체 35평
- 법당 15평, 1층법당 화장실, 샤워실, 창고
- 권리금 3천만원, 보증금 450만원, 월세 25만원

010-9181-9666

사 찰 안 내

- 경남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 1동 제일여고 뒷편 삼복도로
- 임야1800평, 대지60평, 전답 120평, 법당20평, 삼존불, 용왕당, 요사체, 방4개
- 양도가 5억, 협의가능

010-8762-987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 2층 독채 4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세 45만원
- 시설금 7백만원
- 시설완비

010-8567-3667

사찰(급)안내

- 위치: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종교용지 218평/건평1층42평 ● 2층26평/단청,토기와 컨테이너6평,산신각, 실사용500평, 시유지포함 ● 심야전기, 천연지하석수, 1일150톤 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건강상실가이하로 ● 7억8천에 양도합

010-6425-8274
010-9319-300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 부지 : 530평(대지 24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 토지(전) : 건축 가능
- 가액 : 2억 5천(절충가능)

010-3871-2210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 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 1천만원/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 법당 : (요사채+최신형 인테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숲 5천그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 토지, 건물 : 분할가능
-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주지 **함 홍**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풍기정품인삼 #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 삼 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① 서울 종로구 조계사 회화나무, 백송



국경 없는 나무가 건네는 말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 대웅전 앞뜰에 서면 하늘로 오르는 나뭇가지를 타고 색색의 등들이 열매처럼 줄지어 있는 회화나무와 마주하게 된다. 사찰만 보겠다고 온 일반인들도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나무의 수령은 400년에서 500년으로 추정하는데, 지난 동짓날 보니 섬섬옥수로 갈라진 가지 끝에 뭉치로 붙어 있는 듯한 염주상(念珠狀) 열매들이 시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콩과 식물인 회화나무의 원산지는 현재 중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중국의 식물지에는 한국과 일본이 원산지라는 기록이 있다며 자생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다.

조계사 중심점인 대웅전에 자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빛나고 있는 회화나무가 이곳에 있게 된 연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조선시대 의료 담당 기관이었던 전의감(典醫監) 관리들이 중국을 오가며 회화나무 종자를 들여왔고, 의약 개발을 위해 곳곳에 심은 약초 사이에 이를 묻어두었는데, 어느 날 자연 발아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자리는 본래 왕자들의 별궁이었고, 이후 한 양반가의 저택이었다가 보성학교에서 지금의 조계사가 자리를 잡게 되기까지 계속 살아남은 나무였다는 것이다.

후자에서 읽어낼 수 있는 이야기는 조선시대까지 나무에게도 신분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집 마당에 회화나무를 심으면 큰 학자가 나온다고 해서 학자수(學者樹)로도 불리는 이 나무는 궁궐이나 서원 혹은 그야말로 지체 높은 양반들만 식재하고 볼 수 있었고,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이었다. 그 기원은 중국 당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과거시험을 보았던 시기가 회화나무 꽃이 누렇게 변색해가는 음력 7월인데, 이를 '괴추(槐秋)'라고 하였단다. 봄여름의 꽃들이 거의 지고 없을 무렵 매혹적인 자태를 가진 꽃이 남아 있어 이 나무를 보며 합격을 희망하였고, 이후 벼슬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꼭 심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회화나무가 자라고 있는 터전은 서열 높은 분들의 거주지였다고 보면 되는데, 그 출발이 중국이라서 그런지 이를 두고 모화(慕華)사상에서 기인한 문화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회화나무 이름의 유래에서도 이를 가늠할 수 있는데, 회화나무를 한자로는 괴(槐) 혹은 괴수(槐樹)라고 쓰고, 꽃은 괴화(槐花)이다. 괴화를 중국어로 발음하면 화이화(huáihuā)가 되는데, 이 화이화에서 회화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무한을 꿈꿀 수 있는 공간에서 모든 나뭇잎들이 골고루 햇빛을 받기 위해 겹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가지를 뻗는 기개를 보기만 해도 뭉클한 조계사 회화나무에 인간의 역사가 틈입하다 보니, 문득 인도에서 발원한 불교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불쑥 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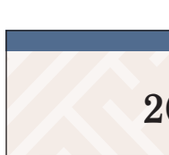
나무는 국경이 없다. 다만 국경이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 때문에 자생식물, 귀화식물, 외래식물이라는 분류가 있는데, 지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초 에너지를 만드는 나무를 계속 보니 국경을 넘어선 위대한 가르침을 설파한 부처님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며 대웅전 옆 백송으로 걸음을 옮긴다.

수령 500년으로 추정하는 이 백송도 회화나무처럼 약초 사이에서 자란 나무였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이름과 관련해서는 어릴 때는 녹색인데 어른이 되면서 나무껍질이 하얀 레이스처럼 조각조각 갈라져 백송(白松)이 되었다. 줄기는 흰빛이지만, 하늘을 이고 있는 바늘잎은 늘 푸르다. 그래서 소나무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나무의 원산지도 중국이고, 들어온 시기는 조선시대이고, 역시 회화나무처럼 양반집에만 심을 수 있는 나무였다.

고층 빌딩 사이에서 해가 자연광을 쏟기 시작하면 순백색의 불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두 손을 모으게 된다. 그 느낌을 더 깊숙이 흡수하고 싶어 빨간 등들이 사각으로 둘러쳐진 곳에 바싹 다가가 그 틈 사이로 또 눈을 크게 뜨고 나무껍질을 보면 깜짝 놀란다. 잘려나간 줄기도 보이지만 군데군데 나무가 안고 있는 치료의 인공물질에서 이질감이 돋아오며 아픈 연민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한다. 하지만 본래 나무는 속이 죽은 세포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러면서도 동물보다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면, 나무에 외경심이 스미게 된다.

〈헤르만 헤세의 나무들〉을 보면, "나무들이 크고 작은 숲에서 종족이나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을 보면 나는 경배심이 든다. 그들이 홀로 서 있으면 더 큰 경배심이 생긴다. 그들은 고독한 사람들 같다"라는 글이 있다. 개체의 나무들이 건강한 숲을 일구는 것은 땅 아래에서 서로 연결된 뿌리들이 균사를 통해 양분을 주고받는 도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홀로 꿋꿋이 자라고 있는 고령의 회화나무와 백송은 그 존재만으로도 숱한 깨달음을 준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① 문태준의 '맨발'

"나는 지금 얼마만큼 맨발의 삶 사는가"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품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문태준 시집, 〈맨발〉 창비 2004–

이 시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 맨발이다. 맨발로 와서, 맨발로 걷다, 맨발로 간다.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삶이다. 이 시를 처음 대면한 순간, 나는 가슴이 서늘했다. 명품양말과 명품구두와 명품운동화로 칭칭 감고 사는 내 발을 보았기 때문이다. 문태준 시인은 그런 나를, 다음과 같은 말로 점잖게 타이르고 있었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그런데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딘 적이 있었던가. '양식을 탁발' 하다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던가.

이 시가 절묘한 것은, 그리고 (보편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삶의 기승전결을 불교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붓다의 삶을 몰랐다면 시인은 결코 이처럼 탁월한 시를 쓰지 못했을 것이다.

문태준 시인은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어물전에서 속살을 내밀고 있는 개조개를 보았다. 그리고 그 개조개가 밖으로 내민 속살을 보고 붓다의 마지막 삶인 '곽시쌍부(槨示雙趺)'를 떠올렸다. 곽시쌍부는 붓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6일 늦게 도착한 마하가섭이 붓다의 법구도 보지 못한 채 관을 붙들고 슬피 울자 붓다가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밀어 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사건을 말한다.

불교에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는 것이 있다. 선종 계열에서 붓다가 세 번에 걸쳐 가섭에게 마음(법맥)을 전한 이야기(사건)를 말한다. 다자탑전분반좌(多子塔前分半座)와 영산회상거염화(靈山會上擧拈花), 니련하반곽시쌍부(泥連河畔槨示雙趺)가 그것이다. 다자탑전분반좌는 붓다가 급고독원에서 설법을 하는데 가섭이 해진 옷을 입고 늦게 도착하자 앉은 자리의 반을 내주며 옆에 앉으라고 한 사건이다. 영산회상거염화는 붓다가 영산회상에서 금색 바라화(波羅花)를 올리자 오직 가섭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은 사건을 말한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위에 언급한 니련하반곽시쌍부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맨발'이었을까. 이것은 평생을 길 없는 길 위에서 맨발로 보낸 붓다의 삶을 상징한다. 또한 무소유를 상징하기도 한다. 붓다는 성(城)을 넘어 출가할 때 금·은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맨발로 출가했다. 그리고 80평생을 길 위에서 맨발로 돌아다니며 걸식했다.

이 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속도다.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맞다. 속도는 탐욕에 비례한다. 속도가 빠른 삶은 탐욕도 크다. 그러나 속도가 느린 저속(低速)의 삶은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지족(知足)의 삶을 산다. 피에르 쌍소가 느림의 삶을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쌍소는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삶을 행운의 기회로 여기는 까닭은 매 순간 살아 있는 존재로서 아침마다 햇살을, 저녁마다 어두움을 맞이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만물이 탄생할 때의 그 빛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나 불만스러운 표정의 시작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속도가 빠른 삶은 '매 순간 살아 있는 존재'로서 아침 햇살과 어두움이 주는 '저녁의 행복'을 찾아낼 수 없다. '매 순간 살아 있는' 아침 햇살을 만나고 '어두운 저녁의 행복'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어렴풋이 떠오르는 미소'를 발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느린 저속의 삶이 필요하다.

그 속에 바로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이 있다. 자유로운 삶, 정직한 삶, 온전한 삶이 있다. 붓다의 삶은 물론 예수와 간디의 삶도 모두 맨발이었다. 그들 모두 맨발로 태어나, 맨발로 걷다, 맨발로 갔다.

맨발은 또 인욕(忍辱)의 삶을 뜻하기도 한다. 맨발은 아프다. 맨발로는 오래 걸을 수 없다. 금방 상처가 난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구두를 신는 것도 결국은 오래, 멀리, 상처 없이 빨리 걷고 싶어서다. 그럴수록 더 맛있는 밥, 더 좋은 밥, 더 값비싼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끼 밥은 다 똑같다. 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은가.

오늘 다시 내 발을 생각해본다. 나는 지금 얼마만큼 맨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와 캄캄한 것들의 허기와 울음을 달래주고 있는가. 아직도 두터운 명품 양말과 명품구두와 명품운동화로 내 맨발을 칭칭 감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어느 겨울날 서울 종각 지하철역에서 보았던 맨발이 생각난다. 종이박스 밖으로 삐져나온 어느 노숙자의 맨발이. 그 노숙자는 지금 맨발의 삶을 잘 살고 있을까. 내 주변 어디에든 맨발의 삶은 존재하고 있다. 맨발의 삶을 잊지 않아야겠다.

〈불교문학연구소장〉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 지 김도원
부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삼선포교원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전화 02)923-0582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자기 근본을 믿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마음의 샘물을 먹을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043)877-2900

2566년 새해 온누리에 자비와 희망이

대장부로 태어나 지름길은 가지 말고 인내와 믿음의 물레 세지 않는

대행선사 법어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박종수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224)632-0959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Rd, Bangkok 10110, Thailand
TEL:(66)61-413-7000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재)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

‘국산 골프채 브랜드’ 고집 30년… “한류 들뜨게 해”



리더에게 聽 하다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62)

대담=김주일 국장, 글 · 사진=박재완 기자

‘30주년’, 한 사람의 삶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더욱이 그 시간을 오로지 하나의 일을 위해 썼다면 그 30년은 지나온 것이 아니라 쌓아온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역사인 것이다. 지나간 것이 아닌, 쌓인 것의 가치는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사라지지 않고 쌓여 있는 시간. 그렇게 하나의 삶이 ‘삶’을 넘어 ‘역사’가 된 시간을 들여다보려고 한다. 30년 전, ‘국산 골프채’라는 명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미답의 길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걷고 있는 ㈜와이랭스필드의 창업주 양정무 회장의 30년을 들여다본다.

어느 날 찾아온 목표, ‘국산 골프채’

“제가 미국서 잠깐 공부할 때 골프를 처음 하게 됐는데, 그땐 젊을 때고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제대로 된 골프채 하나 없이 골프를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생활을 할 때였는데, 제대로 된 골프채를 하나 마련하려고 유명 백화점에 가서 국산 골프채를 찾았는데 국산 골프채가 없더라고요.”

양 회장이 모 일간지 광고부에서 영업업무를 하고 있을 때였다. 국산 골프채는 없다는 매장 직원의 어이없다는 듯한 퉁명스러운 대답을 듣는 순간 양 회장은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골프가 지금처럼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였다. 골프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였다. 골프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기였고 골프시장의 변방이었음을 감안하면 그렇게 이상할 일도 아니었지만 양 회장은 국산 골프채가 없다는 사실에 생각 한 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평소 ‘우리’, ‘우리 것’에 대한 소신이 남달랐던 양 회장에게 국산 골프채가 없다는 사실과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적 상황이 못마땅했다. 그렇게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양 회장은 그냥 지나치지 못했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그는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다. 애꿎은 매장 직원과 실랑이를 하고 나온 양 회장은 그때부터 마음속에 ‘국산 골프채’를 화두로 품었다.

미다스의 손

양 회장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삼십대 초반의 젊은 시절에 당시 광고영업 분야에서 하루하루 신화를 쓰고 있었다.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매출의 수치를 매일매일 갈아치우고 있었다. ‘최연소 차장, 과장, 부장 … ’, 어느 날부턴가 양 회장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당연히 수식어가 그냥 생긴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영업에 임했다. 그리고 늘 남다른 생각으로 살았다.

“광고영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회사와 다양한 일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많이 볼 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출판’이 보였어요. 아, 저거 ‘사업’ 되겠다싶었어요. 그래서 그날로 거래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작게 출판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은 대성공이었죠.”

‘영업’이라는 특수성이 양 회장의 안목을 넓혔고, 타고난 영업적 마인드와 사업가적인 DNA에 그 안목이 더해졌다. 광고영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그는 사업가로서의 눈을 뜨기 시작한다. 양 회장은 신문사 광고영업 업무와 사업을 병행하며 자신이 처음 시작한 사업을 하루하루 키워나갔다. 양 회장이 사업에 남다르게 매진한 이유는, ‘국산 골프채’였다. 양 회장 사업의 최종 목표는 ‘국산 골프채’였다. 국산 골프채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었다. 양 회장은 출판을 시작으로 다양하게 사업의 영역을 넓혀나갔다. 승승장구였다. 손을 대는 사업마다 ‘대박’이었다.

국산 골프채, 랭스필드

“일본 골프채의 헤드(우드)를 우리나라에서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렴한 값으로 헤드부분을 우리나라에서 OEM으로 제작해 자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우리나라에 비싼 값으로 팔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골프채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실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1992년 드디어 ‘국산 골프채’가 명사화된다. 국산 골프채 브랜드 ‘랭스필드’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양 회장은 그동안의 사업으로 자금을 모아 법인 ‘성해무역’을 세우고 브랜드 ‘랭스필드’를 세상에 선보인다. 같은 시기에 유사한 브랜드들이 같은 시도를 했지만 앞서나간 것은 랭스필드였다. 양 회장은 몸담았던 신문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전념한다.

양 회장은 국산 골프채 ‘랭스필드’ 1호 매장을 서울 인사동에 열었다. 인사동은 우리 문화의 색깔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상징적인 장소인 것이다.

C2면에 계속

INSIDE

C3 인터뷰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C4 인터뷰 리투아니아에 한국불교 알리는 원보 스님
C5 인터뷰 장 줄리앙 푸스 다큐멘터리 감독
C6 인터뷰 한스욕 에플레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장
C7 인터뷰 마우리찌오 리오또 안양대 교수

‘신념무적’…위기때마다 매달린 인생 화두



양정무 회장은 어려서부터 집안의 불심을 보면서 자랐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늘 부처님을 찾았다. 양 회장은 현재 운영 중인 회문팰리스 안에 거주하던 집을 개조해 무차선원을 열었다. 사진은 무차선원 법당을 소개하고 있는 양정무 회장.

‘양정무 회장’ C1면에서 계속

랭스필드의 1호 매장이 인사동점이라는 것은 양 회장의 자존심이었다. 앞서 말했듯 평소 ‘우리 것’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던 양 회장이었다. 양 회장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시작된 뒤 ‘No재팬’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국민적 정서를 이끄는 데 앞장섰다. 또한 수십 년간 고조선 관련 유물을 수집해 ‘고조선역사박물관’을 세우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역사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리고 일제 등 수입 중고 골프채를 랭스필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랭스필드의 1호 매장을 인사동에 마련한 것은 그런 양 회장의 ‘우리 것’에 대한 신념의 발로였다. 골프채의 중요 부분을 수출하면서도 일본 브랜드의 골프채를 비싸게 사서 써야했던 시절에 다짐했던 자존심의 실천 같은 것이었다. 양 회장은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우리의 문화를, 스포츠 문화를 꽃피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제 양 회장에게 남은 일은 랭스필드를 널리 알리는 일이었다.

신념무적, 시련 앞에서

“창업한 이듬해였어요. 물건 만들고 홍보하고 물건 팔러 다녀야 할 때에 날벼락을 맞았어요. 정부에서 ‘공직자 골프 금지령’을 내렸어요.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골프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신생 업체인 랭스필드는 더욱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위기부터 맞은 거죠. 시작을 절망에서 시작했어요. 급기야 직원을 20명으로 줄여야 했고, 생산은 아웃소싱으로 전환해야 했어요.”

당시는 ‘골프’라는 말 자체가 지금과 많이 달랐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일반화’가 안 된 시절이었다. 그러다 보니 골프라는 말 속엔 안 좋은 이미지가 있었다. 골프채를 비롯해 고가의 용품과 골프장 회원권 등이 청탁의 뇌물로 이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골프’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 국산 골프채 랭스필드는 출발선에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넘어졌다.

‘신념무적’, 양 회장의 발길이 서울 삼각산 도선사 앞에 멈춰 섰다. 도선사 도량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문구다. 양 회장은 지금도 ‘신념무적’이라는 이 문구를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산다. 양 회장은 새벽까지 부처님 전에서 기도했다. 부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자신을 자신의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기 위한 다짐의 기도였다.

‘신념무적’, 마음을 가다듬은 양 회장은 다시 길 위에 섰다.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일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도 했다. 양 회장은 1994년부터 해외시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 바로 해외로 나갔다.

“우선 일본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골프 강국인 미국도 갔어요. 나라마다 벽은 높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해외 지사를 설립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는 일은 제 전공이잖아요. 다시 ‘양정무’를 발휘할 때가 온 거죠.”

그랬다. 벽은 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넘지 못할 벽은 없었다. 양 회장은 동남아를 시작으로 해외 골프시장에 ‘랭스필드’를 심기 시작했다. 빈 논에 모를 심듯이 랭스필드를 한 줄 한 줄 심기 시작했다. 양 회장은 현지 골프장부터 돌기 시작했다. 랭스필드를 들고 세계 명품 브랜드 속으로 뛰어들었다. 여행사를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골프 투어’ 상품을 만들었다. 골프장마다 랭스필드 골프채를 렌트 채로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계획은 매출로 이어졌다. 투어 상품은 매일 전세기를 띄우게 됐다. 다각도의 전략으로 랭스필드는 매출과 브랜드 이미지 모두 수직 상승했다. 시련과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심었던 모가 자라 논을 채우기 시작했다. 랭스필드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40여 개국의 시장을 열었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에 골프채 사업에 뛰어들었던 국내 기업들이 모두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랭스필드는 확실한 ‘국산 골프채’로 남았다. 양 회장은 창업 이후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신제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국내는 물론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출 실적이 연간 100만 세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게 ‘국산 골프채’를 실현한 양 회장은 1998년 ‘신지식인 2호’에 선정됐다.

다시 시련, ‘부도’

2002년, 양 회장은 경주 분황사로 가고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양 회장의 발걸음은 무겁고 또 무거웠다. 길을 찾지 못해 가는 길이었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992년 국산골프채 ‘랭스필드’ 설립해
1993년 ‘공직자골프금지’로 위기 맞아
위기를 기회로, 동남아 시장개척 성공
2002년 세금폭탄으로 최종부도 처리
2005년 하와이시장 개척성공후 귀국
랭스필드 2005 부산APEC 공식클럽

주말마다 전국 고찰과 암자 등 찾아
위기때마다 108배 등으로 마음 수행
회문팰리스 집개조해 무차선원 열어

“부도였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는 일이었어요.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길이 없다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부도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더욱 힘든 일이었어요. 부실한 경영으로 인한 부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2002년 4월 26일, 잘 나가던 랭스필드는 최종부도를 맞는다. 흔히들 말하는 ‘흑자부도’였다. 부도가 나기 얼마 전에 양 회장은 세금 관계로 세무당국과 마찰이 있었다. 그 일로 국세청 간부 몇 명이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징계를 받았던 간부들이 징계를 벗고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면서 벌어졌다. 괘씸죄였다. 5년 전에 유예했던 특별소비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양 회장은 납득할 수 없었다. 세무당국이 말하는 ‘유예’는 맞지 않는 말이었다. 당시에 세금을 모두 납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수증이었다. 양 회장은 영수증을 찾을 수 없었고 납부를 증명할 길이 없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매출의 수치가 대부분 외상매출이라는 것이었다.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특별소비세는 매출이 발생하면서부터 세금이 발생한다. 쉽게 말해 실제로 수금되지 않은 매출을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수입은 없는데 세금은 내야하는 것이다. 수금으로 이어지지 않은 허수의 매출을 세금은 기다려 주지 않는 것이 기업경영의 어려운 문제였다. 랭스필드의 매출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히려 악제였다.

일본 브랜드를 비롯해 수입 골프채가 장악한 우리나라 골프채 시장에서 적지 않은 수입대체 효과를 창출하고 수출로 인한 외화수입에 일조했던 건실한 벤처기업 랭스필드는 ‘세금(특별소비세)’이라는 핵폭탄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당시 랭스필드는 계열사를 포함해 직원이 1천여 명 규모였다.

“최종부도가 난 다음날 분황사로 갔어요. 막막했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길도 없고. 길은 없는데, 그래도 가고 싶은 길은 있었어요. 절이었어요. 신문사에서 영업일을 하던 때부터 주말이면 절에 갔어요. 아마 전국의 큰 절 작은 절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영업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남들은 모르게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많이 받았지만 혼자 힘들었던 것들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마음 가는 절에 가서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로 상처들 씻고 오곤 했죠.”

양 회장은 어려서부터 집안의 불심을 보면서 자랐다. 양 회장의 양친은 가을추수를 하고나면 거둔 곡식을 반드시 불전에 먼저 올렸다. 양 회장은 사무실 한 편에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천 회문팰리스 안에는 거주하던 집을 개조해 법당 무차선원을 열었다.

희망의 불씨, 하와이

양 회장은 경주 분황사에서 영덕에 있는 장육사로 자리를 옮긴다. 분황사 스님이 소개한 영덕사는 휴대폰도 수신되지 않는 세상의 ‘밖’이었다. 양 회장은 일주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백팔배도 하고 천배도 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앞날을 생각했다.

양 회장은 다시 길을 찾아 나선다. 골프의 강국 미국이었다. 워싱턴과 뉴욕, 캘리포니아를 거쳐 하와이에 닿았다. 하와이에 거점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 시장 역시 언젠가는 도전해야 할 숙제였다. 역시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본격적으로 랭스필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다. 랭스필드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지만 다행히 ‘랭스필드’ 브랜드는 양 회장이 유지할 수 있었다.

하와이에 도착한 양 회장은 하와이에 한국 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와이 무량사. 양 회장에게는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혈혈단신으로 닿은 이국땅 하와이. 단순히 관광이나 왔다면 혈혈단신이 아무 일도 아니겠지만 새로운 길 위에 선 양 회장에게 이국땅은 외로운 길이었다.

“그 먼 곳에서 한국 절과 스님을 만난다는 게 신기했고 정말 다행스러웠죠. 큰 힘이 됐어요. 일하면서 틈틈이 절을 찾았어요. 고요한 법당에 앉아 부처님을 뵈었죠. 흔들리던 마음 다시 고쳐 잡고 ‘내일’을 준비했어요.”

양 회장은 다시 발로 뛰었다. 어렵게 중국 공장을 통해 공수해 온 골프채 50세트로 시작했다. 랭스필드 ‘1세트’를 시작으로 랭스필드의 역사는 하와이에서 다시 시작된다. 1세트가 2세트, 3세트가 되고 매장이 생겼다. ‘랭스필드’라는 모를 하와이에 심기 시작했다. 마침내 중국에서 공수해 온 50세트를 모두 팔았다. 마진율은 한국에서보다 훨씬 좋았다. 100세트, 200세트, 매출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했고 20평짜리 매장은 70평으로 넓어졌다. 양 회장은 하와이로 건너간 지 2년 만에 재기에 성공한다. 2005년 양 회장은 서울로 돌아와 국산 골프채 ‘랭스필드’를 다시 시작한다. 랭스필드는 2005년 부산APEC 공식 클럽으로 선정된다.

“랭스필드가 30주년을 맞습니다. 30년,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죠. 제2의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모델도 기획하고 있고, 회사 운영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잖아요. 특히 기업이 성장하고 살아남는 일은 더욱 어려운 시절이 됐어요. 랭스필드는 great, 큰 회사가 아닌 good, 좋은 회사로 남고 싶어요. 명품회사, 30년 전 모델도 A/S 해주는 회사, 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 왼손 채 만드는 회사, 태극마크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양 회장은 랭스필드가 단순히 골프채를 파는 것이 아니라 100년 기업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우리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고 가꾸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대에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 더구나 ‘내 것’, ‘우리 것’을 지킨다는 것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키지 못하면 힘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한류’라는 명사가 우리를 들뜨게 하고 있다. ‘우리 것’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이다. 그리고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양 회장은 ‘국산 골프채’라는 명사를 이제 ‘한국 골프채(Made in Korea)’라는 명사로 만들기 위해 다시 뛰고 있다. ‘랭스필드’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불러야 할 이름인 것이다. 언젠가 모든 골프채의 이름들 맨 앞에 ‘랭스필드’가 보이기를 기다린다.

양정무 회장은

전주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버클리대학원을 수료했다. 세계일보 광고국에서 일했으며, 한국고시출판사 대표, 한국골프용구공업협동조합 초대이사장, 상교금속공업 대표이사 회장, 순창레저산업개발 회장을 역임했다. 1992년 성해무역을 설립하고 국산 골프채 브랜드 ‘랭스필드’를 출시했다. 현재 와이랭스필드 회장, 대명금속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골프산업조합 이사장, 국민생활체육경기도골프연합회 회장 직을 맡고 있다. 1998년 ‘신지식인 2호’에 선정됐으며, 1999년 전북애향대상, 2001년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2001년 대통령 표창 등 다수 수상했다.



양 회장은 2019년 신문광고를 통해 ‘No 재팬’ 운동을 펼쳤다.



포천 회문팰리스 사무실에 모신 지장보살.



회문팰리스 내에 설립한 ‘고조선역사박물관’ 내부.

한국 인도 교류 시작은 불교…“정서적 유대 강해”



“한국에서 방문한 사찰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란가나탄 대사는 제주 약천사와 평창 월정사를 꼽았다. 그는 “대자연 속 사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에 인도 불상이 봉안됐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불상이 한국에 온 것은 처음이라 눈길을 끌었다.

인도 불상 봉안은 2020년 10월,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가 통도사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란가나탄 대사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으로부터 통도사 창건설화와 영축산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고 이어 불상 기증 의사를 밝혔다. 불상은 다음 해 4월 15일 항공기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고 4월 30일 주한 인도대사관에서 기증 및 이운(移運) 행사를 했다. 란가나탄 대사는 5월 16일 통도사에서 봉행된 봉불식에 참석, 인도와 양산의 다양한 문화교류 협력에 기대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인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주한인도대사관은 양국의 교류를 더욱 돈독히 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 중이다. 때문에 란가나탄 대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현대불교신문에서 신년호 특별 인터뷰를 위해 찾은 2021년 12월 24일, 이날 대사실 한쪽에는 합천 해인사 동종 모형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합천 해인사에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팔만대장경을 꼭 한번 친견하고 싶다”는 바램을 전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란가나탄 대사는 “한국과 인도 관계에서 불교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며 불교를 통한 다양한 문화 교류를 강조했다.

Q 주한인도대사로 한국에 온 지 3년입니다. 그동안 한국 생활은 어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즐겁습니다. 인도와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양국 모두 근면 성실함, 웃어른과 스승에 대한 공경,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전통 놀이를 비롯해서 다수의 축제, 음식에 공통점이 많고 특히 타밀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와 비슷한 단어가 500개가 넘습니다. 두 국가 모두 법치주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활발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Q 올해 1월, 조계종과 함께 불교와 인도 문화를 주제로 영어 실력을 겨루는 퀴즈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한국-인도 관계에서 불교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불교로 맺어진 양국의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및 그와 관련한 성지를 주제로 조계종과 추진 중인 ‘불교영어 퀴즈 대회’도 그 일환입니다. 2차에 걸쳐 최종 우승자 3인을 선출할 방침인데 이들은 인도 관광부가 지원하는 인도 순례지 팸투어를 5일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인도는 2022년 여행 및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퀴즈 대회에 한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Q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에서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사찰을 짓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경, 대웅전이 완공될 예정인데 인도 내 한국불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 가요?

인도 불교 성지에 한국 불교도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인도와 한국 교류의 시작이 불교였다는 점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으로부터 인도에서 부처님을 만났던 스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와 작은 인도를 만들고 싶어 했고, 이후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파한 라자그리하의 그리드라쿠타 산을 닮은 영축산 자락에 아름다운 통도사를 세우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교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렸고 문화와 사고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적 불교 사상과 관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변형시킴으로써 지금의 한국 불교가 탄생하게 됐다는 점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인도는 한국불자들에게 성지순례에 대한 ‘로망’이 있는 곳입니다. 인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불교 관광지 개발 지원 여부는 어떠합니까?

인도 정부는 인도 내 무수한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이 거쳐간 장소를 불교 순례자를 위한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시설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21년 10월,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르에 국제공항 개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공항이 개항되면 불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쿠시나가르를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하르 주 가야에 있는 국제공항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부다가야의 마하보디 사원 등 여러 순례지를 방문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하며
> 조계종과 불교 퀴즈대회 등 개최
> 우정·동반자 확고히하는 계기돼
>
> 2022년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되면
> 성지순례자 위한 지속적 지원 계획
>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기대감 높아

대사관은 한국 불자들이 인도를 방문해 순례지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도록 다수의 한국 여행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신속한 비자 발급을 포함해 순례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조계종이 부다가야에 건립하고 있는 분황사가 완공되면 더 많은 한국불자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 인도를 찾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Q 힌두교 신자가 80%인 인도에서 현재 불교가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인도는 국교가 없으며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 국가입니다. 오늘날 불교는 인도 내에서 다른 종교와 조화롭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교가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다. 종교로서 불교를 믿는 인구는 적지만 거의 모든 인도인의 사상이나 삶의 방식에서 널리 행해집니다.

인도에는 이론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고등 교육 기관과 종단이 다수 존재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 핵심인 삼귀의 ‘붓담 샤라남 가차미. 다르맘 샤라남 가차미. 상감 샤라남 가차미(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에 귀의합니다)’는 인도의 모든 초등학생들도 배우고 있습니다.

Q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인도 요가를 알리고, 또 문화원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 인도문화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인도 문화를 알리는 데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주한 인도문화원은 한국 국민들에게 다채로운 인도 문화를 소개하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1년 개원 이후 요가, 인도 전통, 현대무용, 인도 전통 악기인 타블라와 하모니움, 힌디어와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언어 수업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제약이 많은 상황인지라 주한 인도문화원은 인도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인도 독립 75주년을 맞아 인도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 민주주의 체제의 발달, 개발 성과를 주제로 여러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Q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가야사 복원’이 이뤄지면서 허황후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허황후의 존재는 ‘해양 루트 불교 전래’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허황후와 관련해 한국불교와 연계한 기념사업들을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양국 국민의 깊은 유대감과 동질감은 인도 아요디아의 허황옥 공주가 16세 나이에 한국으로와 김수로왕과 혼인했다는 일화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현재에도 허왕후 후손들이 허왕후의 고향 인도 아요디아를 정기적으로 방문할 정도로 한국과 인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합니다.

허왕후가 한국으로 왔을 때 함께 온 허왕후의 오빠 ‘장유화상’은 한국에 불교를 전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와 스님들의 말에 따르면 한국 불교는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해상 루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사실로 입증하는 것은 사학자들의 몫입니다.

양국은 2015년 모디 총리가 방한했을 때 논의됐던 허왕후 기념 공원을 설립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께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했을 때 허왕후 기념 공원 기공식에 함께했으며 공원은 올해 개장할 예정입니다. 양국은 이러한 역사적 인연을 기리기 위해 2019년 허왕후 우표 세트 두 종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Q 인도와 한국 수교 5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특별히 구상한 계획이 있는지요?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간 다양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중입니다. 특히 올해는 인도 독립 75주년도 겹쳐 굉장히 뜻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국의 주요인사 교류, 기업 회담, 문화전시 및 워크숍, 학술 콘퍼런스, 청년 및 학생 교류 확대를 통해 인도와 한국의 우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고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조계종과 함께하는 불교영어 퀴즈대회와 마찬가지로 양국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퀴즈와 에세이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인도와 관련 주제로 에세이, 영상·영화 글쓰기 대회, 영화 및 다큐멘터리 상영, 인도 교민들과의 소통, 인도 음식 축제, 마라톤 대회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5월 경에는 불교 학자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 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5월16일 통도사에서 진행된 봉불식에서 주지 현문 스님과 함께.



인도정부가 통도사에 기증한 불상. 무게가 225kg에 달한다.



란가나탄 대사 직무실에 놓인 해인사 동종과 허왕후 우표세트.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는

1970년 인도 뉴델리에서 출생했다. 인도 델리대 역사학 학사·석사를 거쳐 1994년 외무부에 첫 발을 디뎠다.

2005~2008년 주홍콩 인도영사관 1등서기관·참사, 2008~2012년 주미얀마 인도대사관 정무 참사, 2013~2014년 인도 외무부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 국장, 2014~2018년 7월 인도 외무부 방글라데시·미얀마 국장을 거쳐 2018년 8월부터 주한인도대사를 맡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글귀로 경허 선사의 '세간만법(世間萬法)'을 꼽은 원보 스님은 "모든 중생들이 이미 완벽한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세상의 변하는 일에만 얽히고 있다"며 "깨달음을 주는 선사들의 다양한 시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살아있는' 한국 불교, 세계가 주목할 콘텐츠"

유튜브포교 첫 발 내딛다 원보 스님

시흥=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992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 인근 한 선원. 16살 소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이날 숭산 스님 제자가 법문한 '부처님 생애'는 소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소녀는 가장 높은 지위로 태어났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임했고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도 공평했던 2600년 전 부처님 이야기에 매료됐다. 어머니를 여읜 직후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헤매던 중 부처님을 만난 것이다.

동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우리나라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토의 1/4이 숲이고 2800개가 넘는 호수가 있으며 산 하나 없는 평원의 나라다. 인구 200만 명이 겨우 넘는 이 작은 나라는 1944년 소련에 점령돼 위성국가로 오랫동안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다 1990년이 돼서야 독립국이 됐다. 오랜 기간 동안 가톨릭을 국교로 했고 소련 점령기에는 종교가 금지돼 종교서적은 모두 금서였다. 독립과 동시에 새로운 문물이 물밀 듯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종교도 그중 하나였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혼란스러웠던 소녀에게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랐다. 부처님은 소녀에게 크나큰 의지처가 됐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일주일에 서너 차례 선원을 찾았다. 참선하는 순간순간이 마냥 좋았다. 기도와 수행을 이어가다가 어느 날 부처님 가르침 안에 진정 행복이 있다는 걸 알았다. 대학 졸업식 직후, 한국행 비행기를 탄 그는 서울 화계사에서 1년간의 행자생활 후, 2002년 대안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받았다. 대안 스님은 원보(圓寶)라는 불명을 내려줬다. '보배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의미였다.

2007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제방선원에서 안거하며 은산철벽을 마주한 원보 스님은 이후 시흥 법련사에서 기도하며 리투아니아에 한국식 선불교도량을 만들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그렇게 수 년, 법련사 옆 빈터에 목재를 보관하고 기와와 주춧돌을 준비하던 스님의 바람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16년, 수도 빌뉴스 인근 쵸비쉬키스에 '선림원'을 개원한 것이다. 숭산 스님의 걸음으로 선의 토대가 마련됐긴 하지만 불모지나 다름없는 동북부 발트해 연안에 원보 스님의 전도를 기점으로 선풍이 휘날리게 됐다.

선림원은 창립 기반 마련부터 재가불자들 신심의 결정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후 선림원은 코로나19 이전까지 매일 수십명이 모여 참선하는 선원으로 성장했다.



조계종에서 주최한 유튜브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한 애니메이션 '불교가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요?'의 한 장면.

16세 처음 만난 부처님 법 감화
2002년 대안 스님 은사로 출가
법련사 소임보며 리투아니아에
"한국 선불교 도량건립"을 발원

2016년 선림원 개원 후 천일기도
외국인용 불교 콘텐츠 제작 다짐
선사 가르침 등 다양한 콘텐츠로
"세계에 한국 불교 강점 알릴 것"

선원이 안정되자 한국으로 돌아온 원보 스님은 법련사에서 1000일 기도를 이어가며 부처님 법음을 세상에 퍼지게 할 방법을 고민했고 유튜브를 떠올렸다. 양질의 콘텐츠는 문서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다.

"무엇보다 한자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으로 인한 오역으로 불교 관련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담은 다양한 외국어 불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아이디어는 넘쳐났지만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익히느라 속도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조계종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외국인 홍보인력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유튜브 공모전을 발견했다. 원보 스님은 곧장 공모전에 응모,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과정과 한국불교의 역사를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했다.

짧은기간 준비한 것이었지만 스님 제출한 작품 '불교가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요?'는 이번 공모전에서 은상 수상의 영예를 앉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의 도전이었기에, 여러 그래픽 툴을 하나하나 공부해가며 만드느라 품이 많이 들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은 다음을 이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줬다. 원보 스님은 머릿속으로만 되뇌었던 아이디어들을 엮어 하나씩 결과물로 내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현재 이를 실행 중이다. 선사들의 이야기와 가르침, 선시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잘 번역된 외국어 영상으로 만들어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원보 스님은 "스님들이 수행을 중심으로 선방에 모여 있고 선사의 가르침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한국불교의 '살아있음' 이야말로 세계가 주목할 가장 강력한 불교 콘텐츠"라고 강조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이외에도 원보 스님은 리투아니아 은행원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명상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 스님은 반년 째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진행되는 명상 수업에서 호흡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 오전 근무 시작 40분 전, 이른 시간 시작함에도 은행원 20~30여 명이 자발적으로 수업에 동참하고 있다. 비대면 명상 수업은 은행 측이 먼저 원보 스님에게 연락을 해 와 성사될 수 있었다.

"전 세계인들이 명상을 찾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깊은 좌선 전통의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안타까워요. 명상은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장 쉽고 건강하게 알리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릴 거예요."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대한불교조계종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수 국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전화 02)356-2001 / 팩스 02)359-6297



2022 謹賀新年 임인년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장줄리앙 푸스(Jean-julien Pous)는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2017년 제주도 해녀 관련 다큐멘터리 〈울림〉과 202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영상 〈세한의 시간〉을 제작한 바 있다. 최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미디어 아트 작품인 '순환'과 '등대'를 선보였다. **사진=박재완 기자**

"반가사유상 Aura에 매료됐죠"

반가사유상을 장엄하다 장줄리앙 푸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11월 12일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암전된 전시실을 따라가면 초입에 대형 미디어 아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순환'을 주제로 한 이 작품은 물이 얼고 기화하는 이미지들을 통해 공(空)과 연기(緣起)를 표현해 냈다. 전시 공간에 만나는 두 반가사유상의 온화한 미소를 만나기 전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갖도록 스스로를 침잠시킨다.

궁금했다. 이 같은 사유의 작품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알게 돼서는 놀랐다. 작품을 만든 작가가 푸른 눈의 외국인 감독이어서.

그는 '사유의 방' 입구의 '순환' 뿐만 아니라 출구의 '등대', 승려 장인 특별전 '손으로부터(From the Hands)'이라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잇달아 선보였다. '사유의 방' 출구의 '등대'는 깊은 사유로서 진리를 전하는 반가사유상이 주는 위안을 표현했고, '손으로부터'는 끝없이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조각승의 손을 통해 작품으로 수행을 했던 조선 승려장인들을 구현했다.

수준 높은 미디어 아트 작품을 선보인 주인공은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 장줄리앙 푸스(Jean-julien Pous, 38)이다. 그의 작품으로 불교 전시인 '사유의 방'과 '조선의 승려 장인' 특별전은 그 의미를 더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난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저런 작품을 만들게 됐냐"고. 그는 "쉽지 않았다. 무엇보단 콘셉트를 잡기가 어려웠다"고 술회했다.

"실험적 시도를 많이 했어요. '순환'은 모든 게 촬영입니다. 물이 기화하는 모습들까지. 실험적인 촬영을 하다 보니 '실패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죠."

불교를 접하지 않았던 서구인이 공과 연기 같은 불교 사상을 이미지화 해 작품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지만, 푸스 감독은 명상 등에 관심이 높았다. 최근 그가 탐독한 책은 에마뉘엘 카레르의 수필집 〈요가〉다. 이 책을 통해 그는 "명상은 심각하거나 신성한 것이 아닌 평범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임을 알았다"고 했다.

푸스 감독은 '사유의 방' 미디어 아트 작품을 의뢰받고서는 친구에게 불교학자를 소개받아 자문을 구했고, 〈반야심경〉도 찾아 읽었다.



장줄리앙 푸스가 촬영한 두 반가사유상의 모습.

'사유의 방' 미디어 아트 제작
물의 순환 통한 '연기 표현해'
승려장인 특별전에 작품 선봬
경주 신선암 마애불 인상 깊어
"불교 주제 작품 만들고 싶어"

"〈반야심경〉은 공(空)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이어지는 실체란 없다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 작업에서 물질 너머의 공을, 그리고 무(無)를 사유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반가사유상을 만나보시면 알게 되지만, 우리는 두 불상을 통해 세상 너머를 명상하고 세속의 고민을 덜어내게 됩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빛을 받는 반가사유상을 볼 때 '신성(神聖)'을 느꼈다고 했다.

반가사유상에서 느꼈던 신성과 위안은 출구 작품인 '등대'에 투영된다. 깊은 사유로서 진리를 전하는 반가사유상이 주는 위안을 표현한 '등대'에 대해 그는 "저 바다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등대는 나아갈 길을 전한다. 반가사유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은 등대와도 같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푸스 감독은 시종일관 유창한 한국어로 자신의 작품 내용을 전했다. 이내 그의 한국과의 인연이 궁금해졌다. 푸스 감독은 "부인 덕분"이라고 답했다. 푸스 감독의 부인은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성아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하지만 푸스 감독의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아시아권 문화가 익숙할 법하다. 그의 부모님은 프랑스어와 중국어 교사로, 그 역시 중국 우한(武漢)에서 태어나 6세까지 자랐다. 홍콩에서 고등학교를 다녔고, 프랑스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며 만든 졸업작품이 부천국제학생영화제에 출품한 것을 계기로 한국을 오갔다. 그러던 중 만난 민성아 감독과 만나 2013년에 결혼했다.

그는 한국에서 여러 사찰을 다녔다고 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은 곳을 꼽아달라고 하자, 경주 남산의 절벽 불상을 이야기했다. 곧바로 보물 '경주 남산 신선암 마애보살반가상'이냐고 말하자 바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촬영하기 위해 경주 남산을 밤에 올랐어요. 야간 산행이니 많이 어려웠는데 신선암 마애불을 만나고 감동했죠. 너무 경외로웠어요."

한국에서 일정을 마무리한 푸스 감독은 12월 9일 프랑스로 돌아갔다. 그에게 향후 계획에 물었다. 그는 한동안 부인 작품의 후반 작업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교 주제 작품도 계속하고 싶다는 의향도 내비쳤다.

그는 종교가 가진 아우라(Aura)를 사랑하는 사람인 듯 했다. 작품 역시 사유와 위안을 전한다. 그의 작가 노트엔 이렇게 적혀 있다.

"영상과 사진을 통해 두 반가사유상이 품은 온화한 위안이 전해지길 소망한다. 차디찬 세상에 퍼지는 미소의 따스함처럼, 어둠 속의 빛처럼, 외로운 세상에서도 곁에 있는 벗처럼, 무정한 세상에 다정한 영혼처럼, 길 잃은 이들의 등대처럼, 거칠기만 한 곳에 깃든 세심함처럼."

2022 謹賀新年 임인년

안양 수리산 용화사
합동 수계법회 봉행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다문화tv 사바세계오신 생불
생이지지 용화미륵부처님 법문 방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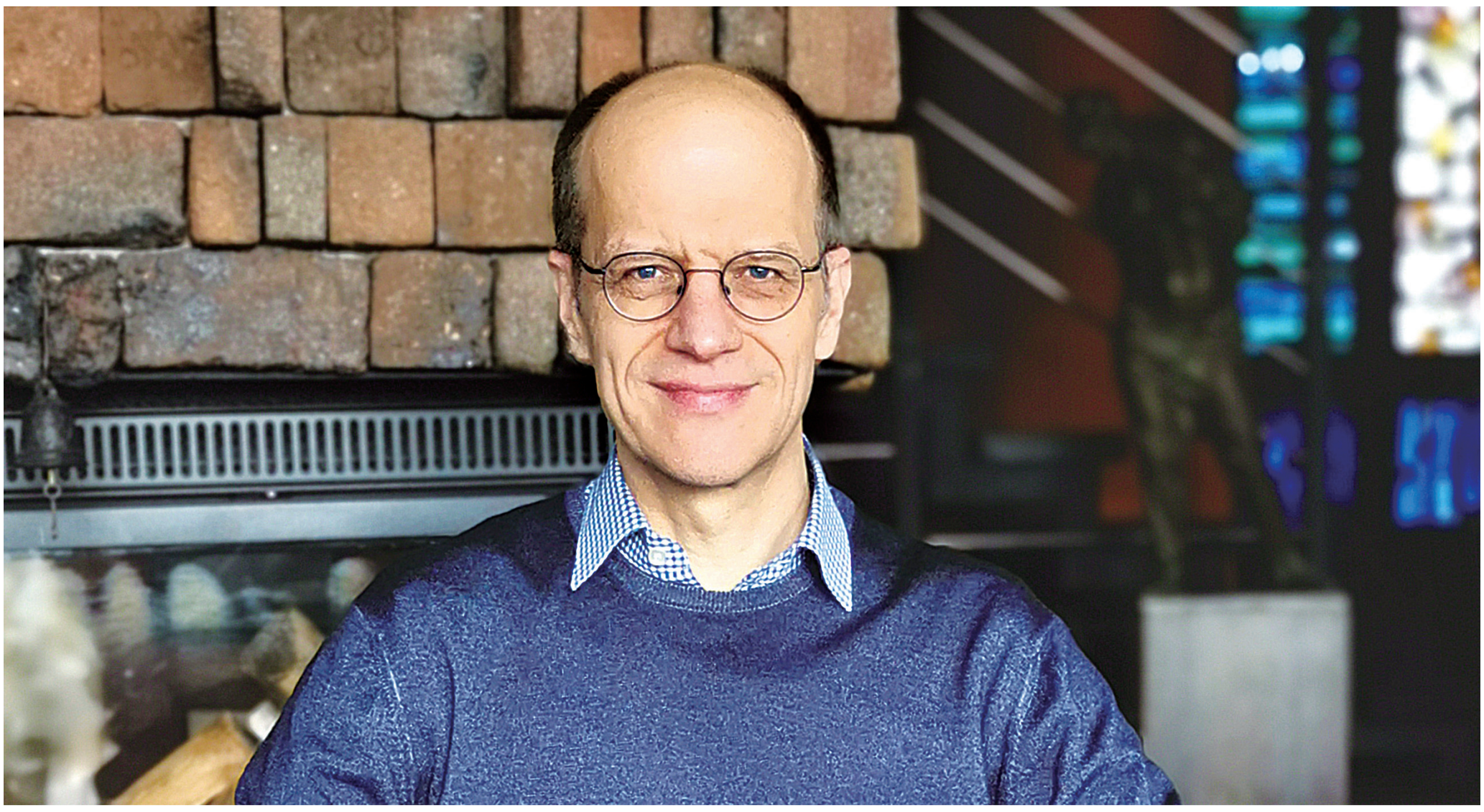
생불 용화 미륵부처님께 광명의 빛으로 직접 수계를 받으면
내몸에 광명의 빛이 들어와 생불이 됩니다.
죽으면 누가 천도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세세생생 윤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합동 수계 법회 전화 예약접수
■ 일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날마다 수계 접수 받습니다.
■ 장소 :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공평빌딩 6층)
■ 문의 : 031)444-9985, 9986, 9987

NAVER, YouTube 에 용화 미륵부처님 TV 검색



마음공부 수승함, 獨청년에 전해요



한스욕 교수는 한국불교가 지닌 긍정적인 힘이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문화포교에 앞장서다 한스욕 에플레

글 · 사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자로서의 인연을 맺는 일은 수많은 전생의 삶 속에서 쌓인 결과일 것이다. 먼 독일땅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한국사찰을 우연히 찾고, 여기서 접한 부처님 가르침을 체화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또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이는 어떤 인연이 닿아서일까. 독일인 의사 한스욕 에플레 베를린 의대교수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장을 맡으며 포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대행선사 법문을 늘 생활 속에 되새기며 내면의 불성을 찾고 있는 수행자이다. 학창시절부터 아시아 선지식들에게 관심이 많았던 한스욕 에플레 신도회장은 도서관을 찾아 불교서적을 탐독하곤 했다. 하지만 그 책들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수는 없었다. 그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단순히 지식을 얻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내면의 길을 인도해 줄 스승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졌다.

베를린대에서 의학공부를 하던 그는 가정을 일구었고, 베를린대학 의대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게 된다. 아내와 아들과 딸들 사이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날 그에게 심근염이란 병이 찾아온다. 더는 직장에 다닐 수 없었던 그는 절망에 빠진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베티나를 만나게 됐고, 결혼해서 아들 모리츠와 딸 한나를 낳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쯤 저는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3년 뒤, 그러니까 딸이 태어난 조금 뒤, 저는 심근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위기였어요."

그때 그에게 한줄기 빛이 되었던 곳이 바로 한국지인의 소개로 가게 된 독일 한마음선원이었다. 독일 뒤셀도르프 인근 작은도시인 카스트에 위치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유럽에서 몇 안 되는 한국 선수행 도량이다.

그가 1997년 처음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 도착했을 때 받은 느낌은 마치 마음의 안식처에 온 듯 했다고 한다.

"베를린에서 600km 떨어진 먼 길을 가며 저는 이 여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갈 것인지 물어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원 문을 열고 처음 도량에 발을 디딘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스님들을 뵈었을 때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내면의 안정과 편안함, 행복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내 대부분의 불교센터는 티베트불교나 남방불교를 전하는 곳이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가 처음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한국불교와 연계된 불교센터는 몇 군데밖에 없었다.

독일 내 많은 불교센터가 있음에도 600km나 떨어진 한국불교센터, 특히 한마음선원에 가게 된 것은 '인연'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불서 번역으로, 불법 홍포

불교를 접하고 나서 한스욕 에플레 교수의 삶은 변했다. 그는 "마음공부를 하기 전에는 어려움에 부딪치면 그 해결방안을 밖에서만 찾았다. 하지만 생활 속 참선수행 실천으로 모든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의 핵심은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인연이 제 안의 내면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그 인연을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수행이고, 그 수행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감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학의 고향'이라 불리는 독일에서도 '불교'는 남다른 통찰을 선사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서양철학과 내면의 경험을 지향하는 한국불교는 서로를 상호 보완, 이롭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통찰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이를 삶에서 발현하는 목적 등은 통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자신을 변화시켰듯, 보다 많은 길을 찾는 이들이 불교를 접하고 마음공부에 발을 들여놓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지원에서는 1996년 개원 이후로 불서 번역에 힘을 쏟았다. 2005년부터 한마음선원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책과 불서들을 번역해 세계 7500여 출판사가 참가하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에 참가했고, 〈뜻으로 푼 천수경〉을 시화집 형식으로 출간한 〈만가지 꽃이 피고, 만가지 열매 익어〉는 2008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박람회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같은 일에는 한스욕 에플레 교수와 같은 동서양의 사상에 정통한 이의 참여가 있었다.

> 심근염 고통 속 불교 인연 닿아
> 1997년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서
> '마음의 안식처' 위안 받고 감화
> 대행 선사 가르침 생활 속 실천
>
> 불서번역에 기여, 독일서 전법
> 지역 종교간대화, 화합에 앞장
> 합창단 활동, 가족도 문화포교
> "불심씨앗 뿌리는일 지속 매진"

"한국불교는 독일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인들이 그 참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번역팀의 일원으로 번역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많은 독일어 번역본 법문집, 대행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과 예화집, 〈내 마음은 금부처〉, 대행선사의 가르침의 요체가 담긴 〈믿고 놓아라〉(한국어 버전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와 생생한 육성법문 그대로 편집된 〈깨어나 웃어라〉가 독일출판사와 한마음국제문화원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중 〈뜻으로 푼 천수경〉은 장기화된 코로나 시대에 독일인 신도님들이 집에서 매일 독송하며 정진할 수 있는 보물이었습니다."

종교간 대화 앞장 · 합창단 활동도

독일은 수백년간 기독교 전통문화를 갖고 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독일에서 종교간 대화를 비롯한 사상적 교류로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이 위치한 곳은 가톨릭이 융성했던 라인란트 지역으로 지역사회 내 여러 종교단체와의 교류는 빠질 수 없는 과제였다.

20여 년간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독일지원 스님들을 모시고 지역사회 내 교류로 종교평화를 도모했다. 특히 가톨릭 시토회 소속의 랑바덴 수도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정신적 교류를 하고 있다. 매년 평화기도회에 불교대표로 참가하고, 2015년부터는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주최로 가톨릭 수사, 기독교 목사, 종교학자 초청행사도 열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음악을 통한 교류다. 그 자신이 독일 한마음선원 합창단 일원으로 지역축제와 다민족축제에 참여하고, 역시 불자인 그의 가족들도 사물놀이와 다도를 통해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도 알리고 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이러한 활동 속에 지역사회 주민들과 하나가 되고 카스트 시의 낯선 이방인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종교 대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여러 활동으로 한국불교가 독일인들에게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질성을 극복하고 상생의 문을 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교가 세계인 마음 안식처 되길

독일 사회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새해를 맞아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이는 발전 진화해 갈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 섞인 말을 전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코로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의지하고 가치로 규정하는 성공, 물질적 풍요가 삶, 죽음과 직접 마주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실존적 위기는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자유롭게 결정하는 기회가 있음을 환기시킨다"며 "낙담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마음공부가 알려준 우리 안의 긍정적 힘을 발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종 선거 등 사회변화 앞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겉보기와 달리 통일 독일도 국민 화합이라는 과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다. 불자 입장에서 보면 상호 이해와 상호 존중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마음과 그 속에서 하나되는 화합의 마음, 관용과 조화 속에 하나 되는 성숙한 마음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마음공부가 알려준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 힘, 무한한 한마음에 대한 신뢰는 물질화된 오늘날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마음공부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걷고자 한다.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끝으로 "대행 큰스님의 가르침과 지혜, 또 내가 경험했던 자유를 더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반들과 함께 많은 분에게 용기를 주고 가르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씨앗을 뿌릴 것"이라며 다짐의 말을 전했다.

"세계는 지금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토양의 과도한 개발 및 기타 지표들은 인류의 서식지로서의 지구의 존속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불교는 우리의 본성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며, 우리가 모든 생명과 화합하여 공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실이 이 사람들의 중병을 치유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불교,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만나 겪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진정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감사함으로 흘러가길 희망합니다."



2017년 6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종교화합장에서 초대받아 불교 대표로 선법가 합창을 하는 한스욕 교수.



2018년 랑바덴 수도원의 초대를 받아 종교간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한스욕 교수.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에서 매년 개최하는 종교간 대담에서 각 종교 대표 및 지역주민들이 모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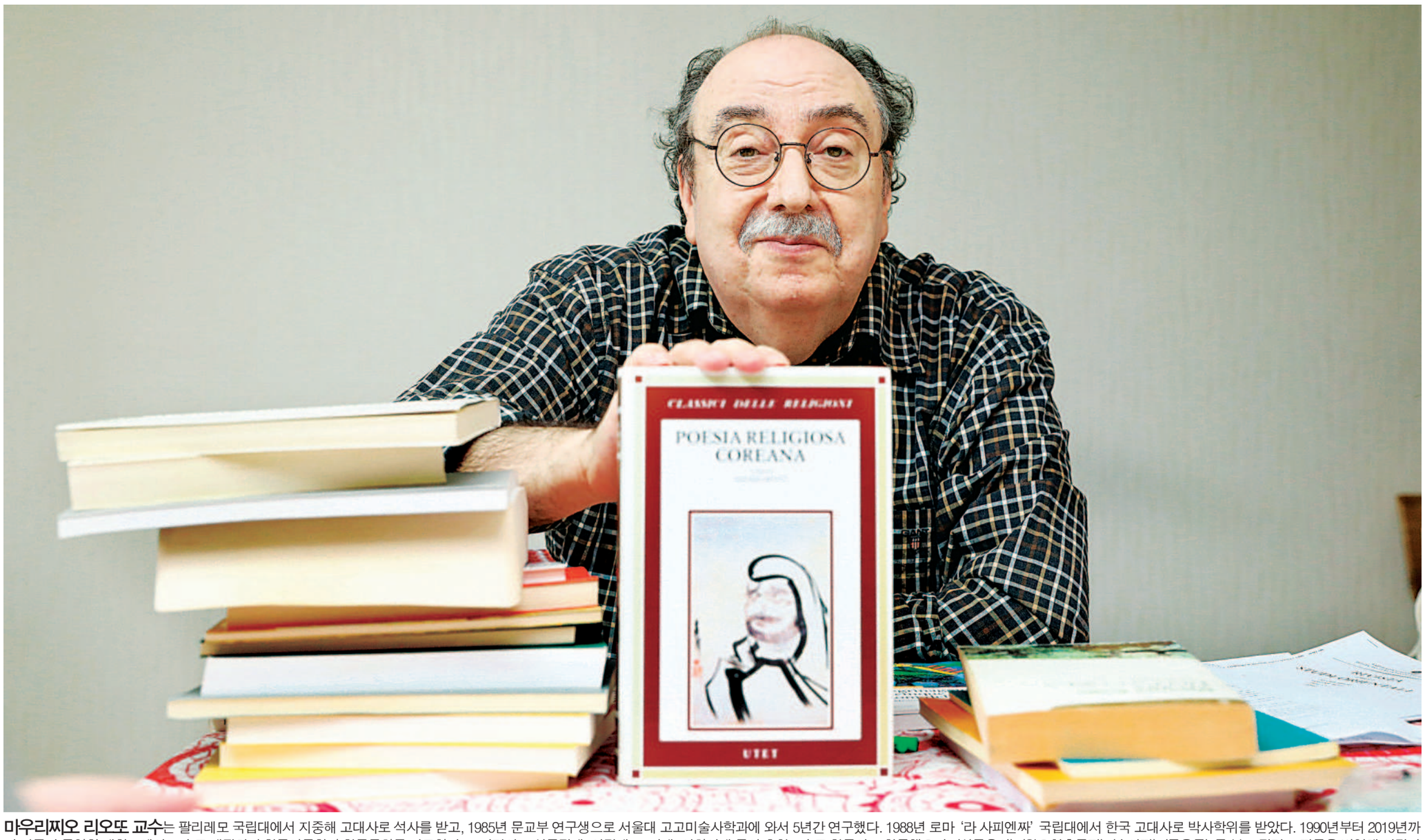
한스욕 에플레 교수는

1993년 베를린 의대 의학박사를 취득하고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베를린 의대 슈테글리츠(Steglitz) 병원 의사를 지냈다. 1995년부터 베를린대 샤리테병원 내과의사를, 2006년부터 베를린의대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감염학 전문의로서 의학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심성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2001년부터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신도회장을 맡아 독일 전법포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애 스님 '혜초'"…韓불교 사랑한 碧眼 학자



마우리찌오 리오또 교수는 팔리레모 국립대에서 지중해 고대사로 석사를 받고, 1985년 문교부 연구생으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 와서 5년간 연구했다. 1988년 로마 '라 사피엔짜' 국립대에서 한국 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어문학과 한국문화를 가르쳤다. 그러면서도 성균관대, 서강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서 초청교수로 한국서도 활동했으며, 〈삼국유사〉〈왕오천축국전〉〈수이전〉〈구운몽〉 등 불교 관련 고전들을 번역해 이탈리아에 소개했다. 현재는 안양대 부설 연구소 HK+사업단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K고전, 이탈리아에 알리다 마우리찌오 리오또

신성민 기자 moltp79@hyunbul.com

"이탈리아에 한국문화원이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자택을 방문한 기자에게 커피와 디저트 주류를 내온 마우리찌오 리오또(Maurizio Riotto, 64) 안양대 부설 연구소 HK+사업단 교수는 상기된 표정으로 질문했다. "모르겠다"고 답하자 "2016년입니다"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탈리아라면 한국과 수교를 체결한 지 138년이 되는 국가다. 그럼에도 수교를 맺은 지 132년 만에 한국문화원이 설립됐다는 게 놀라웠다. 리오또 교수는 말을 이어갔다.

"일본은 이탈리아에 문화원을 1962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문화, 언어를 이탈리아 전했죠. 한국은 54년이 늦었죠. 그런데 늦은 만큼 열심히 해야 하는데 현재 한국은 K-팝, 드라마, 요리 밖에 없어요. 그런 건 유행이 끝나면 끝입니다. 오랫동안 남는 건 고전입니다. 한국 고전을, 문학을, 인문학을 알려야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전을 강조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가 고전을 통해 한국과 한국불교를 알았고 평생에 걸쳐 연구에 매진해왔기 때문이다.

연구생으로 한국에 오다

리오또 교수의 한국과 인연은 1985년 2월 당시 문교부 연구생으로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에 오면서부터다. 그는 이탈리아에 있을 때도 고전을 공부했다. 석사까지는 팔레르모 국립대에서 지중해 고대사를 전공했다.

"그리스와 로마 고대사를 보면서 교류 관계들을 살폈는데 페르시아 언저리까지만 나오는 겁니다. 더 옆으로 가니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이 있었어요. 문헌을 찾아보니 중국과 일본 문헌들은 많은데 한국 관련 문헌이 전무한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아주 흥미로웠어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시베리아도 가깝고, 대만도 가깝죠. 이런 곳의 역사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제 고향인 이탈리아와도 비슷하겠다고 생각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25살에 한국으로 온 리오또 교수는 유학생활 동안 천생 배필을 만났다. 이탈리아 과외선생으로 만난 학생의 언니인 황양숙 씨와 1987년 결혼하게 됐다. 1988년 로마 라 사피엔짜 국립대서 한국고대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1990년부터 2019년까지 나폴리 동양학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어문학과 한국문화를 가르쳤다.

이탈리아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도 성균관대, 서강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초청교수로 활동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갔다.

또한 저술활동도 이어갔는데 주로 한국 고전과 문학을 이탈리아어로 번역하는 것이 주를 이뤘다.

특히 불교 고전 번역물이 눈에 띄었다. 2010년에는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을, 2014년에는 설화집인 〈수이전〉을, 2019년에는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를, 2021년에는 각훈 스님의 〈해동고승전〉을 각각 번역해 이탈리아에 소개했다. 또한 그는 〈구운몽〉 〈춘향전〉 〈홍길동전〉부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까지 한국 고전 · 현대 문학을 번역해왔다. 그렇게 번역한 저작은 26권에 달한다.

'삼국유사' 한국 문화 집약체

가장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저작은 단연 〈삼국유사〉다.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의 승려 보각국사 일연이 고려시대까지 전승되던 삼국시대의 여러 역사와 설화를 담아 1281~83년 무렵에 저술한 사서(史書)다. 한국 고대의 역사 · 지리 · 문학 · 종교 · 언어 · 민속 · 사상 · 미술 · 고고학 등 총체적인 문화유산의 원천적 보고로 평가되고 있다. 5권 2책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9개의 편목으로 나눠져 있다.

2014년에 번역에 착수해 책 발간까지 5년이 걸렸다. 리오또 교수는 〈삼국유사〉 판본 중 가장 완벽하다고 전해지는 1512년 중종임신본(中宗壬申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번역서에는 저본의 판본부터 세세한 각주, 참고문헌, 색인목록까지 담아내 관심 있는 이탈리아인이라면 〈삼국유사〉를 한권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했다.

"〈삼국유사〉는 한국 고전의 대표작입니다. 일단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습니다. 문학, 종교사, 불교철학, 역사, 언어가 총망라됐죠. 단적인 예로 전해지는 신라 향가 25수 중 15수가 〈삼국유사〉에 수록돼 있죠. 이는 한국 국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한국문화의 보고는 〈삼국유사〉입니다. K-팝이 아니라."

리오또 교수 말에는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이 묻어나왔다. 그는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은 폐쇄적인 유교가 아닌 '통섭적인 불교'라고 본다. 고려 이후 중국문화를 따라가다 조선에 들어 중국 유교에 완전히 젖어들면서 문화가 폐쇄적으로 변화됐다는 것이다.



리오또 교수가 번역한 한국의 불교 고전들.

1985년 문교부 연구생으로 서울대 오면서 한국과 인연 伊서 29년간 한국학 가르쳐

왕오천축국전 · 삼국유사 등 번역해 이탈리아 학계 전해 일부 번역서, 교과서로 활용

'한국 불교 세계화' 위해서는 정부지원 필수…고전 관심을

"K-팝아닌 불교가 문화寶庫"



"한국은 통일신라까지는 완전한 독립체였습니다. 통일신라는 완벽한 국제사회였죠. 서역의 구법승부터 아랍의 상인들까지 신라를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역병을 쫓는다는 처용탈이 있는데 생긴 것을 보면 아랍인같이 생겼죠. 당시 세계에서 의학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 아랍입니다. 또한 외국의 종교이자 사상인 불교는 삼국시대에 전해졌죠. 불교가 전해지며 동북아시아 정신문화에 일대 혁신을 가져왔죠. 한반도는 불교 도래 후 1000년동안 불교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신문화의 근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韓고승 전기, 서양에 전하다

가장 최근의 저작인 〈해동고승전〉도 철저한 번역과 연구를 통해 탄생한 역작이다. 〈해동고승전〉은 영통사 주지 각훈(?~1230)이 1215년 왕의 명령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다섯 권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는 2권만 전해지고 있다. 신라와 고구려 승려들의 불교 수학에 관한 전기를 모은 〈해동고승전〉은 삼국시대 고승들에 관한 유일한 작품으로 탁월한 역사적, 문학적, 종교적 가치를 지닌 텍스트다.

베네치아대 카포스카라나 출판사서 출간한 리오또 교수의 번역서〈Santi buddhisti della Corea antica(고대 한국의 불교성인)〉는 고서의 진본성 연구 논문과 함께 자세한 역주와 한문 원본을 소개했다. 한국불교 고전 〈해동고승전〉이 서양에 소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꼼꼼하고 세밀한 연구와 번역을 통해 세상에 나온 한국 고전 번역물들은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한국 교과서로 통한다. 실제 그가 쓴 〈한국어 입문〉이나 〈한국문학사〉, 〈한국통사〉 등은 이탈리아 곳곳에서 교재로 쓰인다. 몇몇 번역서는 스페인어로 번역돼 유럽에 소개되기도 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韓스님은

이내 궁금해졌다. 대부분의 한국인도 읽어본 적이 없을 〈왕오천축국전〉 〈해동고승전〉을 연구 · 번역해 이탈리아에 전하는 그가 가장 최애(最愛, '가장 사랑한다'는 표준어)하는 고승이 누구일지. 곧장 망설임없이 "혜초 스님"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혜초 스님은 오로지 구법을 목적으로 걷고 걸었습니다. 지금은 여행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고대에는 출신도 좋아야 하고, 나라에 인정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혜초 스님은 인도 스승이 있어서 경전을 구하기 위해 힘든 여행을 했죠. 그 여정 속에서도 스님은 자신의 여행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비잔틴제국까지 등장하죠. 이는 아마 한국 유일 기록일 겁니다. 당시 스님들은 비교문화연구의 대가였습니다. 한국불교 역시 이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대화는 인문학의 중요성으로 넘어갔다. 리오또 교수는 "현대인은 고전을 배우고 인문학을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독립적 인간'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문학자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에 맞춰 연구하기 바쁩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유행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은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비평하지 않는 인간은 양(羊)과 같습니다."

韓불교 세계화, 결국 '古典'

비영어권 국가인 이탈리아의 한국학 학자인 만큼 '한국불교 세계화' 과제에 대해 궁금해졌다. 리오또 교수는 단번에 답했다. "한국불교 세계화요? 일단 한국불교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그가 지적하는 요점은 인터뷰 초입과 '수미쌍관'이다. 우선 한국 정부는 경제 활동이 활발한 곳을 중심으로 문화원을 개설한다. 외교 관계를 맺은 지 130여 년이 지나서야 이탈리아에 한국문화원이 개설된 것도 이탈리아가 한국과 많은 교역을 하지 않아서라는 게 리오또 교수의 주장이다. 그나마 2016년 설립된 한국문화원은 드라마, 영화, 음악 일변도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불교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제가 번역한 고전들은 현지인들에게는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만큼 한국의 역사와 정신문화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국을 알리고 싶다면 한국불교를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고전을 번역해 알리고, 현지인들이 연구하게 해야 오랫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K-팝도 드라마도 결국엔 유행이죠. 하지만 고전이 남긴 잔향은 오래갑니다."

2019년 은퇴하고 2020년부터 안양대 부설 연구소 HK+사업단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올해에도 한국 고전 번역을 이어간다. 오는 5월에는 고려시대 문인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를 번역 · 출간하며, 고려 후기 요원 스님이 〈법화경〉의 영험담을 모아 엮은 〈법화영험전〉을 하반기까지 출간할 예정이다.

리오또 교수는 인터뷰 말미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 "오롯이 호기심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는 것도 "알고 싶어서"였다. "배울 게 있다면 거지에게도 배울 수 있다"는 그의 연구는 현재 진행형이다.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마음에 자비를 세상에 평화를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조실 설악 무산
문장 정산 지원
원로 익산 도후
회주 법검 우송
주지 적광 지혜
선덕 문석
신도회장 일심행

사부대중일동

신흥사 교육기관 /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신흥사 복지재단	춘천불교방송
· 신흥사 향성선원 · 백담사 무금선원 · 백담사 기본선원 · 신흥사 신도회 · 신흥사 불교대학(원각사) · 재단법인 만해사상 실천 선양회 · 재단법인 성준장학재단	• 반야노인요양원 • 반야어린이집 • 룸비니어린이집 • 연꽃어린이집 • 춘천노인요양원(연화마을)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 속초시노인복지관 •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 • 금강반야마을	• 춘천 영서지역 FM100.1Mhz • 속초, 고성 FM93.5Mhz • 양양 FM97.1Mhz • 강릉, 동해, 삼척 FM104.3Mhz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진산 종하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관악구 승방1길 109-80(남현동) 전화 02)582-8609

대한불교조계종

호 암 사

호암산

날마다 좋은날 되세요

호암사 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금천구 호암로 278 (시흥동) www.hoapsa.org
전화 02)803-4779 팩스 02)891-0770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사회복지법인 修德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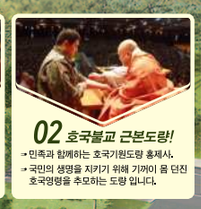
교 구 장 미 광 선 일
부교구장 육군 능원 · 공군 성광 · 해군 법원
대한민국 육 · 해 · 공 군 군 승 일 동
대한민국 육 · 해 · 공군 예비역 군승단 일 동
대한민국 국 군 불 교 총 신 도 회 일 동
대한민국 국 군 예 비 역 불 자 연 합 회 일 동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불사



01 군불교 총본산!
• 장병, 마음의 쉼터이자 귀의처 홍제사.
→ 군승법사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군장병의 불교문화 체험공간 입니다.



02 호국불교 근본도량!
→ 민족과 함께하는 호국기원도량 홍제사.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 던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도량 입니다.



03 미래불교 산실!
→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포교도량 홍제사.
→ 지역민의 신행처이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자와 함께하는 수행도량입니다.



동참계좌: 국민은행 477401-01-237619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동참문의: 군종특별교구 종무실 02-797-7266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군불교 총본산이 될
호국 홍제사가 건립됩니다.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대한불교조계종

기 쁨 정 사

주지 지 인

사부대중일동

부처님땅 만평불사 (한 평 108만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305번길 129 TEL 031)974-8550